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조 효 진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후기청소년기 중도입국청소년의
진로결정과정 에 대한 질적연구

2024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상담심리전공
김 영 은

후기청소년기 중도입국청소년의
진로결정과정에 대한 질적연구

조 효 진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4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상담심리전공


김 영 은


인 준 서

김영은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4년 5월

심사위원장 _____ 임 지 숙 

심사위원 _____ 전 지 열 

심사위원 _____ 조 효 진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에서는 후기청소년기 중도입국청소년의 진로결정과정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본인의 국적에 상관없이 외국에서 성장 과정을 거치고 부모님 중 한 분이 외국인으로 한국인과 재혼하게 되어 청소년기에 한국으로 입국하게 된 만 19세~24세의 후기청소년기 중도입국청소년 1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에 대하여 반구조화된 면접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는 Strauss와 Corbin(1990)의 근거이론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후기청소년기 중도입국청소년의 진로결정과정의 의미와 구조를 분석한 결과 개방코딩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89개의 개념과 37개의 하위범주, 14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축코딩 과정에서 ‘후기청소년기 중도입국청소년의 진로결정과정에 대한 패러다임 모형’을 제시하였으며, 과정분석을 통해 ‘후기청소년기 중도입국청소년의 진로결정 과정단계’를 설명하였다.

축코딩 결과로 도출된 중심현상은 ‘낯선 나라에서 나의 길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함’으로 나타났으며, 중심현상의 원인이 되는 인과적 조건에서는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갑작스럽게 한국에 입국하게 됨’, ‘진로계획이나 꿈이 없는 상태로 한국생활을 시작하게 됨’으로 나타났다. 중심현상에 영향을 주는 맥락적 조건은 ‘언어 장벽에 직면함’, ‘출신국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경험함’, ‘한국 문화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함’, ‘진로정보 부족으로 진로탐색에 어려움을 겪음’으로 나타났다.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조절하는 중재적 조건은 ‘주변 사람들(부모님, 친척, 선생님, 교수님, 친구 등)의 도움(진로 정보 제공, 상담)을 받음’, ‘사회적 자원(다문화 센터, 대학교 일자리 센터)에서 지원을 받음’으로 나타났다. 중재적 조건에 영향을 받는 작용/상호작용 전략으로는 ‘한국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함’, ‘낮선 곳에서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한 나만의 방법을 찾아봄’, ‘이중 언어의 장점을 살리고자 함’, ‘한국에서 꿈을 펼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전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직업을 탐색해 봄’ 으로 나타났다. 작용/상호작용 전략수행에 의해 나타난 결과는 ‘여전히 낯선 곳에서의 불투명한 미래이지만, 나의 길을 찾기 위해 한 걸음 내딛고자 함’ 으로 나타났다.

과정분석에서 후기청소년기 중도입국청소년의 진로결정 과정단계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과정으로 분석한 결과 ‘혼란 단계’, ‘위축 단계’, ‘탐색 단계’, ‘수행 단계’, ‘결과 단계’의 5단계 과정으로 분석되었다. 진로결정집단은 수행 단계에서 진로에 대해 적극적인 도전의 모습을 보인 참여자들이 해당되었고, 진로탐색집단은 진로에 대해 계속해서 고민하며 시도해보는 참여자들이 해당되었으며, 진로유예집단은 무기력하고 소극적인 진로탐색 태도를 보인 참여자들이 해당되었다.

선택코딩 과정에서는 하나의 통합적 핵심범주로 ‘낯선 땅 한국에서 여러 장벽에 맞서고, 이중문화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나의 길을 찾기 위해 한 걸음 내딛기’ 라고 제시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후기청소년기 중도입국청소년의 진로결정과정에 대한 실증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들의 진로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더불어 후기청소년기 중도입국청소년의 진로결정과정에서 이들이 진로결정을 위해 선택하는 전략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과 후기청소년기 중도입국청소년의 진로결정 과정에서 어떤 상황적, 환경적 요소가 존재하는지, 또 어떤 요소가 진로결정 과정에서 변수가 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후기청소년기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통찰은 후속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후기청소년기 중도입국청소년, 진로결정과정, 근거이론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 문제	9
II. 이론적 배경	10
1. 후기청소년기 중도입국청소년의 이해	10
1) 후기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성	10
2) 중도입국청소년의 개념 및 현황	11
3) 후기청소년기 중도입국청소년의 특징	17
2. 후기청소년기 중도입국청소년의 진로결정과정	21
1) 진로결정(Career Determination)의 개념	21
2) 일의 심리학 이론(Psychology of Working Theory)	23
3) 후기청소년기 중도입국청소년 진로결정의 어려움	25
III. 연구 방법	29
1. 연구 설계	29
2. Strauss와 Corbin(1990)의 근거이론 방법	29
3. 연구 대상자	34
4. 자료 수집 방법	36
5. 자료 분석 방법	38

1) 원자료화	38
2) 개방코딩	39
3) 축코딩	39
4) 선택코딩	40
6. 연구의 엄격성 및 윤리적 문제	42
1) 연구의 엄격성	42
2) 연구의 윤리적 문제	43
3) 연구자의 노력	44
IV. 연구 결과	46
1. 개방코딩	46
2. 축코딩	81
1) 후기청소년기 중도입국청소년의 진로결정과정 에 대한 패러다임 모형	81
가. 인과적 조건	83
나. 중심 현상	83
다. 맥락적 조건	84
라. 중재적 조건	85
마. 작용/상호작용 전략	85
바. 결과	86
2) 과정분석	87
3. 선택코딩	90
1) 핵심범주	91
2) 이야기 윤곽의 전개	92

V. 결론 및 논의	97
1. 연구의 결론 및 의의	97
2.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 연구 제언	105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표 목 차

<표 1> 다문화 가정과 자녀의 유형	12
<표 2> 이주배경청소년의 세부유형	14
<표 3> 각 부처별 이주배경 청소년의 유형	16
<표 4> 연구 참여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35
<표 5> 반구조화된 면접 질문지	38
<표 6> 근거이론 패러다임 모형에 따른 개념 및 범주화	46
<표 7> 인과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	83
<표 8> 중심 현상의 속성과 차원	84
<표 9> 맥락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	84
<표 10> 중재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	85
<표 11> 작용/상호작용 전략의 속성과 차원	86
<표 12> 결과의 속성과 차원	87

그림 목 차

<그림 1> 패러다임 모형의 구성요소	33
<그림 2> 자료 분석 과정	41
<그림 3> 후기청소년기 중도입국청소년의 진로결정과정에 대한 패러다임 모형	82
<그림 4> 후기청소년기 중도입국청소년의 진로결정 과정단계	88

부 록 목 차

<부록 1> 모집 안내문	123
<부록 2> 연구 참여자 설명서	124
<부록 3> 연구 참여자 동의서	128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이주민 증가로 다문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외국인 주민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의 수는 2,258,248명으로 총인구의 약 4.4%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는 2015년 1,711,013명에서 약 32% 증가한 수치이다(행정안전부, 2023). 국제통화기금(IMF)은 2050년까지 한국사회의 다문화 인구 비중이 35%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김용현, 2015). 특히,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결혼이민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2015년 144,912명에서 2022년 175,756명으로 7년간 약 21.3% 증가하였다(행정안전부, 2023). 이에 따라, 외국인 주민 자녀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2013년 55,780명에서 2023년 기준 181,178명으로 집계되었으며, 10년 사이 약 3배 이상 증가하였다(여성가족부, 2023). 이러한 흐름 속에 외국에서 태어나 중도에 국내로 입국한 중도입국청소년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2013년 4,922명에서 2023년 10,896명으로 10년 새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 2023).

중도입국청소년이란 결혼이민자가 국제결혼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에 본국에 있는 자녀를 입양하며 한국으로 입국하게 된 청소년을 지칭하는 말이다(이병철, 송다영, 2011; 최영미, 송영호, 2020). 이들은 2000년 이후 급증하기 시작한 국제결혼 재혼가정의 증가에 따라 나타난 인구 집단으로, 주로 여성 결혼이민자가 한국인 배우자와 재혼하여 본국의 자녀를 데려온 경우와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중 외국인 부모의 본국에서 성장하다 청소년기에 재입국한 청소년의 경우가 주요 구성원이다(양계민, 조혜영, 2012).

여성가족부에서 3년마다 실시하는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9세~24세 중도입국청소년은 11,646명이며, 이 중 후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18세~24세 중도입국청소년은 약 1,676명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부처별로 중도입국청소년의 기준이 상이함으로 국가적으로 정확한 통계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며(전경숙, 2017), 그만큼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도입국청소년들의 경우 부모님의 재혼 등으로 인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예측하기 어려운 시점에 한국으로 이주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이병철, 송다영, 2011). 또한, 이들은 이주 전 부모의 이혼을 경험함으로써 생계 문제, 정서적 문제 등을 겪기 쉽고, 재혼 후 만나는 새로운 가족과의 관계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 대한 문화적 적응 및 한국어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 학업 및 진로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이창호, 송민지, 2013).

특히, Arnett(2004)는 후기청소년기를 ‘새로운 성인기(emerging adulthood)’로 정의하며, 이 시기의 진로 탐색은 직업적 성취를 위한 중요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진로발달에 있어서 후기청소년기(17세~24세)는 성인기로 넘어가기 직전의 진로선택의 결정적 시기(Super, 1980)로서 이 시기 청소년들이 진로에 관해 어떤 지향과 태도를 갖고 있느냐는 이후 성인기의 삶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서덕희, 조은혜, 2017). Blustein(2013)은 후기청소년기의 진로선택이 직업적 성공과 만족도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논의하며, 이 시기의 진로지도와 상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Erikson(1968) 또한, 후기청소년기를 자아정체성 확립의 중요한 시기로 보며, 이 시기의 진로선택은 자아정체성 형성뿐만 아니라 개인이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중도입국청소년들은 이렇게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전환기적 시기에 있어서 다양한 상황과 맥락에서 일반 가정의 학생들보다 진로와 학업에 대한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다(이창호, 송민지, 2013). 여성가족부 2023년 다문화 학생 현황에 따르면 결혼이민자 자녀 양육의 어려움 1위가 50.4%로 학습지도, 학업관리의 어려움, 2위가 37.6%로 학업, 진학, 진로 등에 관한 정보 부족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중도입국청소년들은 부모의 학업, 진학, 진로에 대한 도움이 부재되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해외의 경우, 미국 중서부로 이주한 남미 이주자들의 근무경험에 대한 연구(Flores et al., 2011)에서 언어, 재정적 어려움, 가족 역할에 대한 부담, 인종 차별, 본국에 남아있는 가족과의 분리 경험 등이 이민자들의 적응 장벽으로 연구된 바 있다. 미등록 이주 대학생의 정체성 개발에 대한 연구(Ellis & Chen, 2013)에서는 이들의 법적 지위로 인해 문화적응 및 정체성 개발과정이 더 복잡해지며, 일반적인 대학생들에 비해 더 큰 빈곤, 높은 중퇴율, 제한된 직업기회를 경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으로 자신의 고국 문화와 미국 문화 규범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이중 문화 정체성을 얻게 되었으며,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갈등과 도전을 반복해 나가며, 스스로 회복력을 갖추는 등 정체성 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기도 하였다. Mathew(2019)의 적응적인 이민자에 대한 연구에서도 성공적인 진로결정의 요인으로 개인의 자질, 가족 구성원 및 가족 외 중요한 타인의 영향, 진로 경험 및 훈련, 이민 관련 경험, 네트워크, 정보, 자원, 재정적 뒷받침, 언어 능력 등이라고 조사한 바 있다.

후기청소년기 중도입국청소년들의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이민자들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해외의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다양한 특성이 국내 중도입국청소년들에게도 나타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내 중도입국청소년 중에는 학교에도 다니지 않고 취업도 하지 않는 만 15세~24세 청소년의 NEET 비율이 14%로 나타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2). 이는 일부 중도입국청소년들은 여전히 학업 또는 취업 그 어느 쪽을 통해서도 국내 정착의 통로를 찾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유진이, 소학섭, 2019).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학령기에 해당하는 만 7세에서 만 18세 다문화가족 자녀는 190,359명이며 (행정안전부, 2023), 학교에 재학 중인 초중고 다문화 학생은 168,645명 (교육부, 2023)인 것을 감안하면 나머지 21,714명인 11.4%는 학교 밖 다문화 청소년으로 추정된다. 비재학 상태의 학령기 청소년의 24.6%는 한국어 실력이 충분하지 못해서, 9.3%는 수업내용을 따라가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정규학교에 다니지 않는 이유로 설명하고 있다(배상률, 2016). 이렇게 대부분의 후기청소년기 중도입국청소년들은 일반학교 적응이 쉽지 않아 방치되거나, 자신의 직업 능력을 충분히 개발하지 못하고 일용노동직이나, 단기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받은 일당으로 하루를 버텨나가는 불안정한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방치할 경우 이들의 한국 정착은 더 어려워지고 결국 사회적으로도 교육과 고용이라는 측면에서 소외된 청년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노승인, 2018; 전경숙, 2020).

후기청소년기에 접어든 중도입국청소년들은 진로결정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대부분 본인의 선택이 아닌 상황에 의해 이주하였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한 생각이나 의지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전경숙, 2017). 이들은 입국하자마자 언어 장벽을 마주하게 된다. 진로정보 부족으로 인해 진로준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진로탐색 조차 힘든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유진이, 김소형, 2018; 전경숙, 2017). 가정형편이 어려워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등 돈을 버는 것이 더 중요한 상황의 학생들도 있는데(박서라, 2018), 이는 진로결정 및 진로준비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조혜영 외, 2012). 한편, 일부 연구는 중도입국청소년이 자신이 가진 이주배경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려는 모습을 보인다고 밝혔다(강부자, 최연실, 2020). 그러나 후기청소년기 중도입국청소년의 진로결정과정 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그들의 진로결정과정 경험을 이들 개인이 처한 다양한 맥락적 환경에서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후기청소년기 중도입국청소년들은 저연령대의 중도입국청소년과 다르게 자신의 진로와 취업에 관심이 많으며, 특히 경제활동을 통해 한국에 장기적으로 체류하길 원하고 있으나(이춘양, 박미숙, 2017), 이들의 진로와 관련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머지않아 한국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자리잡게 될 중도입국청소년들을 관심의 대상에서 소외시킨다면 한국의 새로운 사회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에, 이들의 진로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다문화 학생이 급증하던 2000년대 초반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재학 중이었기 때문에(김민정, 정미경, 2014), 이들의 한국생활 및 학교생활 적응에 초점이 맞춰진 청소년기(8세~19세)에 관련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박서라, 2018; 심정희, 2022; 허해연, 2018; 홍우정, 2019). 또한 결혼이민자 개인의 적응 문제에 초점을 맞추거나 다문화가족 구성 초기의 문제로서 자녀 보육 및 양육, 그리고 학령기 교육에만 초점을 맞추어, 다문화 자녀들이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경험하고 성인기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요해지는 다문화 2세대의 발달과업에 따른 생애주기교육(독립, 사회적 적응, 대인관계 형성, 취업, 결혼 등) 즉, 진로와 관련된 연구는 간과되어졌다(윤형준, 2019).

또한,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이후 다문화 청소년의 유형도 계속 복잡하게 분화하고 있으며, 이주민 2세를 넘어 3세대로 넘어가는 시기가 곧 임박할

것임으로, 앞으로 다문화 2세대, 3세대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김현철, 2016; 윤형준, 2023).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연보(2023)의 자료에 따르면 20세~24세에 해당하는 외국인 현황은 2022년 기준 215,330명으로 2021년 174,137명이었던 전년 대비 41,193명 증가하였다. 학령기의 다문화청소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통계로 보아 앞으로 5~10년 동안, 대다수의 낮은 연령대의 다문화 자녀들이 높은 연령대로 이동함에 따라 대학생이 되는 만 18세 이상의 다문화 2세대 즉, 후기청소년기에 진입한 중도입국청소년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중도입국청소년의 청소년기 이후의 삶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연구는 현재 부족한 실정이다. 그동안 성인 초기에 진입한 다문화 시민 2세대인 청년들에 대한 평생교육 연구와 논의는 많지 않았다(윤형준, 2019).

교육부 학교급별 다문화 학생 분포자료에 따르면, 2023년 각종학교를 포함하여 초중고에 재학 중인 다문화 학생 수는 181,178명으로 2014년 67,806명과 비교하여 10년 사이에, 약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 2023).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전체 다문화 학생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학교와 고등학교 역시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교육부, 2023). 현재 학교급별 다문화 학생 분포 추이를 볼 때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2세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시기인 2025년부터 다문화 2세대 성인은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윤형준, 2019). 특히, 2007년 처음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파악을 시도한 지 17년이 지났음을 감안했을 때, 당시 19세의 참여자는 36세가 되었을 것이며 13세 참여자의 경우 30세가 되었을 것이다. 결국, 20대 초중반의 대상자뿐만 아니라 20대 중반부터 30대 초반의 다문화 배경 청년에 대한 연구가 확대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김재훈, 김민선, 2021).

한편, 현재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학업이나 학교적응에 대한 연구로 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진로와 관련된 연구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다(선혜연, 2016). 현재 진행되어 온 중도입국청소년 관련 연구들은 입국 초기에 초점을 맞춘 적응·부적응 관련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송원일, 2021; 이춘양, 박미숙, 2017), 다문화가정 자녀의 적응과 부적응에 대한 논문이 약 43.2%, 진로 및 교육에 관한 연구는 약 3.7%에 그쳤다(김재훈, 김민선, 2021). 게다가 이를 심리적 측면에서 살펴본 연구는 더욱 드물어, 송원일(2021)의 연구에서도 중도입국청소년의 개인적, 사회적, 교육적 측면에 대해서는 2012년부터 활발하게 연구된 반면, 심리적 측면에 대한 연구는 약 13.4%에 불과함을 밝힌 바 있다. 중도입국청소년의 진로결정과정을 이해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특성과 심리적인 상황까지 고려하는 연구가 필요하나, 현재까지는 중도입국청소년의 진로결정과정을 심리학적 차원에서 본 연구는 매우 부족한 편이며(박서라, 2018), 이성령(2016)도 학령기를 지난 이들의 한국생활에 대한 연구도 필요함을 제언한 바 있다. 또한, 윤형준(2020), 이지은(2016)도 다문화 2세대 대학생들에 대한 연구나 통계자료가 부족함을 지적하며, 후속연구에서는 다문화 2세대 대학생의 진학, 대학생활 등 생애주기와 관련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송원일(2021) 또한,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적응에 대한 연구를 시기별로 구별하여 중도입국청소년 시기를 보낸 청년과 관련된 연구, 귀화한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연구, 본국으로 돌아간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연구가 구분되어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김재훈, 김민선(2021)은 다문화 가정 자녀 관련 연구 동향과 향후 과제를 조사하면서 기존 연구 대다수가 양적연구로 75.3%를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반면에 질적연구는 23.4%, 문헌연구가 1.2%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질적연구 중에서는 현상학적 접근방법이 27.2%로 가장 높았으며, 근거이론은 4.5%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에 이르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참여자의 국적과 상관없이 외국에서 성장 과정을 거치고 부모님 중 한 분이 외국인으로 한국인과 재혼하게 되어 청소년기에 한국으로 입국하게 된 만 19세~24세의 후기청소년기 중도입국 청소년에 주목하여 그들의 진로결정과정을 탐색하고자 한다. 또한, 지금까지 후기청소년기 중도입국청소년들의 진로결정과정에서 겪는 내적 경험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이들의 경험과 현상 자체를 있는 그대로 탐색하는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경험적 연구가 부족한 분야의 주제들을 다루거나 해당 연구 대상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구하는데 질적 연구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후기청소년기 중도입국청소년의 진로결정과정과 그들의 주관적인 경험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양적 연구방법보다 그들의 경험을 풍부하고 심층적으로 기술하여 그들을 이해하는 질적 접근방법이 더욱 적절하다고 보여진다. 이 중에서도 Strauss와 Corbin(1990)이 제시한 근거이론 접근 방법은 인간의 다양한 상호작용의 현상과 과정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인간의 경험세계를 보다 심층적이고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방법이다(유기웅 외, 2018). 또한 개인 내적 경험의 구체적 내용과 맥락, 당사자들의 전략과 결과 등을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으로 본 연구의 주제에 적절한 방법으로 판단하였다(이근무, 이재관, 2022).

본 연구를 통해 후기청소년기 중도입국청소년들의 진로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등을 경험과 과정을 통해 밝혀냄으로써, 개인의 진로 발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진로발달의 첫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기의 진로발달을 돕는 상담현장 및 중도입국청소년을 마주하게 될 전문가들에게 진로상담의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후기청소년기 중도입국청소년이 진로결정과정에서 겪는 심리적으로 내적인 경험을 생생하고 심층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이들의 진로결정과정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후기청소년기 중도입국청소년의 진로결정 경험 및 과정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후기청소년기 중도입국청소년의 이해

1) 후기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성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르면,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를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 발달 등 인간발달의 특성과 공교육 등 사회제도를 고려하여 세 연령집단으로 나눠 초기청소년기(9~14세), 중기청소년기(15~18세), 후기청소년기(19~24세)로 구분하고 있다(김지경 외, 2015; 오치선, 김진화, 1999; 조혜영 외, 2012; 최훈, 진영재, 2010). 후기청소년기라는 용어는 Keniston(1968)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으며, 후기청소년기를 생애주기의 어느 시점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20세기 중반 이후 학교 교육의 연장으로 교육기관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성인기의 시작이 미뤄지면서, 청소년기가 연장되고 분화된 결과 청소년기와 성인기와도 구분되는 후기청소년기라는 개념이 등장하였다(조혜영 외, 2012). 김강남(2019) 또한, 우리 사회에서 성인이란 보통 심리적, 경제적으로 독립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교육 기간이 연장되고 취업과 결혼이 늦춰지는 추세로 인해 청소년기도 연장된다고 보았다.

Arnett(2004)는 산업사회 발달로 높은 교육 수준이 필요해지면서, 학교 교육을 받는 기간이 길어지고 경제적 자립 시기가 늦어질 뿐만 아니라 결혼과 출산도 점차 늦어지는 상황에 성인기 과업을 수행하는 시기가 늦춰지는 현상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청소년기가 끝난 후에도 성인기 과업을 수행하지 않는 기간이 최근 몇십년간 확연하게 연장된 점에 주목하여 18세에서 25세 사이 연령에 초점을 맞춰 새로운 발달단계인 성인진입기(emerging adulthood)라는 용어를 제시하였다(손보영, 2015). 전상진, 정주훈(2006)은 한국의 후기청소년은 성장조건이 변화하였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경제적, 사회적 자립이 주로 20대 초반에 이뤄지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20대 후반이나 30대로 이전되면서, 20세 초중반 집단은 청소년의 특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지점으로 보아 20대 전체를 하나의 연령집단으로 보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며 후기청소년의 개념을 설명하였다.

한편, 오찬호(2010)의 후기청소년 세대 연구에서 대한민국에서는 20세(만 19세)가 되면 공식 성인이 되지만, 경제위기로 인해 취업이 늦어지는 20대들을 부모 품에 안겨있는 캥거루족으로 묘사하며, 여전히 청소년기의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생의 현실이 사실상 청소년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 주목하여 20대 대학생을 후기청소년이라 표현하기도 하였다.

후기청소년은 주로 대학생들에 해당하며, 이들의 대부분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과정에 있다. 사회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청소년정책은 주로 13세에서 18세인 중고등학생들에 집중되어있어 후기청소년에 대한 관심은 매우 저조한 상황이며, 이들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 또한 부족한 상황이다(이춘양, 박미숙, 2017).

2) 중도입국청소년의 개념 및 현황

후기청소년기의 특징과 더불어,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와 함께 등장한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중도입국청소년이란 용어는 일반 다문화가족 자녀를 모두 포괄하는 ‘이주배경청소년’이란

용어와 혼용되거나 구분되지 않고 사용하기도 한다(황복선, 2019). 중도입국청소년은 이주배경청소년의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며, 다문화 청소년이라고 지칭되기도 한다. 오성배(2011)가 다문화교육 정책의 교육 사회학적 탐색에서 정리한 다문화 가정과 자녀의 유형은 <표 1>과 같다.

표 1. 다문화 가정과 자녀의 유형

가정 유형	자녀 유형
국제결혼 가정	초혼 가정 ————— 한국 출신 母 + 외국 출신 父의 자녀
	————— 한국 출신 父 + 외국 출신 母의 자녀
	한부모 가정 ————— 父 또는 외국 출신 母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재혼 가정	————— 전처 소생의 한국출신 자녀
	————— 외국 출생 후 한국에 입국(귀화)한 자녀(재혼가정 중도입국 자녀)
외국인 가정	————— 외국 출생 자녀
	————— 한국 출생 자녀(무국적 자녀)
북한이탈주민 가정	————— 북한이탈주민 자녀
	————— 제3국 출생 자녀
난민 가정	————— 난민 가정 자녀

2008년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 즉, 결혼이민자 그리고 결혼이민자와 혼인을 한 국민배우자 및 그 자녀로 하여 이들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는 법률이다. 국제결혼가정 자녀를 주 대상으로 하면서, 외국인 가정 자녀는 배제되었는데 범위의 협소함과 다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이주배경청소년이라는 용어가 제안되었다(양계민, 2023).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정의 및 용어는 각 부처별, 학자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결혼이민자가 한국인 배우자와 재혼하여 본국의 자녀를 데려온 경우와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중 외국인 부모의 본국에서 성장하다 청소년기에 재입국한 청소년을 말하며(양계민, 조혜영, 2011), 현지에서 성장하다 청소년기에 한국으로 입국한 경우를 총칭하는 용어로 학령기인 9세 이상 24세 미만이 이에 해당한다(유진이, 김소형, 2018). 중도입국 청소년은 2000년대 국제결혼의 증가로 인해 등장하였으며, 최근까지도 국제결혼 중 재혼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부모와 함께 살기 위해 입국한 중도입국청소년이 급증하고 있다(석희정, 하춘광, 2015).

중도입국청소년은 단어에서 의미하는 바와 같이 현지에서 성장하다가 중도에 한국으로 입국한 청소년을 가리키는 용어라고 할 수 있는데, ‘중도입국’이라는 단어가 마치 한국 사회가 성장하는 ‘중도’에 이방인이 편입해 왔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오성배, 2011 재인용),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재단에서는 중도입국청소년 및 다문화 배경을 지닌 청소년을 이주배경청소년이라는 용어로 통합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주배경청소년이란 부모 혹은 본인이 이주의 경험을 지닌 9세에서 24세 이하의 연령에 속하는 사람을 뜻하며, 이주란 국경을 넘은 경험을 말하는 것으로 외국으로부터의 이주 뿐 아니라 북한으로부터의 이주도 포함되는 개념이다(양계민 외, 2021). 이주배경청소년실태조사(2021)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의 세부유형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이주배경청소년의 세부유형

부모배경	본인출생지	국내출생	국외출생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
부모 모두 외국인	국내출생	외국인가정자녀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자녀

부모배경	본인출생지	남한출생	남한 외 출생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북한이탈주민	남한출생	북한배경 아동·청소년
북한이탈주민과 외국인 결혼가정		아동·청소년	제3국 출생 북한배경 아동·청소년

중도입국청소년은 각 부처별로 이주배경 청소년, 외국인가정 자녀, 다문화가족 자녀 등으로 다르게 정의되고 있으며 그 기준 또한 다르기 때문에, 현재 중도입국청소년의 정확한 통계 및 현황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여성가족부에서는 다문화 가구의 자녀를 외국 성장 경험에 따라 분류하고 있으며, 국제결혼가정 자녀 중 주로 외국에서 성장하다 한국으로 재입국한 만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을 중도입국청소년이라고 분류한다. 조사 대상이 되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배경에 따라 국내에서만 성장, 외국 거주 경험, 외국에서 주로 성장으로 세분화했는데, 외국생활 경험이 없는 자녀는 ‘국내에서만 성장’으로, 외국생활 경험이 있되, 외국에서의 생활기간이 자신의 연령의 1/2 이상인 경우에는 ‘주로 외국에서 성장’으로, 이를 제외하고 외국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는 자녀는 ‘외국 생활 경험’으로 분류하였다. 여성가족부가 2009년부터 시작하여 3년마다 실시하는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9세~24세 다문화가구 자녀는 총 127,848명이고, 그 중에서 중도입국청소년은 11,646명(9.1%)이다. 이중 후기청소년기에 해당하는 18세~24세 중도입국청소년은 약 1,676명이다.

교육부에서는 국내 초·중·고에 재학 중인 국제결혼가정 자녀 중 외국에서 태어나 부모와 함께 중도에 국내로 입국한 자녀를 중도입국청소년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10,986명이다. 그러나 국내 초·중·고에 재학 중이지 않거나, 중도 탈락한 학생은 포함하고 있지 않아서, 학교 밖 중도입국청소년의 정확한 숫자는 파악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법무부에서는 결혼이민자의 재혼 여부에 따라 결혼이민자나 귀화자가 전혼(前婚)관계에서 낳은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 외국인자녀로 중도입국 청소년을 정의하고 있다. 관련 부처 중 가장 넓은 범위를 포괄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20세~24세에 해당하는 체류외국인은 215,330명으로 집계된다. 그러나, 이는 외국인 기준으로 중도입국청소년의 현황을 파악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중도입국청소년의 개념을 따로 두지 않고, 외국인 주민의 자녀로 설명하고 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 즉, 귀화자의 자녀 및 한국인과 결혼한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즉, 외국인의 자녀로 외국인 주민 자녀의 부모를 구분하지 않고 정의하고 있으며, 국내출생을 통해 국적을 취득한 자녀와 귀화를 한 자녀, 외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자녀로 구분하고 있다. 국내 출생을 통해 국적을 취득한 경우라도 외국인 부모의 본국에서 생활하다 재입국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들 또한, 중도입국청소년이 겪는 어려움을 동일하게 겪을 수 있다(이병철, 송다영, 2011). 2022년 기준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국내 출생 자녀가 282,077명, 귀화하였거나 아직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귀화 및 외국 국적 자녀가 17,363명으로 집계되나, 교육부와 마찬가지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후기청소년기 중도입국청소년의 현황을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이를 토대로 각 부처별 이주배경 청소년의 유형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각 부처별 이주배경 청소년의 유형

부처	구분	정의
여성가족부 (2022)	국내에서만 성장	외국에서 생활한 경험이 없는 자녀
	외국 거주 거주 경험 및 성장	외국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는 자녀
	외국 주로 성장	외국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되, 외국에서의 생활 기간이 자신의 연령의 1/2 이상인 자녀
교육부 (2023)	국내 출생 자녀	한국인 부(모)와 외국인 모(부) 사이에서 국내에서 출생한 자녀
	국제 결혼 가정 중도 입국 자녀	한국인 부(모)와 외국인 모(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중 외국에서 태어나 부모와 함께 중도에 국내로 입국한 자녀
	외국인가정 자녀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법무부 (2023)	중도입국 자녀	결혼이민자의 전혼(前婚) 관계에서 출생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와 귀화자의 자녀(국내 출생 자녀 포함)
행정안전부 (2023)	국내 출생 자녀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외국인) 또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귀화한 자)의 만 18세 이하 자녀로서 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에 따라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
	외 국 인 주 민 자 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의 자녀 및 한국인과 결혼한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만 18세 이하 자녀

여성가족부의 중도입국청소년은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외국 성장 경험이 있는 자녀만을 의미하고 있다. 교육부는 외국에서 태어나 부모와 함께 중도에 국내로 입국한 자녀를 중도입국청소년으로 보고

있으며, 집계는 초·중·고등학교 재학생만을 포함한다. 법무부는 가장 넓은 의미로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해 정의하고 있지만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만 포함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도 마찬가지로 만 19세에서 만 24세에 해당하는 중도입국청소년의 현황을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이처럼 각 부처별 중도입국청소년의 정의와 분류기준이 달라 중도입국청소년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이 연구에서의 후기청소년기 중도입국청소년은 청소년기가 연장되고 있는 현대사회 현상을 반영하고,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한 청소년 연령대를 고려하여 후기청소년기 중도입국청소년을 만 19세에서 만 24세를 기준으로 정하였다. 청소년기본법 상에 명시된 청소년기 연령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이며, 기존의 청소년정책이 주로 중고등학교 연령대인 13세에서 18세에 초점을 두고 이뤄져 온 점을 참고하여 그 이후의 연령대에 보다 관심을 갖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의 참여자는 주로 외국 출생 후 한국에 입국한 재혼가정 가정의 자녀(재혼가정 중도입국 자녀)이기 때문에 중도입국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3) 후기청소년기 중도입국청소년의 특징

중도입국청소년은 넓은 의미의 다문화가정의 청소년이나, 한국에서 출생한 다문화가정의 청소년과는 다른 특징을 가진다(유진이, 김소형, 2018).

첫째, 이들은 태어나고 자란 나라와 이주한 나라 간에 이중문화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이주’란 개인이나 종족, 민족 따위의 집단이 본래 살던 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정착하는 것으로, 이들은 성장 과정 중 이주를 경험하여, 새로운 환경, 학업, 교우관계 등 모든 것이 낯선 환경 속에서 변화를 감내하며 적응해

나가야 한다(이성령, 2022). 본국의 언어와 문화에 이미 익숙해진 상태에서 새로운 언어와 한국 사회의 새로운 문화에 적응해야 한다는 것은 이들에게 상당한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으며(이동훈, 2019; 이지은, 2016), 이들은 타의로 한국생활을 시작하게 되며 낯선 환경과 언어적 어려움, 문화적응에 대한 스트레스 등을 경험하며, 주로 10대 후반의 중도입국청소년은 낯선 한국사회의 적응의 과제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성인기로의 이행을 위한 진로 탐색 및 결정의 과제를 함께 지니고 있다(이지은, 2016). 또한, 선택하지 않은 환경에서 생활해야만 하는 황당함과 동시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무력감을 가진 채 생활하고 있으며, 자신과 부모에 대한 정체성 혼란을 경험한다. 이들은 한국의 문화와 부모의 문화를 동시에 접촉하면서 이중문화에 대한 차이와 충돌로 인해 가치기준의 혼란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며, 한국의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부모 밑에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거나 사회가 인정하는 가치를 배우고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한계를 가지게 된다(김승경, 2013; 박순희, 2009). 그러나 이들은 문화에 대한 차이를 인정하게 되고 차이를 알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며, 어머니 나라와 아버지 나라, 각각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병철, 송다영, 2011). 이들은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진로에 대한 고민과 결정이 유보되어 있어 방향성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오성배, 서덕희, 2012).

둘째, 이들은 미숙한 한국어로 인해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난다. 2020년 서울시 중도입국청소년 실태조사 결과 이들이 겪는 어려움 중 30.9%가 한국어 이해의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언어 미숙으로 오는 문제는 거의 모든 중도입국청소년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이기도 하다(서덕희, 2015; 심탁아, 2020; 전경숙, 2017). 이들은

이미 모국어를 체득한 상황에서 한국어를 잘 알지 못하는 상태로 입국하여 의사소통 및 학습(교과)언어를 구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류방란, 오성배, 2012; 설동훈, 2017), 한국어 부족으로 인해 과제 및 수업 준비물을 챙기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이병철, 송다영, 2011). 전경숙, 이의정(2012)의 연구에서 중도입국청소년들은 한국에서 초기 입국 당시 가장 힘들었던 점으로 한국어를 잘하지 못하는 것으로 꼽았다. 또한, 새 부모님 및 가족과의 관계에서 대화가 통하지 않는 점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는 등 여러 가지 스트레스 요인 중 한국어로 인한 스트레스를 가장 큰 스트레스로 보고하였다.

셋째, 이들은 학업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중도입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상당 부분이 학교생활 적응과 관련된 주제(김진선, 2015; 박은혜, 2018; 송현주, 2020; 이병철, 2012; 이성령, 2016; 허해연, 2018)이며, 그만큼 이들의 학교생활 적응은 사회의 관심이 되고있다. 대부분의 중도입국청소년들은 학령기에 입국하여 입시위주의 한국식 교육방식에서 일반 학생들과 경쟁하려면 한국의 초중등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데, 대다수 가족 재결합의 차원에서 이주가 결정되므로 한국의 교육방식을 고려하지 못한 채로 무계획적으로 중도 입국하게 된다(김강남, 2019). 또한, 이들은 미숙한 한국어로 인해 학습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며,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한다. 이로 인해 학업에 대한 흥미를 잃어 학업성취도 하락의 문제에 직면한다(강현주 외, 2012; 김효정, 조규필, 2018; 노충래, 홍진주, 2006; 류방란, 오성배, 2012; 석희정, 하춘광 2015; 신혜정, 2007; 양계민, 조혜영, 2011; 전병주, 2012).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한국어와 학습에서 사용하는 한국어는 이들에게 다른 적응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이성령, 2016). 이로 인해, 중도입국청소년은 학업 증단을

고민하기도 하며(김민경, 2020), 실제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교 밖 중도입국청소년이 발생하기도 한다(전경숙, 2017).

넷째, 사회적 관계형성의 어려움을 겪는다. 중도입국청소년들은 자신을 스스로 한국인이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으로 인해 정체성의 어려움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부자, 최연실, 2020). 이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가장 처음 마주하게 되는 작은 사회인 가족 안에서도 새부모 또는 새로운 형제, 자매와의 갈등을 겪으며 친밀함을 형성하기 어렵고, 애착관계가 형성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다(송민경, 김진원, 2017). 또한, 원만하지 않은 의사소통으로 인해 왕따를 당하거나, 친구들과 친밀감의 한계를 느끼며, 교우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는다(이병철, 송다영, 2011). 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제한된 교우관계를 맺거나(배상률, 2016), 고민을 함께 나눌 친구가 없어 외톨이로 지내거나 같이 밥 먹는 친구도 없어 유배된 느낌을 받기도 한다(홍우정, 2019). 학교 및 가정에서 지지적 환경을 경험할 경우 긍정적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하기도 하지만(양계민, 조혜영, 2011), 맞벌이로 바쁜 부모에게서 방치되며, 중요한 일을 고민하고 결정할 때 가족에게 말하지 않거나 지지받지 못하기도 한다(이승미 외, 2017).

다섯째, 앞서 언급한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 이들은 심리적, 정서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고(김민경, 2015), 낮은 자존감(김갑성, 2008), 어린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불안정한 양육환경에서의 낮은 애착관계 형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송민경, 김진원, 2017). 어려운 일을 의논해야 하는 부모의 역할이 부재되고, 가족의 지지체계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이들은 홀로 버티며 스트레스를 감당하고 있었다(김효정, 조규필, 2018). 특히, 후기청소년기에 해당하는 20세 이상 집단은 가족의 지지는 가장 적게 지각하면서,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심리적으로 매우 취약한 위치에 있음을 시사하였다(양계민, 조혜영, 2012).

여섯째, 가족 및 지원체계가 부족한 양상을 보여주었는데, 중도입국 청소년의 경우 주로 부모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한국으로 돈을 벌기 위해 떠난 후 한부모 혹은 조부모 등에 의해 양육된다(송민경, 김진원, 2017; 안병삼, 2009; 조복희, 이주연, 2005). 중도입국청소년의 부모들도 대부분 맞벌이를 하거나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서 양육이나 돌봄에 대한 시간적 여유가 없고 자녀의 진로문제에 관심을 갖기 어렵다(전경숙, 2017). 가족들 또한 이주로 인한 변화된 환경에 적응 문제와 같은 동일한 문제를 경험할 수 있으므로, 이들 주변의 지역사회와 학교의 역할이 중요하다. 양계민, 조혜영(2012)의 연구에서 중도입국청소년의 경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고민을 함께 의논할 사람이 있는 경우 문화 적응 스트레스, 심리적 스트레스 등과 같은 부적응적인 변인의 수준은 낮아지고, 가족의 지지, 자아존중감 등 긍정적인 경험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사회적 적응을 위해 적절한 지지체계를 구축해야 함을 시사하는 바이다(양계민, 조혜영, 2012).

2. 후기청소년기 중도입국청소년의 진로결정과정

1) 진로결정(Career Determination)의 개념

일반적으로 진로결정이란 “개인이 정보를 조직하고, 여러 가지 대안들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진로선택을 위한 행동과정에 전념하는 심리적 과정(Harren, 1979)”을 말한다. 진로결정은 개인이 일생에서 경험하는 가장 복잡하고 중요한 결정 중 하나이며, 많은 사람들이 진로결정과정에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전미리, 김봉환, 2015). 김효정, 김봉환(2011)의

연구에서는 진로결정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는 진로선택(Career Choice)이 결과에 초점을 두는 개념이라고 한다면, 진로결정은 과정에 초점을 두는 개념으로 보고, 진로결정을 “개인이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 대안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하고자 하는 진로를 선택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행동에 전념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진로결정은 직업결정과 비슷한 맥락으로서 이해되기도 하나 희망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입학, 진학, 전공 선택 등 수학(修學)을 하거나 취업(就業)을 하는 것 그리고 다른 목표를 위해 경제 활동으로부터 일시적 공백을 갖는 것도 진로결정으로 볼 수 있다(정다운, 김병수, 2019). Harren(1979)의 진로결정이론에 따르면 진로결정은 인식단계, 계획단계, 확신단계, 이행단계의 절차로 이루어진다(강진령, 2015). 첫째, 인식단계는 분화가 시작되는 시기로, 개인은 심리적 불균형으로 결정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둘째, 계획단계에서는 가치의 우선순위에 따라 교체, 확장, 제한 과정을 통한 대안 탐색이 이루어진다. 셋째, 확신단계에서는 선택에 대한 탐색, 검토, 장단점을 명료화한다. 넷째, 이행단계에서 개인은 사회적 인정욕구와 자신이 선택한 대안의 가치 사이에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며 선택한 대안에 적응한다. 진로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상황으로는 대인평가, 심리상태, 과업조건, 맥락조건이 있다. 첫째, 대인평가는 의사결정자가 타인으로부터의 긍정적·부정적 피드백으로, 확신단계와 이행단계에 영향을 미친다. 둘째, 심리상태는 의사결정자의 상태불안 수준으로, 적절한 불안은 의사결정을 촉진하지만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불안은 오히려 비효과적인 결정을 내리게 한다. 셋째, 과업조건은 의사결정자가 이행에 앞서 활용 가능한 시간, 유용한 대안, 긍정적·부정적 결과를 말한다. 넷째, 맥락조건은 다른 모든 상황과 상호작용하는 부분으로, 개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 사람들의 역할을 의미한다. 이러한

Harren(1979)의 진로 의사결정 모형은 대학생 연령에 초점을 맞추어 진로 발달과 진로 의사결정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변인들을 광범위하게 고려하였으며, 진로 결정 과정이 진로 결정자의 특성, 진로 결정 과업 그리고 진로 결정의 조건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하정, 2007).

지금까지 진로 결정과 관련된 선행 연구에서는 주로,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 진로 결정의 어려움, 진로 성숙도, 진로 탐색 행동, 진로 준비 행동(구영애 외, 2020; 김민정, 김봉환, 2014; 김종운, 박성실, 2012; 양인준, 김기민, 2023; 오은주, 2014; 유나현, 이기학, 2016)을 주제로 연구되었으며, 앞서 나열한 연구의 대상은 모두 대학생 청년층이다. 그러나 후기 청소년기 중도입국 청소년과 같은 특정 집단에 속한 개인의 경험에 따른 구체적인 진로 결정 과정을 밝히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 또한 부족하다. 후기 청소년기 중도입국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도 진로 결정은 발달 시점에 있어 주어진 중요한 과업이며, 이에 이들의 사회적·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진로 결정 과정을 심층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2) 일의 심리학 이론 (Psychology of Working Theory)

일의 심리학 이론은 기존 진로 이론들에 대한 한계를 인식하여, 직업세계의 급격한 변화와 점점 증가하는 불평등에 대처하기 위해 새롭게 제시된 진로 패러다임으로, 진로 결정에 영향을 주는 맥락적 제약과 그에 대한 대처역량을 강조한 이론이다(Duffy et al., 2016).

일의 심리학에서는 사회경제적 제약을 받거나 성별, 인종, 성적 지향 등으로 사회의 소수 또는 취약계층에 속하여 사회적 소외(marginalization)를 경험하는 개인의 진로 발달을 설명하기 위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채향화, 2020). 기존의 사회인지진로이론(Lent et al., 1994)이 개인 내·외적 요인을 해석하는 인지체계인 자기효능감, 결과기대, 목표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일의 심리학 이론은 사회적 소외계층의 진로발달에 관심을 두고 이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맥락적 제약과 제약에 대처하는 자기주도적 역량, 일 자유의지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박숙경, 이지연, 2020; 안진아, 정애경, 2019).

일의 심리학 이론에 따르면 사회적 환경과 경제적 제약으로 인해 차별이나 소외를 경험하는 개인은 진로결정에 있어서 자유로운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으며 기회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진로장벽을 마주하게 된다(채향화, 2020). 따라서 이들의 진로결정은 기존의 진로이론에서 강조하고 있는 개인의 흥미, 적성, 성격 등과 같은 개인 내적인 변인뿐만 아니라, 개인이 처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들을 모두 고려하며 개인의 가치에도 부합되는 괜찮은 일(decent work)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Duffy et al., 2016; 안진아, 정애경, 2019; 채향화, 2020). 여기서 괜찮은 일(decent work)에서 ‘괜찮은’ 을 의미하는 ‘decent’ 는 우수하거나 훌륭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수용할 만한 혹은 받아들일 만한 수준이나 질을 의미한다(안진아, 정애경, 2019).

Blustein(2013)은 일의 심리학 이론의 기반이 되는 핵심가정을 제공한 학자로서, 무엇이 성공인가라는 질문을 통해 진로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개인에게 있어 진로경로를 완성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과 가족, 친구와 사회적 연결망, 자기개발과 성장, 지역사회와 시민생활 등 비업무적인 삶도 개인의 지향성에 따라 진로성공의 통합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채향화, 2020). 또한, 일을 선택할 때 다양한 대안과 자유 의지를 가진 특권층만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당대의 흐름을 고려하여 일을 탐색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전제가 기반이 된다(Blustein et al., 2008; 송가람, 2023 재인용).

일의 심리학 이론에서 선행변인인 경제적 제약과 사회적 소외가 매개변인인 일 자유의지와 진로적응성을 통해 괜찮은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생존욕구, 사회적 연결욕구, 자기결정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일 충만감, 심리적 건강을 야기할 것이라 보았다(Duffy et al., 2016; 송가람, 2023; 안진아, 정애경, 2019). 조절변인에 해당하는 적극적인 성격, 사회적지지, 비판적 의식, 경제상황은 개인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외부 경제조건으로써 이러한 조절변인은 앞서 언급한 변인들 간의 관계를 달리할 것이라 가정했다(송가람, 2023; 안진아, 정애경, 2019).

따라서, 일의 심리학 이론이 후기청소년기 중도입국청소년의 진로결정 과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 주는 시사점은 크다고 볼 수 있다. 경제적 제약과 사회적으로 소외를 경험하는 개인에게 있어 진로결정이란 직업적 성취와 같은 자아실현의 욕구 충족만이 아닐 수 있으며, 개인이 처한 다양한 맥락적 환경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의 조율을 통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채향화, 2020). 기존이론과 연구에서 구축해 놓은 틀과 시각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후기청소년기 중도입국청소년과 같은 특수한 집단의 진로결정과정에 대해 이들이 처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맥락과 연결하여 밀도 높은 연구들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3) 후기청소년기 중도입국청소년 진로결정의 어려움

후기청소년기와 초기 성인기의 중요한 시기에 진입한 대학생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다양한 발달적 전환 및 진로의 탐색, 결정, 개발과 관련된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Rowell et al., 2014; 조현진 외, 2016). 중도입국 청소년의 경우 본인의 선택으로 입국한 것이 아닌 상황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주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한국에서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이나 의지가 없는 경우가 흔하며, 다소 무기력한 경우에 놓인

경우가 많다(전경숙, 2017). 배상률(2016)의 연구에 따르면 중도입국 청소년의 54.5%가 ‘진로문제’에 대해 가장 고민이 많다고 답했다. ‘목표의식이나 꿈의 부재’ 또한 20.9%를 차지했다. 이러한 고민 속에서 중도입국청소년들의 경우 대부분 자신의 장래희망이나 진로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행 방안을 가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류방란 외, 2011; 양계민, 조혜영 2011).

후기청소년기 중도입국청소년이 진로결정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으로 첫째, 이들은 여전히 한국어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다. 중도입국 청소년의 가장 큰 문제는 서툰 한국어로 인한 어려움이며(박서라, 2018; 서덕희, 2015; 심탁아, 2020; 이춘양, 박미숙, 2017; 전경숙, 2017), 대학에 진학한 이후에도 대학 전문용어, 전공수업의 어려움을 여전히 동일하게 겪고 있다(채소린, 2022).

둘째, 진로정보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다. 진로정보란 개인이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에 대한 정보와 직업에 관한 모든 정보를 말한다(HRD 용어사전). 그러나 중도입국청소년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고, 기본 정보조차 부족한 상황이다(박서라, 2018). 중도입국청소년들은 귀화로 인해 대학진학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으며, 대입정보부족으로 인해 귀화를 한 상태로 외국인 특별전형을 지원하여 대입에 실패하게 된 경우도 있다(채소린, 2022). 이들은 스스로가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원하는 바가 있다고 하여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과 고민 없이 그저 막연하게 장래 꿈을 이야기하는 수준이다. 특히 한국의 교육제도나 진로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지원할 만한 정신적·물질적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진로준비에 어려움을 겪는다(전경숙, 2017). 중도입국청소년들은 교육적 공백과 양육 부재의 경험, 진로계획이 설정되지 않은 채 한국에

입국하며, 진로정보도 부족하기 때문에 진로 탐색조차 힘든 상황에 처해있는 경우가 많다(유진이, 김소형, 2018). 이처럼 한국의 사회문화 구조와 진로구조에 대한 이해수준이 낮음으로 인해 진로에 대한 고민을 유보하거나 그 고민의 방향조차 찾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오성배, 서덕희, 2012). 김충기(1996) 또한, 중도입국청소년의 경우 학교급이 높아짐에 따라 학교생활 적응이 힘들고 학업부진을 경험하는 비중이 높아 자신의 진로탐색을 유예하기도 하며, 상위 학교로 진학을 포기하거나 낮은 진로의식수준으로 진로탐색단계에 머무를 수 있다고 밝혔다. 진로 탐색 과정을 거친 중도입국청소년들도 대인·정보관계망이 좁고 한국의 직업세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여 진로자립과 진로유연성이 부족할 수 있으며, 적극적인 진로준비행동으로 이어지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셋째, 이들은 대부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업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녹록지 못한 가정형편으로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등 학업보다는 돈을 벌어야 한다는 현실에 집중하고 있다(박서라, 2018). 후기청소년 세대들은 상당수 아르바이트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이 경험이 진로결정 및 진로준비활동 제고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조혜영 외, 2012).

한편, 일부 선행연구는 다문화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 성인기 진입에 긍정적인 자원이 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문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강부자와 최연실(2020)의 연구에 의하면 참여자들은 혼란을 경험하였지만 성장하면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하거나 주체적인 가치를 설정하면서, 자신이 가진 이주 배경을 긍정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문화적 자원을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만한 요인으로 평가하면서 이중언어 능력을 활용하여 진로를 선택하거나, 입시에서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전형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혈아들을 대상으로 한 외국 연구와 이론에서는 그들의 정체성 발달과정을 결핍의 관점에서 보고 있었으나 실제로 참여자들은 자신을 주변인이라고 지각하지 않고 있었으며, 문화적 인식과 같은 두 문화 사이의 장점을 더 많이 인식하고 있었다(Kerwin et al., 1993).

그러나 아직 다문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청년들의 경험을 이해하고, 관련 연구의 확대를 위해서는 청년들이 어떠한 진로경험을 하고, 진로경험에서 청년들의 선택을 촉진하거나 저해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탐색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김민선 외, 2022).

Ⅲ.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후기청소년기 중도입국청소년의 진로결정 경험은 어떠한지 또한 어떠한 과정을 통해 진로를 결정해 나가는지 살펴보기 위해 설계되었다. 중도입국청소년은 갑작스런 한국 입국으로 인해 언어적 어려움, 문화 적응에 대한 어려움, 정체성 혼란, 자신감 저하 등 수많은 어려움을 마주하게 된다. 이러한 어려움에 맞서, 후기청소년기에 진입하며 진로를 결정해 나가는 과정에서의 경험은 어떠한지 파악하기 위해, 특정 사례에 대한 복합적이고 상세한 이해와 새로운 통찰을 얻고자 할 때 사용되는 질적 연구를 선택하였다(Creswell & Poth, 2018). 질적 연구는 사회적 현상에 참여하는 개인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상대방의 경험 속으로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유기웅 외, 2018). 질적 연구 중에서도 연구주체에 대해 알려진 것이 거의 없거나 어떤 집단의 행동을 설명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 이론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 특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근거이론방법론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조성남 외, 2011). 연구자료의 수집은 심층 면접으로 진행되었으며, 본 연구는 성신여자대학교 생명윤리 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IRB NO: SSWUIRB-2023-038)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

2. Strauss와 Corbin(1990)의 근거이론 방법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은 여러 질적 연구 접근방법 중의 하나로 1967년 미국의 사회학자인 Barney Glaser와 Anselm Strauss에 의해

개발되고, 발전되어 온 연구방법으로 인간의 다양한 상호작용의 현상과 과정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인간의 경험세계를 보다 심층적이고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방법이다(Creswell, 2005). 근거이론은 연구 참여자가 겪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일어난 복잡다단한 현상과 경험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이를 근거로 실질적인 사회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생성하는 목적으로 진행된다(유기웅 외, 2018). 1990년대 Strauss는 Corbin과 팀을 이루고 근거이론 방법을 정교화하여, 연구자들이 실제 연구에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해 주며, 근거이론의 실용화와 확산에 기여했다(유기웅 외, 2018).

근거이론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Creswell, 2005; 조성남 외, 2011). 첫째, 근거이론은 특정 상황에서 개인이 어떻게 반응, 상호작용, 행동하며 과정에 관여하는지에 초점을 둔다. 둘째, 근거이론은 연구 대상자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한다. 셋째, 근거이론에서는 엄격한 연구 절차의 활용과 과학적 신빙성을 강조한다. 즉, 연구자는 이론을 분석, 개발하기 위해 체계적인 절차(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를 활용하며, 시각적 모형을 사용하여 범주들 간의 관계를 보여준다.

질적 연구방법으로서 근거이론 방법을 채택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유기웅 외, 2018). 첫째, 근거이론 방법은 양적 연구방법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개인이 겪는 사건, 경험 또는 현상의 과정 등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실질적 이론을 제시하기 위해 유용하다. 둘째, 근거이론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본질을 탐구하는 데 초점을 두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사회심리학자인 Mead(1934)에 의해 기초를 다지고 그의 제자 Blumer(1969)에 의해 완성된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인간은 상징을 해석하는 주체로서 사물이나 인간 행위의 의미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인간이 지니고 있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고 가정한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바탕을 둔 근거이론은 개인의 행동은 현상이나 사건이 그 개인에게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여지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현상이나 사건에 대한 개인적 의미는 타인들과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연구 대상자가 타인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어떻게 경험하고 느끼며, 그들의 행위가 어떻게 사회적으로 구조화되는지를 밝히는데 유용하다. 셋째, 행위자의 다양한 경험세계와 과정에 대한 새로운 이론을 생성하는데 유용하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자가 이론적 민감성을 가지고 자료를 수집하여 이론적 표본 추출, 코딩, 반복적 비교방법, 메모, 핵심범주 분류, 패러다임 모형의 도출 등 행위자의 경험과정으로 원인, 결과, 차이점, 강도, 깊이, 각 요소들 간의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근거이론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할 때 고려해야 할 특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trauss & Corbin, 1998; Creswell, 2005; 유기웅 외, 2018; 정규진, 2016; 조성남 외, 2011; 채향화, 2020).

첫째, 이론적 표본추출(Theoretical sampling)이다. 이론적 표본추출은 연구자가 다음에 어떤 자료를 수집하고, 그들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에 대한 분석적 근거를 결정하는 것이다(Strauss, 1987). 근거이론 연구를 위한 연구 대상자는 이론 개발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며 가능하면 연구 목적에 충실한 동질적 표본을 선택하여 연구를 시작하여야 한다. 근거이론 연구를 통해, 이론을 개발한 이후 이질적 표본을 선택하여 다른 연구를 실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의 표본추출 방법과 달리 이론적 표본추출에서 자료 수집은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 한 번에 수집되지 않으며 자료수집과 분석이 순환적으로 진행된다. 즉, 자료수집과 함께 분석이 시작되며 분석에 따라 도출된 개념에 기초하여 자료수집이 다시 이루어지며 새로운 개념이 떠오르지 않을 때까지 반복되는 과정을 거친다.

둘째, 연구자의 이론적 민감성이다. 이론적 민감성이란 수집된 자료에서 미묘한 뉘앙스와 단서가 암시하고 있는 의미나 포인트를 포착하는 능력 또는 통찰력을 말한다. 어떠한 현상이나 사건들이 암시하고 있는 미묘한 차이와 유사점 등을 통찰력을 가지고 판단하는 능력은 연구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연구자의 능력 가운데 하나이다. 이러한 연구자의 민감성은 노력 없이 갑자기 생겨나는 것은 아니며, 많은 관련 자료와 이론에 익숙하고 연구 자료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고민하는 과정을 거쳐 준비된 사람에게 나타난다(Strauss & Corbin, 1990). 연구자는 연구 과정에서 자신의 주관성이 얼마나 개입되는지 알아차리고 참여자가 중요하게 말하고 행동한 것에 대해 민감한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채향화, 2020).

셋째, 반복적 비교(Constant comparative)이다. 반복적 비교란 자료가 개념적으로 같은지를 판단하기 위해 하나의 자료를 가지고 다른 자료를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Glaser & Strauss, 1967; 채향화, 2020). 연구자는 수집한 자료를 귀납적으로 분석하여 각각의 개념 및 카테고리를 형성하고 명확히 하며 서로 다른 개념 및 카테고리의 유사점 및 차이점, 그리고 한 개념 및 카테고리가 다른 어떤 개념 및 카테고리와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는가 등에 관한 분석을 실시하게 된다. 반복적 비교는 연구자는 지속적으로 현상, 개념, 범주 간을 비교하여 이론적 표본 추출 및 자료수집상의 포화상태를 판단하며, 현상, 개념, 범주 간의 유사점 및 차이점을 명확히 하고 각각의 관계를 이해함으로써 이론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과정이다.

넷째, 단계적 자료분석이다. 자료분석은 개방 코딩, 축 코딩, 선택 코딩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개방 코딩은 수집된 자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개념을 발견하고 명명하여 유사하거나 의미상 연관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것을 범주화하고, 그 개념의 속성과 차원을 발견해 나가는 분석과정이다.

축코딩은 개방코딩을 통해 도출된 범주들간의 상호관계를 시각적인 패러다임 모형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패러다임 모형은 현상,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전략, 결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결과를 시각화하면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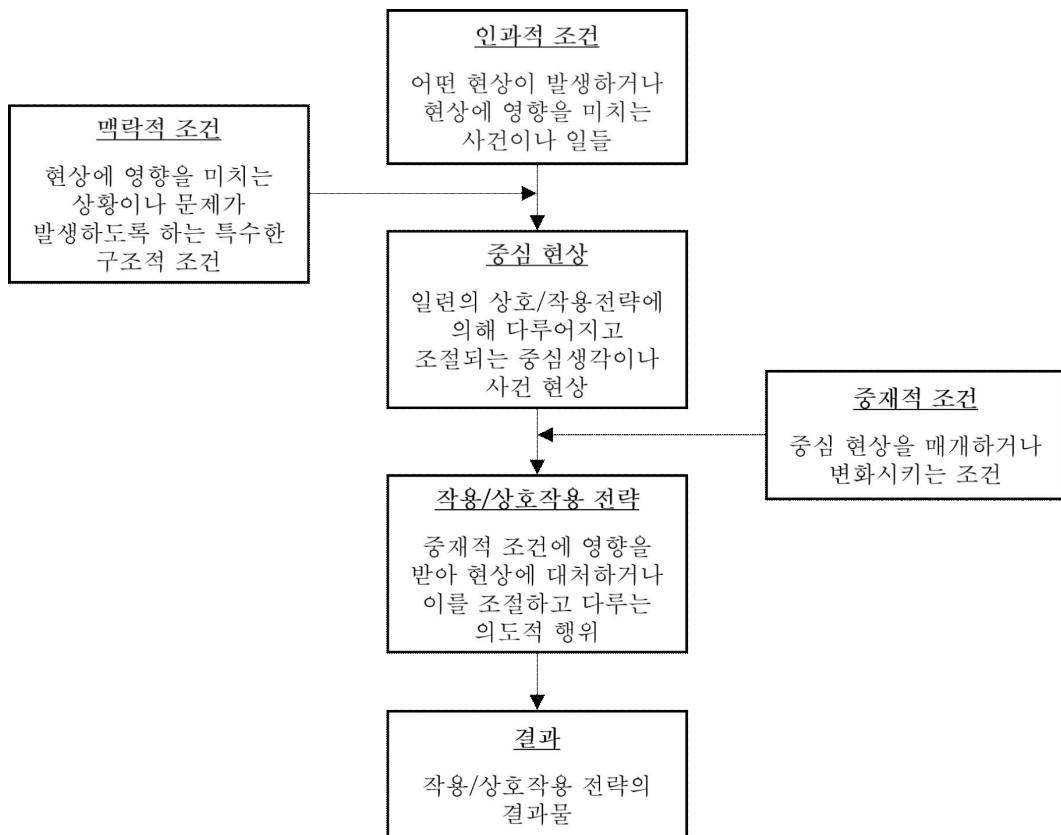


그림 1. 패러다임 모형의 구성요소 (Strauss & Corbin, 1990)

마지막으로 선택코딩은 도출된 모든 범주를 통합할 수 있는 핵심범주, 즉 중심현상을 선택하고, 다른 범주와 체계적으로 통합하고 정교화하여 하나의 이론이 구축되는 과정이다.

본 연구는 후기청소년기 중도입국청소년의 진로결정과정 에 대한 선행연구가 많지 않고, 본 연구가 특정 시점에 나타나는 결과로써의 현상 자체만이 아닌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 관한 것이라는 점과, 실제 경험자인 후기청소년기 중도입국청소년 스스로가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부여한 의미와 해석 그에 기반한 행동 양식을 유형화시켜 보고자 한 점에서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기반으로 한 질적 연구방법인 Strauss & Corbin(1990)의 근거이론 방법을 선택하였다.

3. 연구 대상자

근거이론 방법을 통한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연구의 주제에 적합한 연구 참여자를 의도적으로 선택하여 자료를 수집해야 하는데, 이를 의도적 표집(purposeful sampling)이라 한다(유기웅 외, 2018).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선정기준을 구성하여 연구 참여자를 최종 선정하였다.

첫째, 연구 참여자의 현재 국적에 상관없이 외국에서 성장과정을 거치고 부모님 중 한 분이 외국인으로 한국인과 재혼하게 되어 청소년기에 한국으로 입국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 자로 중도입국의 기준을 정하였다.

둘째, 후기청소년기에 해당하는 만 19세에서 24세의 중도입국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셋째, 고등학교 졸업 후 전문대 또는 대학을 진학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넷째, 출신국과 성별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연구자는 총 10명의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으며, 본 연구 참여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4>와 같다.

표 4. 연구 참여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성별	연령	학력	출신국	중도입국 시기
A	여	만 19세	전문대 재학	베트남	2018
B	여	만 21세	전문대 재학	중국	2019
C	여	만 20세	대학 재학	베트남	2018
D	여	만 24세	대학 재학	중국	2015
E	남	만 22세	대학 재학	중국	2014
F	여	만 23세	대학 재학	중국	2018
G	남	만 21세	대학 재학	중국	2013
H	여	만 19세	대학 재학	중국	2016
I	남	만 24세	대학 휴학	중국	2015
J	여	만 23세	대학 휴학	중국	2016

본 연구의 참여자의 성별 분포는 여자가 7명, 남자가 3명이며, 연령대는 만 19세부터 만 24세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모두 전문대 혹은 대학에 진학하였으며, 면접 진행 당시 8명이 재학 중 2명이 휴학 중인 상황이었다.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국가별 중도입국자녀 현황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체 3,240명에서 중국이 1,228명으로 37.9%의 비율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베트남이 853명으로 26.3%의 비율로 중국의 뒤를 잇는다. 본 연구에서도 연구 참여자의 출신국은 중국이 8명으로 가장 많으며, 베트남이 2명으로 나타났다. 중도입국 시기는 초등학교 때 입국이 2명, 중학교 때 입국이 4명, 중학교 졸업 후 입국이 4명으로 분포되어 있다. 연구 참여자의 대부분은 엄마가 외국인으로 친아빠와 헤어지고 엄마를 따라 한국에 입국하게 되었으며, 일부 참여자의 경우 아빠가 귀화한 한국 새어머니와 재혼하게 되어, 아빠를 따라 한국에 입국한 경우도 있었다.

4.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는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후기청소년기 중도입국청소년 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이들의 진로결정과정 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근거이론적 자료수집 방법을 사용했다. 근거이론 방법을 통한 연구에서는 자료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주로 면접을 통해, 연구 참여자의 표현을 기반으로 그들의 경험세계를 탐구하게 된다(Creswell, 2005).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만 19세에서 24세의 후기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중도입국청소년들이다. 연구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연구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중도입국청소년들이 정보를 교류하는 오픈 채팅방을 활용하여 <부록 1>의 모집 안내문을 전달하였고, 조건에 맞는 연구 대상자를 모집하였다. 연구에 관심을 보이는 대상자에게는 본 연구의 필요성과 취지, 연구과정 등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연구에 필요한 충분한 인원이 충원되지 않아,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을 추가적으로 활용하였으며, 면접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에게 본 면접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다른 대상자를 추천받아 추천에 응한 대상자에게 허락을 받은 뒤 연구자가 직접 연락을 하여 본 연구의 목적과 진행방식을 충분히 설명한 후 연구 동의를 구하였다. 심층 면접 사전에 연구목적과 취지 등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자의 간단한 정보를 확인하여 연구 참여자 조건에 부합하는지 재확인하였다. 심층 면접 당일에는 연구 참여동의서와 설명문에 대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 기간, 연구 방법, 개인 정보와 비밀보장의 원칙, 자발적 연구 참여와 중지에 관한 설명을 하였으며, 만약 면접 중 과거의 경험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반추하여

심리적인 불편감을 느낄 경우 연구자 및 연구 책임자와 논의할 수 있고,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에 연계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면접 시간은 연구 참여자의 서툰 한국어를 고려하여, 1회당 평균 1시간 30분 내외로 진행하였고, 면접 장소는 참여자가 원하는 장소(대학교, 스터디 카페 등)와 시간에 맞춰 진행되었다. 이후 자료 분석과정에서 추가 면접이 필요한 경우에 사전 동의를 구하고 이메일 또는 전화로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자료 수집의 전 과정에서 미묘한 뉘앙스(nuances)와 단서(clues)가 암시하고 있는 의미나 포인트를 포착하기 위한 통찰력 있는 자세를 지니고자 하였으며, 수집된 자료에서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고민하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의 진로결정과 관련된 각기 다른 과정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청소년기의 진로 탐색 경험, 후기청소년기 진로 결정 경험, 앞으로의 계획 등 진로결정의 전반적인 과정을 모두 탐색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연구 참여자들의 자유로운 구술과 경험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위해 내용이나 흐름에 따라 연구자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를테면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에 대한 진술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참여자의 진술을 토대로 개방형 질문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반구조화된 면접 질문지의 내용은 <표 5>와 같다.

표 5. 반구조화된 면접 질문지

구분	주요 질문
(과거) 청소년기의 진로 발달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음 한국에 들어왔을 때에는 어떠한 마음이었나요? ▪ 한국에 들어오기 전 하고 싶었던 것이나 꿈이 있었나요? ▪ 진로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어떠한 노력을 하였습니다니까? ▪ 진로의 방향을 결정하면서 고민했던 요인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학창시절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에 도움이 된 사람/프로그램 등이 있었나요?
(현재) 후기 청소년기의 진로 발달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학과를 결정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 재학 중인 학교 및 학과에 만족하나요? 이유는? ▪ 주변인(부모님, 선생님, 친구들)은 진로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다니까? ▪ 고등학교 때의 학업이 현재에 영향을 주었나요? ▪ 진로 결정에 영향을 준 요인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미래) 앞으로의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졸업 후(향후)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5.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는 후기청소년기 중도입국청소년의 진로결정과정의 의미와 현상을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 용이한 질적연구(Denzin & Lincoln, 1994)로 수행하였으며, 자료분석은 Strauss & Corbin(1990)의 근거이론 분석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자료 분석 과정은 크게 원자료화, 개방코딩, 축 코딩, 선택코딩에 따라 분석하였다. 분석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원자료화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와 진행한 전 면접 과정을 녹취하였으며, 이를 대상자별로 구분하여 문서로 전사하였다. 전사된 자료는 일련번호를 붙여

축어록으로 정리되어 원자료로 사용되었다. 연구자는 면담 내용을 풀어보면서 떠오르는 개념이나 아이디어들을 메모하였고, 코딩 분석 전 축어록의 내용을 꼼꼼하게 반복하여 읽으면서 전반적인 내용을 통찰하고자 하였다.

2) 개방코딩

개방 코딩은 연구자가 인터뷰, 관찰, 각종 문서(필기 노트, 메모, 관찰 일지, 기타 연구와 관련된 모든 문서)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밝히고자 하는 어떠한 현상에 대해 최초 범주화(categories)를 시키는 초기 코딩과정으로, 특정 현상에 대해 개념(concepts)을 명확히 하고, 그 속성(properties)과 수준(dimensions)을 자료 내에서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면담 내용을 정리하여 한 줄씩 분석해 나가는 줄 단위(line by line) 분석 방법 및 문장, 문단 분석 방법을 통해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문장에 최대한 ‘있는 그대로’의 의미를 담아 개념적 이름을 붙이고자 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개념들을 특정한 개념을 대표 할 수 있는 범주로 묶고, 다시 이들을 상위범주로 묶어 분류하였다. 반복적 비교분석을 통해 새로운 하위범주를 생성해 내기도 하였다. 원자료를 지속적으로 재검토하고 질문을 던지며, 도출된 개념이 자료가 담고 있는 메시지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 범주들이 논리적으로 도출되었는지 확인하고 수정해 나가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3) 축코딩

축코딩은 개방코딩을 통해 생성된 범주들의 관계성을 파악하기 위해 범주들을 특정한 구조적 틀에 맞게 연결시키는 과정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개방코딩에서 도출되었던 하위범주들을 패러다임 모형에 따라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중심 현상,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전략, 결과에 맞게 재조합하며 범주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통합하고자 하였다. 이후 과정분석을 실시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현상에 대한 반응, 대처, 조절에 관계하는 작용/상호작용의 연속적인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축코딩의 결과도 개방코딩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원자료들을 여러 번 검토해 나가며 범주와 패러다임의 구성요소들 간의 연결이 적절한지 확인을 통해 완성되었다.

4) 선택코딩

선택코딩이란 핵심 범주를 선택하여 이론을 구축해 나가는 과정으로, 정리된 분석 결과들을 통합시키고 정교화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Strauss & Corbin, 1990). 여기에서 통합이란 연구자가 원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고의 발전을 의미하며, 크게 핵심 범주의 선정, 이야기 윤곽 제시, 시각적 모형 제시 등의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유기웅 외, 2018). 본 연구에서는 도출된 모든 범주들을 대표할 수 있는 가장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범주를 ‘낮선 땅 한국에서 여러 장벽에 맞서고, 이중문화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나의 길을 찾기 위해 한 걸음 내딛기’로 분석하였고, 이야기 윤곽을 작성 후 연구 참여자 4인에게 보여준 후 그들의 경험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였다. 또한, 패러다임 근거이론 연구방법 전문가에게 지속적으로 감수를 받으며 수정된 내용을 결과에 반영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 과정은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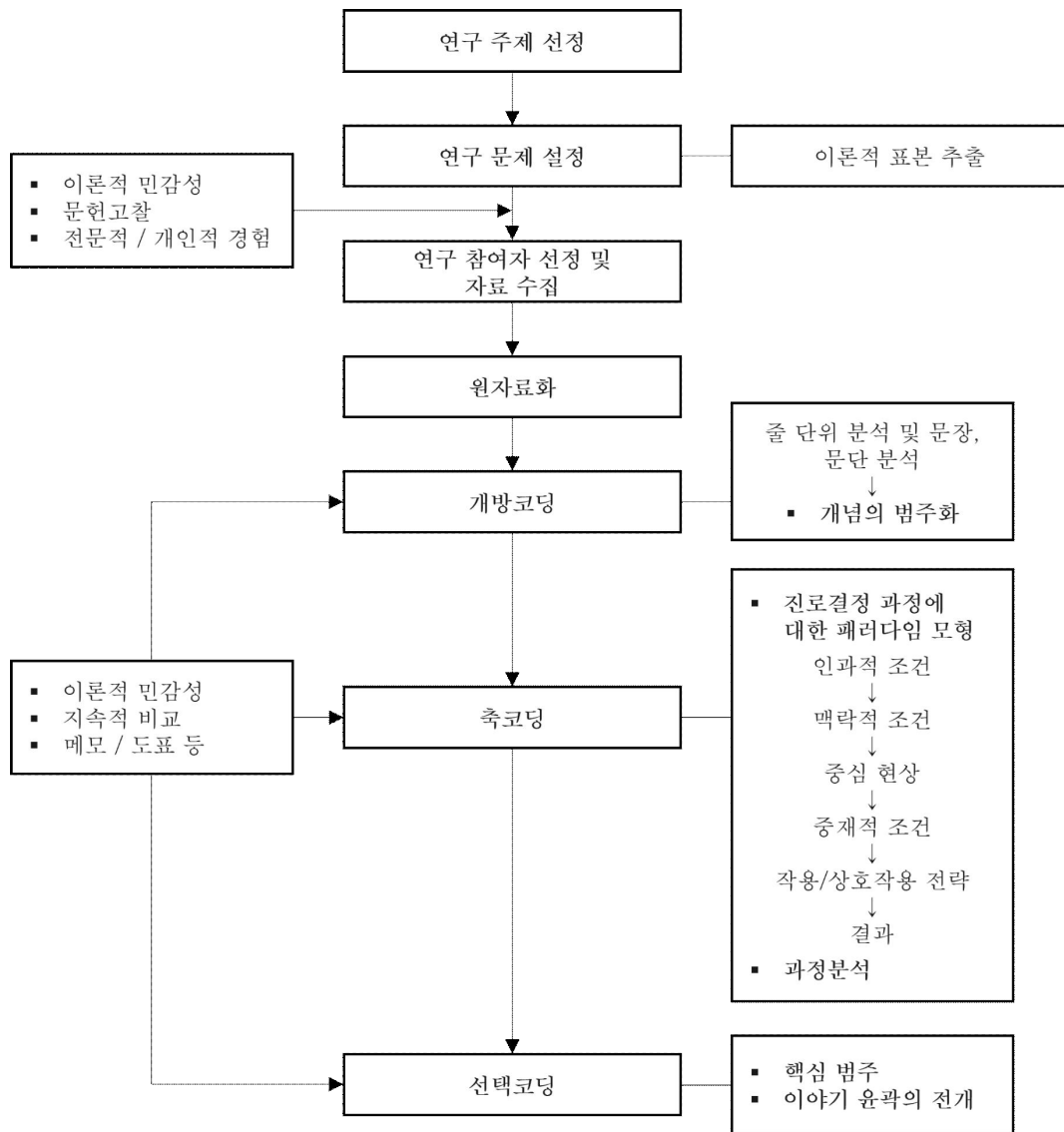


그림 2. 자료 분석 과정

6. 연구의 엄격성 및 윤리적 문제

1) 연구의 엄격성

질적연구는 인과관계, 일반화, 검사, 예측 등에 관심을 두는 양적연구와는 다르게 심층기술을 통한 이해에 보다 많은 관심을 두고 있으므로, 양적연구에서 주로 논의되는 타당도와 신뢰도의 개념 적용이 적절하지 않다는 논의가 제기되어 오고 있다(Lincoln & Guba, 1986; Merriam, 2009; 유기웅 외, 2018). 그럼에도 질적연구는 연구자의 주관적인 통찰, 발견, 해석에 초점을 두는 접근 방법이므로 연구자는 연구과정 및 결과의 신뢰가능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질적연구의 평가에 적합한 고유의 평가기준을 갖고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조성남 외, 2011; 채향화, 2020). 이러한 입장을 주장한 Lincoln과 Guba(1985)가 제시한 질적연구 평가기준 4가지 즉, 진실성(truth value), 적용가능성(applicability), 일관성(consistency), 중립성(neutrality)에 근거하여 연구의 질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첫째, 진실성(truth value)을 확보하기 위해 면접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가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충분한 라포형성을 하였으며, 적극적인 경청을 위해 노력하였다. 참여자가 제공한 정보에 대해 재확인하고 피드백 받는 과정을 반복하며, 연구 참여자의 경험이 '있는 그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기술하고자 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 4명을 선정하여, 연구결과가 참여자들의 경험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참여자 대부분은 연구결과에 본인들이 서술한 진로결정과정의 잘 드러나 있다고 확인해 주었다.

둘째, 적용가능성(applicability)의 확보를 위해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후기청소년기 중도입국청소년 4명에게 연구결과를 보여주고 자신의 경험을

떠올렸을 때 이해가 되고 공감아 되는지 확인하여 연구결과가 검증이 가능한지 확인하였다.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후기청소년기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저의 경험과 비슷해요.’ 라는 평가를 통해 연구결과가 비참여자들의 경험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셋째, 일관성(consistency)의 확보를 위해 상담심리 전공 지도교수 1인, 상담심리 전공 석사 졸업생 2인, 근거이론 연구방법 전문가 1인에게 감수를 받으며 논의된 내용을 통해 연구결과를 수정하고 발전시키고자 하였으며, 분석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자문을 받으며 일관성 있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넷째, 중립성(neutrality)의 확보를 위해 연구자 본인의 선입견을 최대한 배제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떠오르는 생각과 느낌을 메모함으로써 개인적 감정을 연구참여자들의 경험과 분리하여 바라볼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2) 연구의 윤리적 문제

본 연구는 성신여자대학교 생명윤리 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IRB NO: SSWUIRB-2023-038)을 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윤리에 대해 <부록 2>의 연구 참여자 설명서와 <부록 3>의 연구 참여자 동의서를 통하여 안내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권익옹호를 위한 윤리적 사항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 참여자는 연구 참여 도중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도중에 그만둘 수 있고,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시 불이익은 없으며, 연구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해당 자료는 즉시 삭제가 가능함을 알렸다. 또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심층 면접으로 이전에 해결되지 않았던 부정적인 경험이 상기될 수 있어 심리적 불편감을 경험할 수 있으며, 중재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상담기관 연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제공할 것임을 안내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녹음됨을 알리고 녹음된 내용은 분석을 위해 전사되어 사용한다는 점에 동의를 받았다. 연구 참여자의 서툰 한국어를 고려하여, 1회의 심층 면접은 약 1시간 30분 내외로 소요되며, 이후 경우에 따라 1회의 추가 면접이 요청될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하였다. 자료 분석 후 결과를 참여자에게 전달하여 내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이메일 또는 전화로 확인하여 연구자의 이해 정도를 확인함으로써 연구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것임을 안내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들의 사생활이 노출될 우려를 막고자 모든 자료는 익명으로 보관할 것임을 안내하였다. 자료의 보관 일자는 연구 시작일로부터 연구 종료 후 3년(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녹음파일의 경우 저장한 모든 매체(노트북, 휴대폰 등)에서 모두 영구 삭제됨을 안내하였다. 면접을 마친 후에는 소정의 사례비 3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연구자의 노력

연구자는 서울에 위치한 공립 다문화 대안학교의 교사로서 5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고, 다문화 청소년 관련 연수 및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운영했던 사업인 다문화 청소년 진로교육 선도교원 양성과정에 참여하며 다문화 청소년의 현황과 진로교육에 대해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자 하였다. 또한, 연구 계획 단계에서 윤리 교육을 이수하여 연구의 윤리성에 대한 이해를 높였고, 질적 연구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질적 연구방법론 세미나를 수강하고, 학회에 게시된 다양한 학술자료들을 찾아보며 숙지하고자 하였다. 또한, Lincoln과 Guba(1985)의 진실성, 적용가능성, 일관성, 중립성의 기준을 따라 수집한 내용을 충실하게 제시하려 하였고,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하여 객관성을 높이는 노력을 하였다. 연구자는 전

과정에서 이론적 편향 및 연구자의 편견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질문을 던지며 끊임없는 성찰적 태도, 반성적 태도를 지키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모든 심층 면접에서 사전 지식을 배제하려 노력하였고, 연구 참여자와 주변 동료 등의 자문을 통해 의견을 듣고 확인하고 반영하는 작업을 거치며 타당성 있는 연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IV. 연구 결과

1. 개방코딩

본 연구결과는 연구 참여자들과의 심층면접을 통해 얻은 원자료를 줄 단위(Line by Line)로 분석하여, 후기청소년기 중도입국청소년의 진로결정 과정에 대한 개념을 명명하고 유사하거나 공통적인 개념을 모아서 범주화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각 범주의 속성과 차원을 발전시켜 나가며 최종적으로 89개의 개념과 37개의 하위범주, 14개의 범주로 분류하였으며, 내용은 <표 6>과 같다.

표 6. 근거이론 패러다임 모형에 따른 개념 및 범주화

개념	하위범주	범주	구분
부모님의 이혼 후 한국인 새아버지 혹은 새어머니와의 재혼으로 인해 새로운 가족이 있는 한국에 오게 됨	가족 문제로 어쩔 수 없이 한국에 입국함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갑작스럽게 한국에 입국하게 됨	인 과 적 조 건
부모님의 재혼으로 본국의 가족(조부모, 친척)과 지내기 어려워짐			
한국으로 먼저 떠난 부모님(어머니 혹은 아버지)과 함께 생활하기 위해 한국에 오게 됨	본국에서 학교를 다니던 중 한국에 입국함	입국하게 됨	
초등학교를 다니던 중 한국으로 오게 됨			
중학교를 다니던 중 한국으로 오게 됨			
중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으로 오게 됨	내가 원하는 꿈에 대해 모르는 채로 한국생활을 시작함	진로계획이나 꿈이 없는 상태로 한국생활을 시작하게 됨	
나의 흥미와 적성을 찾는 과정없이 입국하게 됨			
내가 누구인지 고민하며,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없이 입국하게 됨			
한국에서의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음	진로계획 없이 한국생활을 시작함		
모국에서 부모님의 부재로 인해 조부모 및 친척에게 맡겨짐으로써 진로자원을 충분히 제공받기 어려운 환경에 놓임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느끼고 입을 닫으면서 점점 무기력해짐			
한국에 와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는 한국어로 말하기였음	미숙한 한국어로 소통의 한계에 부딪힘		
미숙한 언어 실력으로 인해 자신감이 사라지며 위축됨			
서툰 한국어로 수업 이해가 어려워 흥미를 잃고 성적이 떨어짐	학업에서 어려움을 겪음	언어 장벽에 직면함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아 혼자 공부하는 데 어려움을 느낌			
말하는 것이 서툴러서 자신을 어린아이처럼 대하는 친구들에게 묘한 감정이 느껴짐	친구를 사귀는 데 어려움을 겪음		
말을 못하니 소심해지고 친구 사귀는 것이 어려워 혼자 다니게 됨			
마음을 열고 진솔한 대화를 나눌 친구가 없음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고 눈치보게 됨	출신국에 대한 부정적 시선으로 인해 주눅들음	출신국에 대한	
우리나라에 자리 잡은 출신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출신국 밝히기가 꺼려짐		사회적	
외국에서 왔다는 이유로 친구들이 거리를 두는 것이 느껴짐	사람들이 외국인으로 생각해 거리두는 경험을 함	편견을 경험함	맥락적 조건
발음이 서툴다는 이유로 주변에서 외면 또는 비웃음을 받음			
출신국 환경과 다른 교통, 쇼핑, 분리수거 등의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느낌	출신국과의 문화적 차이로 인해 적응이 어려움	한국 문화 적응에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아 어려움을 겪음		어려움을 경험함	
존댓말을 사용하는 한국 문화가 낯설게 느껴짐	문화적 차이로 인해 오해받는 경험을 함		
어른에게 물건을 건넬 때 두손으로 건네지 않아 꾸중을 들음			
대학을 진학하는 주변 분위기에 휩쓸려 진학을 결정함	한국의 입시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함		
진로에 대해 무기력하고 수동적이 됨			
진로 정보(대학 학과, 입학 절차 등)를 어디서 얻어야 할 지 몰라서 방황함			
부모님의 막연하고 무조건적인 대학진학 권유에 혼란스러움		진로정보 부족으로	
부모님의 추천 직업과 나의 희망직업이 달라 갈등을 겪음	부모로부터 진로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고 방치됨	진로탐색에 어려움을 겪음	
부모님의 하고 싶은 것을 하라는 막연한 지도에 답답함			
부모님이 진로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적극적인 개입이 없어서 답답함			
한정된 직업군에 종사하는 부모로부터 직업군의 다양성과 본보기를 경험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함			

대입에 보다 유리한 외국인 전형에 지원하지 못하게 되어 어려움을 겪음			
국적 변경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학교와 학과가 줄어들게 됨	국적 변경으로 대학 입학의 문턱이 높아짐		
다문화 전형에 지원할 수 없는 조건으로 열악한 입시환경에 낙담함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불안함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로 인해 막막함		
복합적인 가족구조로 인한 갈등으로 분노가 생김			
외국인도 아니고 한국인도 아닌 것 같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혼란이 생김	정체성 혼란으로 인해 진로탐색을 미루게 됨		
한국에서 내가 평생 먹고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생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진정한 의미에 꿈을 찾기보다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고려하게 됨		낮선 나라에서 나의 길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함	중심 현상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학생들과 경쟁하기에는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됨	입국으로 인해 지금까지 꿈꿔온 직업을 접고 현실과 마주함		
막연하게 생각했던 꿈들은 내가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됨			
부모 진로 정보 부재로 인한 혼자만의 진로 개척 과정에서 불안함을 느낌	진로 방향에 대한 도움의 손길 없이 스스로 헤쳐 나감		
바쁜 맞벌이 부모로부터 방치되어 정서적인 돌봄이 부족함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으로 학비 부담이 줄어들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진로 방향성을 고려하게 됨	부모의 가이드로 진로결정에 도움을 받음		
무엇을 하든지 응원해 주는 가족이 있어 용기를 얻음			
사촌언니 및 고모의 추천으로 학과 결정을 고려하게 됨	친척의 지지 및 조언이 있었음	주변 사람들 (부모님, 친척, 선생님, 교수님, 친구 등)의 도움(진로 정보 제공, 상담)을 받음	중계적 조건
한국에 같이 온 친척들을 통해 진로준비에 영향을 받음			
고등학교 선생님과 함께 대학 입학 전형에 대해 탐색해 나감	고등학교 때 선생님을 통해 진로 정보를 얻음		
고등학교 수업시간을 통해 어떤 직업들이 있는지 배워나감			
교수님이 전공과 관련된 실습정보를 제공해 줌	대학교 교수님과 상담함		
교수님께 진로와 관련된 상담을 받음			
친구를 따라 전공을 결정함			
주변 친구들의 노력과 열심을 보며 자극을 받고 동경하게 됨	친구의 진로결정 과정을 보고 참고함		

먼저 졸업한 선배를 통해 실질적인 조언을 얻음	친구가 직접적으로 진로 결정과정을 도와줌		
주변 친구들을 통해 직업 정보를 교류함			
다문화 센터에서 한국어 집중 교육을 받음			
다문화 센터에서 한국 문화이해 교육을 받음	다문화 센터의 지원이 있었음	사회적 자원(다문화 센터, 대학교 일자리 센터)에서 지원을 받음	
다문화 센터에서 나와 비슷한 상황의 친구들을 사귀면서 교류함			
대학교 일자리 센터에서 진로 관련 상담을 함	대학교 일자리 센터의 지원이 있었음		
대학교 일자리 센터에서 진로와 관련된 자격증 취득 정보를 얻음			
친구들과 교류하며 한국 문화를 습득해 감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습득함	한국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함	
예능 프로그램 또는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한국어 표현을 배워나감			
아르바이트를 하며 용돈을 모으고 작은 사회를 경험해 봄	아르바이트를 통해 한국 사회를 경험해 봄		
사회생활을 경험해 보며 나의 진로와 연결시켜 봄			
게임을 통해 어려운 마음을 달랠	취미를 통해 외로움을 견뎌 나감	낯선 곳에서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한 나만의 방법을 찾아봄	작 용 / 상 호 작 용 전 략
애완동물을 키우며 외로움을 극복함			
종교에 힘을 빌려 기도하며 슬픔을 극복해 나감	신앙을 통해 외로움을 견뎌		
센터에서 만나는 모국의 친구들과 교류함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외로움을 견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과 교류함			
대학 입시를 위한 외국어 자격시험을 준비함	외국어 특기자 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함	이중 언어의 장점을 살리고자 함	
중국어 어학자격 HSK 6급을 취득한 후 언어 특기자 전형에 지원함			
모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할 수 있는 전공(관광, 무역, 한국어)을 고려함	이중 언어를 살려 전공을 결정함		
나의 성격과 잘 맞을 것 같은 진로를 탐구함			
친구들을 도와주고 통역해주며, 자신감을 찾아감	나를 알아가며 전공을 탐색해 나감	한국에서 꿈을 펼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전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직업을 탐색해 봄	
내가 관심 있고, 좋아하는 일을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자 전공을 연결시켜 봄			
진로 검사 등을 통해 나의 흥미와 적성을 파악해 봄			
특성화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진로에 필요한 자격증을 준비함			
전공분야와 관련된 실습활동, 봉사활동 등을 통해 실무경험을 쌓고, 나의 흥미와 일치하는지 파악해 나감	한국에서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고자 노력함		
대외활동에 참여하며 꿈에 한 발 더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함			

자격증을 취득하며, 취업을 준비해 나감		
전공에 맞는 직업을 찾아보며, 진로를 구체화 해나감	장점과 전공을 살려 진로계획을 세워나감	여전히 낯선 곳에서의 불투명한
이중언어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살려 회사에 입사하고자 함		미래이지만, 결 나의 길을 과
졸업 후에도 다양한 시도를 통해 꿈에 더 가까이 가고자 함		찾기 위해
모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영어 등)를 꾸준히 하고자 계획함	계속해서 나의 꿈을 만들어감	한 걸음 내딛고자 함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탐색하며 진로 방향을 찾고자 함		

1)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갑작스럽게 한국에 입국하게 됨

가. 가족 문제로 어쩔 수 없이 한국에 입국함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갑작스럽게 한국에 입국하게 되었다. 이들은 부모님의 이혼 후 한국인 새아버지 혹은 새어머니와의 재혼으로 인해 새로운 가족이 있는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다. 부모님의 재혼으로 인해 본국에서 함께 지내던 조부모 친부모 또는 친척 등 가족과 계속해서 지내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하여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재혼으로 인해 한국에 먼저 들어가 지내고 있는 엄마 혹은 아빠와 함께 생활하기 위해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어머니가 먼저 한국으로 가서 생활하는 동안 본국에서 조부모 또는 아버지에 의해 양육되는 상황에 놓이면서, 주 양육자의 부재를 경험하기도 했다. 일부 참여자는 아버지와 함께 지내기 위해 한국에 들어오기도 하였다.

지금 아버지는 계부예요. 친아빠는 중국분이시고 아빠랑 엄마가 재혼 하시면서 한국으로 오신 거거든요. 엄마랑은 거의 10년 떨어져 지냈고, 한국에 왔다가 다시 절 데리고 왔어요. 저는 할머니랑도 지내봤고, 친아빠랑도 지내봤어요. (참여자 B)

제가 어렸을 때 엄마랑 아빠가 헤어졌어요. 엄마가 한국에 먼저 가서 살고 계셨고, 저는 베트남에서 아빠랑 같이 살다가 엄마가 한국분이랑 재혼하셔서 엄마 따라 한국에 오게 되었어요. (참여자 C)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부터 한국에서 돈을 벌었어요. 그동안 할아버지 할머니랑 지냈어요. 어머니가 여기 한국에서 재혼하시고 저를 한국에서 공부시키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셔서 여기에 오게 되었어요. (참여자 I)

나. 본국에서 학교를 다니던 중 한국에 입국함

연구 참여자들은 갑작스럽게 한국에 오게 됨과 동시에 본국에서 학교를 다니던 중 한국에 입국하게 되었다. 참여자별로 그 시기가 달랐는데, 초등학교를 다니던 중에 입국하거나, 중학교를 다니다가 오게되는 경우 또는 중학교를 마치고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가 있었다. 초등학교 시기에 한국에 오게 된 참여자의 경우에는 한국 문화에 장시간 노출된 만큼 한국어를 비교적 원활하게 구사하였으며, 중학교 시기에 입국한 참여자도 유사한 특징을 보였다. 중학교 졸업 후 한국에 입국한 참여자들의 경우에는 이미 모국어에 익숙한 상황으로 한국어 구사에 어려움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이는 개인의 성향과 노력 등에 따라 차이가 나기도 했다. 이들은 대부분 본국에서 학교생활을 마치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한국에 입국하게 되었다. 일부 연구 참여자들은 다문화 센터에서 한국어를 먼저 배우면서, 학교에 1~2년 늦게 입학하기도 하였다.

베트남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 와서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공부하고 졸업했어요. (참여자 A)

중국에서 중학교 3학년 때 한국에 왔어요. 일반 학교에 입학했다가 좀 힘들어서 위탁학교에 가서 1년 동안 다니고 다시 중3으로 들어갔어요. (참여자 B)

중국에서 초등학교 마치고 중학교를 한국에서 나왔어요. 다문화 예비학교에서 저를 담당하는 선생님이 제가 한국어가 아직 능숙하지 않다고 하셔서, 한국어를 배우다가 중학교에 한 2년 정도 늦게 들어갔어요. (참여자 1)

2) 진로계획이나 꿈이 없는 상태로 한국생활을 시작하게 됨

가. 내가 원하는 꿈에 대해 모르는 채로 한국생활을 시작함

연구 참여자들은 한창 자신에 대해 알고, 꿈을 탐색해야 할 시기에 가정의 변화와 갑작스러운 이주의 상황에 놓여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잘하는 지, 흥미와 적성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다. 목표나 구체적인 계획없이 그저 막연하고 추상적인 꿈들만 나열하고 생각해 보는 것이 다였다. 또한, 내가 누구인지, 스스로가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삶을 만들어 가고 싶은지 고민하고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 없이 한국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미래에는 그냥 재미있게 놀고 재미있게 살고 싶어요. 힘든 일 없이 살고 싶어요. (참여자 A)

중국에 살았을 때도 내 성격이 이런 직업에 맞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별로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참여자 B)

진로 쪽을 막 생각은 안 해봤어요. 가끔씩 내가 뭘 하고 싶을까 이렇게 생각은 했는데 꿈은 없는 것 같아요. (참여자 H)

나. 진로계획 없이 한국생활을 시작함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유년시절 진로 역할에서 핵심적인 모델인 부모님과 상황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지내게 되었다. 이로 인해 조부모 및 친척에게 맡겨짐으로써 진로자원을 충분히 제공받기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되었다. 한국에 와서도 마찬가지로 바쁜 맞벌이 부모로 인해 진로 자극이 부족한 환경에 놓여졌다. 그렇게 자신의 진로에 대한 방향성과 생각이 부재된 채로 한국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또한 한국어 및 한국 문화 등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에 급급한 상황에서 자신에 대해 충분히 고민할 여력이 없었다.

중국에 있었을 때는 꿈에 대해서 생각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쪽으로 생각한 적이 없어서 일단 공부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에 있는 학교에서도 진로에 대해서 딱히 가르쳐주지는 않았고 그래서 그냥 다니고 있던 학과 공부만 했어요. (참여자 B)

저는 딱히 꿈이 없었어요. 중학교 다닐 때도 졸업하고 한국으로 가니까 그 생각만하고 방향을 잡지 않았어요. 한국어를 아예 모르는 상태로 와서 고등학교 때는 거의 맨날 한국어 공부만 했어요. 일반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한국어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제가 처음 외국인이었어요. (참여자 D)

한국에 와서 한국어만 배웠어요. 한국어 교재를 가지고 하루 3시간, 9시부터 12시까지 하고 밥 먹고 중간에 한 30분 정도 쉬고 한 12시 반쯤에 집에 가요. 이후에 집에 가면 게임을 했어요. (참여자 I)

3) 언어 장벽에 직면함

가. 미숙한 한국어로 소통의 한계에 부딪힘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 입국 초기에 미숙한 한국어로 인한 의사소통에 가장 어려움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의사소통이 뜻대로 되지 않아 어려움을 느끼고 말을 점점 안 하게 되면서 무기력해지는가 하면, 미숙한 언어 실력으로 인해 자신감이 사라지고 위축되는 경험을 하였다.

한국어를 하나도 모르는 채로 왔어요. 처음에 왔을 때 언어 때문에 많이 울었는데 그때 스트레스 너무 많이 쌓여서 응급실을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황장애 걸려가지고, 그 이후로는 딱히 우는 것보다 그냥 말이 점점 없어졌어요. (참여자 B)

제가 원래 내성적인데, 성격이 더 소심해졌어요. 말을 못하다 보니까 자신감도 없고, 한국어를 못하다 보니까 한국어 하는 거 아예 포기했어요. 예를 들면 편의점 가면은 말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사고 싶은 거 꺼내기만 하고, 봉투 드릴까요? 물어보면 쉬운 말로 대답만 해도 되잖아요. 근데 저는 ‘예, 아니요.’까지도 말을 하기 싫었어요. (참여자 I)

나. 학업에서 어려움을 겪음

연구 참여자들은 미숙한 한국어로 인해 학업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서툰 한국어로 인해 수업을 따라가는 것이 어려워지고, 이해가 가지 않는 수업에 흥미를 잃어가며, 자연스럽게 학업 성적이 떨어지는 경험을 하였다. 이들은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다 보니 혼자 공부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끼고, 한국에서의 학업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시험 볼 때도 뭔가 노력한 만큼 성적이 진짜 안 나오고 그래서 뭔가 좀 내가 이 정도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쌓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학교를 옮겼어요. (참여자 B)

학교에서 대부분 전문 어휘를 쓰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수업도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중략) 한국어 때문에 대학교 진학결정하는 데에 어려웠어요. 외국인 중에서 한국어를 못하는 편은 아니지만 한국인과 생활하는 데에 당연히 쉽지 않죠. 학교에서 수업을 다 이해하지도 못하는데, ‘대학교 가면 돈 아깝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국은 도전해 보기로 결정했어요. (참여자 C)

아무래도 알아듣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선생님이 수업을 가르칠 때 집중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친구들이랑 대화하는 거랑 수업 듣는 거랑 많이 달라요. 그리고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점수가 안 나오다 보니까 되게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공부가 진짜 안 맞는구나 싶었는데 중학교를 졸업하고 어느 순간에 보니까 벌써 고등학교에 가야 되더라고요. (참여자 G)

다. 친구를 사귀는 데 어려움을 겪음

연구 참여자들은 교우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친구들과 대화를 할 때에도 말하는 것이 서툴러서 자신을 어린아이처럼 대하는 친구들에게 묘한 감정을 느꼈으며,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지 못하는 점에서 자신감이 떨어지거나 소심해지고 친구 사귀는 것이 어려워 혼자 다니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이들은 주변 친구들과 깊이 있게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며, 솔직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친구가 없어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친구들이랑 대화 할 때도 듣는 거는 그나마 괜찮은데, 말하는 것만 서투니까 근데 애들은 거의 다 뭔가 저랑 대화할 때 애기랑 대화하는 수준으로 얘기해 주니까 뭔가 좀 그랬어요. 그리고 친구들이랑 관계에서도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참여자 B)

그때 다문화 예비학교라고 한 10개월 정도 다니고 한국어 배우면서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해서 학교로 가게 됐는데 그때도 친구 없죠. 뭔가 말도 안 통해서 혼자 다니고. (참여자 I)

모든 친구들한테 환영받는 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도 대부분의 친구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좋아해줬던 것 같은데, 일부는 좀 상처되는 말 했던 경우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애초에 친해지지 못했던 친구들도 있어요. (참여자 J)

4) 출신국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경험함

가. 출신국에 대한 부정적 시선으로 인해 주눅들음

일부 참여자의 경우 우리나라에 자리 잡은 출신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출신국을 밝히기가 꺼려진다고 진술하였으며,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스스로가 위축되며,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고 눈치 보게 된다고 고백하였다.

출신으로 인해 주눅 드는 것도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도 아니고 중국이라는 나라는 지위적으로 그렇게 형편이 좋은 나라가 아닌 건 맞으니까 아직까지도 좀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도 대부분은 제가 중국 사람이든 아니든 저랑 친구해주고 저를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서 괜찮다가도 제 스스로 출신 때문에 위축되게 만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제 마음을 좀 힘들게 하는 요소는 그게 지금 제일 큰 것 같고..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기보다는 점점 더 그렇게 안 좋게 되니까 저는 고향을 공개하는 것도 되게 어렵거든요. 그냥 중국 사람인 거는 다들 아는데 제가 연변에서 오고 이런 걸 공개하는 것도 사실 너무 어려워서 그렇게 위축되어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연변에서 왔다는 걸 알게 됐을 때 그들의 반응은 어떨지 모르겠고 고등학교 때는 물어보는 사람들에게는 대답을 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너무 반응이 안 좋아가지고. (참여자 J)

나. 사람들이 외국인으로 생각해 거리두는 경험을 함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 국적을 취득했음에도 외국에서 왔다는 이유로 친구들이 도와주지 않으려고 하거나, 거리를 두는 것을 느끼기도 하였다. 또한, 발음이 서툴다는 이유로 주변에서 외면과 비웃음을 받기도 하였으며, 말투와 외모가 다르다는 이유로 주변의 불편한 시선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안 그래도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외국인이니까 뭔가 나랑은 다르다는 생각을 하는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뭔가 거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친하면서도 살짝 거리감 같은 걸 느끼긴 해요. (참여자 B)

한국인 친구들은 주로 한국 친구들끼리 어울리고요. 외국인이랑 어울리면은 특히 수업에서 많이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솔직하게 말하면 좀 친절하지 않은 느낌이에요. (참여자 C)

가장 어려웠던 건 역시 언어죠. 일단 제가 조선족 출신이라 어떤 한국어 정도는 좀 아래인데요. 사투리가 좀 심해서 그 발음이 좀 문제가 있어서 주변에 친구들이 좀 웃고 그러고 그런 기억이 있었죠. (참여자 E)

5) 한국문화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함

가. 출신국과의 문화적 차이로 인해 적응이 어려움

연구 참여자들은 출신국 환경과 다른 교통시설, 쇼핑, 분리수거 등 한국의 일상생활 속에서 어려움을 느끼거나,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존댓말을 사용하는 한국 문화가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였다.

마트 계산할 때 할인 카드 달라고 해서 당황했던 기억이 있어요. 쓰레기도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 몰라서 모든 것들 배워야 하는 느낌. (참여자 A)

문화차이에 그때는 익숙하지 못해서 좀 어려웠어요. 예를 들어서 교통 방향이 다르고, 한국인과 밥 먹을 때 저희 아빠가 한국인이잖아요. 그래서 밥 먹을 때도 뭔가 달랐고, 그리고 생활하는 방식이 좀 달라서 좀 어려웠어요. (참여자 C)

언어도 안되고 음식도 안 맞고 조금은 힘들었어요. 음식도 적응이 안되고 무엇보다도 그때 바로 학교에 들어갔었거든요. 친구 사귀는 것도 되게 어려웠어요. 문화도 다르고, 그리고 한국은 되게 나이를 중요시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적응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참여자 G)

나. 문화적 차이로 인해 오해받는 경험을 함

연구 참여자들은 어른들에게 물건을 건넬 때 두손으로 건네는 등 예의를 중요시 하는 한국 문화가 낯설게 느껴져 적응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로 인해 종종 오해를 받는 경험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국어 구사의 어려움 등으로 이러한 오해를 풀지 못하여 억울한 경험을 하기도 하였다.

처음에 한국에 들어와서 존댓말 같은 거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뭐를 하든지 이렇게 두손으로 주잖아요.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좀 어려웠어요. 중국에는 그런 거 없거든요. 그냥 한손으로 이렇게 하는데, 오해를 받아 혼나기도 했어요. (참여자 E)

중국에서는 인사를 잘 안하는데, 한국에서는 만날 때마다 인사를 하는 예절이 있어서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참여자 I)

6) 진로정보 부족으로 진로탐색에 어려움을 겪음

가. 한국의 입시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함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의 입시 환경에서 낙동강 오리알과 같은 경험을 하였다. 특히, 미숙한 언어로 인해 스스로 한국 대학 진학 정보를 찾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다. 한국의 대학교에 어떠한 학과가 있는지 잘 모르고, 어떠한 절차로 입학하게 되는지 정보가 부족하여, 그저 학교 선생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무기력하고 수동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뚜렷한 목적없이 주변에서 대학을 다들 가는 분위기에 휩쓸려 대학 진학을 결정하기도 하였다.

시간이 좀 많이 걸렸었던 것 같아요. 어떤 걸 해야 될지 처음에 잘 몰랐어요. 학교 진학하기 전에도 학교 들어가서 길이 생기겠지 그 생각만 하고 들어왔는데, 무역하는 것도 이번 연도에 정한 거예요. 쉽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 D)

저는 계속 학교에서 하라는 대로만 해가지고 진로 쪽으로 딱히 생각을 안해봤어요. 졸업하고 나서 아직 뭐를 할까 생각한 거 없는데 아마 학교에서 정해지는 그런 진로에 따라서 취업할 것 같고. (중략) 제가 원하는 건 없어요. 저는 이 학과를 전공 할 수밖에 없어가지고요. (참여자 H)

그냥 잘 모르니까 선생님이 알려주시겠지 하고 의지하게 되는 것 같아요.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지도 않고 정보도 잘 찾아보게 되지도 않고, 그냥 원서만 넣으면 합격하는 줄 알았어요. 무슨 과가 있는지도 모르고, 대학과 관련된 것들은 거의 다 몰랐어요. (참여자 I)

나. 부모로부터 진로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고 방치됨

연구 참여자들은 뚜렷한 방향성의 제시 없이 대학은 나와야 한다는 부모님의 막연한 대학 진학 권유에 동기부여가 결여된 채로 대학진학을 결정하게 되었으며, 일부 참여자는 부모님의 추천 직업과 자신의 희망직업이 다르거나 반대를 겪어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대부분은 부모님이 하고 싶은 것을 하라는 막연한 지도에 답답하고 막막한 심정을 토로하였으며, 이들은 한정된 직업군에 종사하는 부모로부터 직업군의 다양성과 본보기를 경험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하여 다양한 직업세계에 대한 탐구가 부족했다고 보인다.

부모님은 그냥 저보고 알아서 하라는 말 뿐이어서, 그러니까 저는 약간 조언 같은 거 받으면 더 좋을 텐데 부모님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준다고 이렇게 하시니까 잘 모르겠어요. 부모님은 그냥 대학교만 나오면 다 괜찮아. 그냥 일단 가는 게 좋다고. 저는 선택을 잘 못하는 성격이어서 그래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부모님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소리만 하니깐 그것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말만 해주니까 뭔가 서운한 마음도 있긴 해요. (참여자 B)

아직까지 한국에서 대학교 나오면 더 잘 된다는 인식이 있잖아요. 그리고 부모님도 약간 옛날 사람이잖아요. 무조건 대학교 가라고 무조건 졸업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도 좀 배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니게 됐어요. 저는 체육쪽으로 대학 가고 싶었는데 어머니가 반대하셨어요. 뭔가 체육은 어릴 때만 할 수 있고 이거 그렇게 잘 되는 것도 어렵고 다른 거 배우면 훨씬 좋다고 해서 그래서 어머니가 반대하시니까 더 이상 안 물어보고 제가 알아서 과를 선택했어요. (참여자 1)

다. 국적 변경으로 대학 입학의 문턱이 높아짐

연구 참여자들의 대부분은 한국인 아버지에게 입양이 되고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서, 대학 입시에 보다 유리한 외국인 특별 전형에 지원할 수 없게 되었고, 대학 전형에 어려움을 느껴 귀화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을 토로하였다. 이로 인해, 선택할 수 있는 학교와 학과가 제한되어 대학 입학의 문턱이 높아짐을 경험하였다. 또한, 이들은 다문화 전형에도 지원할 수 없는 조건으로 한국 국적의 일반 학생들과 경쟁해야 하는 입시환경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대학교 입시할 때는 저의 성적을 계산하고 저는 한국인이라 외국인 전형 아예 안 돼서 여러 군데를 알아보면서 일반 전형에서도 특기자 전형 이런 거 막 찾고 이렇게 자소서 쓸 때도 많이 더 도와주셨었어요. (참여자 B)

저는 대학 입학하는 게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2년 쉬었다가 지금 대학교에 들어갔고 고등학교 때는 저는 외국 국적인데 아빠는 한국 국적이고 엄마는 외국 국적인데 외국인 전형을 못 썼어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도 계속 대학교 가려고 이것저것 다 찾아봤는데 조건이 안 맞아서 어쩔 수 없었어요.

귀화를 하고 나서 좀 후회하고 약간 안타깝다고 느꼈어요. 외국인 전형은 좋은 대학도 갈 수 있고 선택 범위가 크니까 그게 많이 아쉬웠어요. 귀화를 하고 나서는 선택할 수 있는 학교도 많이 줄어들었고 과도 중국어과밖에 안 되고.. (참여자 D)

귀화하면서 외국인 전형으로 진학하지 못해서 고등학교 때 많이 아쉬웠죠. 지금 생각해도 미련이 조금 남아요. (참여자 G)

7) 낯선 나라에서 나의 길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함

가.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로 인해 막막함

연구 참여자들은 갑작스러운 한국 입국, 가족구조의 변화 또는 대학진학 등 갑작스럽게 변화된 환경에 적응해야 했다. 부모님의 이혼과 재혼으로 형성된 복합적인 가족구조에서 분노를 느끼기도 하였으며, 일부 참여자의 경우 대학에 진학하며 용돈이 끊기기도 하였다. 이들은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불안함을 느끼고 있었다.

친아빠, 새엄마, 형이랑 4명에서 살고 있는데, 형은 새엄마 아들이에요. 친누나는 한국 분이랑 결혼하고 애도 낳고 따로 살고 있고, 형이랑은 소통을 거의 안해요.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중략) 가족들과 헤어질 때가 많았고 성격도 이렇다 보니까 교류도 별로 안 해요. 어릴 때 여기저기 너무 많이 옮겨 다니고, 외할머니랑 살다가 삼촌이랑 살다가 계속 가족이 바뀌기도 했고요. 가끔 가족이 뭔가 생각해요. 가족보다 제 자신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략)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집에서 저한테 돈 이제 안 주겠다 하셔서 용돈도 끊겼어요. (참여자 E)

대학교 진학에 있어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귀화를 해서 한국 국적인데 공부도 열심히 안 했고, 내가 대학교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략) 고등학교 때는 담임 선생님이라는 존재가 있었잖아요. 다 챙겨주시고 했었는데 대학교 와서는 점수도 혼자서 체크해 봐야 되고, 또 대학생이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제 자취할 방도 구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가장 힘든 게 세 끼를 먹는 거거든요. 밥을 해주는 사람도 없기에 좀 힘든 것 같아요. 돈이 별로 없으니까 먹는 것도 한계가 있고. (참여자 G)

생각보다 대학교 생활이 어려워요. 대학교는 다 스스로가 해야 되니까요. 고등학교는 담임 선생님이 챙겨주셔서 조금 편했던 것 같아요. (중략) 아는 사람도 없고 계속 부모님이랑 같이 살다가 갑자기 혼자 여기에 왔으니까 뭔가 좀 심심하기도 하고 보고 싶기도 해요. 배우는 것도 어렵고, 학점도 생각보다 많이 채워야 해서 잘할 수 있을까? 졸업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이 있어요. (중략) 지금 자취하고 있거든요. 자취도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요. (참여자 H)

나. 정체성 혼란으로 인해 진로탐색을 미루게 됨

연구 참여자들은 귀화를 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시선으로 인해 자신을 외국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들은 스스로가 한국인도 외국인도 아닌 중간지점에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혼란 속에 진로탐색을 미루게 되었으며, 한국에서 평생 자리잡고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었다.

안 그래도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외국인이니깐 뭔가 나랑은 다르다는 생각을 하는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뭔가 거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중략) 제가 보기에든 외국인 맞으니까 (참여자 B)

저는 귀화했지만 원래는 외국인이잖아요. 근데 아마 다른 외국인이랑 경쟁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해서 베트남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중략)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좀 많이 걱정했어요. 한국 생활 적응하기 힘들까 봐, 한국어를 배우는 게 어려울까 봐. 그래서 베트남 고등학교 교과서까지 챙겨와서 혼자 공부했어요. 적응 못 하면 베트남으로 다시 돌아가려고요. (참여자 C)

다. 입국으로 인해 지금까지 꿈꿔온 직업을 접고 현실과 마주함

연구 참여자들은 다른 청소년기의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꿈들을 고려하거나 혹은 진로결정을 유보한 상태로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다. 일부 참여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바로 취업을 해야했으며, 독립해야 하는 상황에서 진정한 의미의 꿈을 찾기보다는 연봉을 많이 주는 직업을 고려하기도 하였다.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친구들과 경쟁하기하는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도 하였으며, 어린시절 막연하게 꿈꾸던 것들은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현실과 타협하는 과정을 경험하였다.

베트남에 있을 때는 관광 가이드가 되고 싶었어요. (중략) 한국어 선생님이 되는 거는 꿈이라기보다는 그냥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전공이 맞고 괜찮다고 생각해서, 지금 다시 관광 가이드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공부하면 좀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래서 관광 가이드 포기하는 거예요. (참여자 C)

가정 문제가 있었어요. 좀 어려운 편이라서 힘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엄마만 일하고 아빠는 그때 일을 계속 하다가 그만두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빨리 돈을 좀 벌어야 되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장 쪽에서 알바를 했었거든요.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현장에서 일을 하니깐 내가 공부를 해서 졸업해야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느껴졌어요. (참여자 D)

중국에 있었을 때 그때는 디자인 쪽으로 가고 싶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고 나중에 커가지고 디자인도 좋고 제가 지금 중국어를 배우고 있는데 나중에 그쪽으로 취업하면 조금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쪽으로 가는 게 저한테도 안 맞는 것 같아서 (참여자 H)

라. 진로 방향에 대한 도움의 손길 없이 스스로 헤쳐 나감

연구 참여자들은 대부분 부모님의 진로 정보 부재로 인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었으며, 그로 인해 스스로가 정보를 알아보는 등의 자신만의 진로 개척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 해결을 위해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해 나가고 있었다. 이들은 생계를 이어나가야 하는 바쁜 맞벌이 부모로부터 정서적인 돌봄을 충분히 받지 못하여, 학교 선생님 또는 형제, 자매, 친구들에게 의지한 채로 진로 방향에 대한 도움의 손길 없이 스스로 헤쳐나갔다.

고민 있을 때는 혼자 알아서 해요. 엄마는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동생도 있고 엄마는 첫째 딸이라 외할머니, 외할아버지한테 매달에 용돈을 줘요. 그래서 엄마한테 용돈을 안 받았어요. 알바하고 살고, 식비 이런 거 다 제가 내는 돈이에요. 엄마인데 뭔가 안 친하고, 고민이 있었거나 스트레스 있으면 아직도 엄마랑 말하는 건 좀 어려워요. 선생님이랑 하는 게 좀 괜찮다고 생각해요. 엄마한테는 부탁 안 하고 싶고 그런 것도 있어요. (참여자 A)

직접 자료를 찾아보고 그래요. 일단 관심 있는 직업에 대해 찾아보는 거죠. 예를 들어 네이버 찾아보고, 어떤 일을 하는가, 이 일을 하기 위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어떤 자격증이 있는지 그리고 관련된 전공이 있는가 그런 거 다 찾아보는 거죠. (중략) 제가 고등학교 3년간 반장 역할을 하기도 했고 주변에 선생님들도 도움을 많이 주셨고 고등학교 때 저의 성격 문제를 좀 극복을 했죠. (참여자 E)

저는 편의점 알바도 하고 무대 스태프라고 해야 하나요? 그걸 하고 있어요. 다행히도 여기 무대 행사 준비하시는 사장님과 친해져가지고, 일 있을 때마다 저한테 연락하거든요. 와서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 돈도 넉넉히 챙겨주시고 그래서 한 달마다 한 80~90만 원 정도 벌고 있어요. (참여자 G)

8) 주변 사람들(부모님, 친척, 선생님, 교수님, 친구 등)의 도움(진로 정보 제공, 상담)을 받음

가. 부모의 가이드로 진로결정에 도움을 받음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부모로부터 진로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여 어려움을 경험하였으나, 일부 참여자들의 경우 부모의 지지를 통해 응원을 받거나, 적극적인 진로개입과 방향성 제시로 진로결정과정에 도움을 받는 등 긍정적 영향을 받기도 하였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녀의 학비를 지원해주고 계셨다.

엄마가 저 중학교부터 대학 가는 길도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친구들은 대학에 많이 안가도 나는 꼭 가야겠다 생각했어요. 혼자 어렵긴 한데 엄마 용기 받고 갔어요. (중략) 학비는 엄마가 내주세요. (참여자 A)

부모님도 취업보다는 대학교 좀 더 선호하는 편이어서, 학비도 다 해주셔요. (중략) 부모님이 사업을 하시는데 저도 생각을 해본 적 있죠. 그런데 제가

잘 못할까 봐 그래서 지금 그냥 생각만 하고 있어요. 뭔가 어려우면서 복잡할 것 같아서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저보고 힘들까 봐 하지말라고 해요. (참여자 B)

생각해 보면 저희 아빠가 많이 도움을 주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정말 중학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대학교까지도 계속 저한테 이렇게 말하거든요. 시험 자격증 뭐 뭐 따라. 그리고 언제 언제 준비해라 이런 식으로 계속 저한테 정말 끊임없이 알려주세요. (중략) 제게 맞는 대학교를 찾아주시고 뭐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알아봐 주시고 이게 맞다 싶으면은 너 여기로 가라 이런 식으로 저한테 추천을 해주시거든요. 외사 경찰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외사 경찰 지역 조건을 보면은 외국에서 4년 살다 오거나 아니면은 외국어를 배우는 대학교를 졸업해야 되는데요. 이것도 처음에 아빠가 찾아줬어요. (중략) 저희 아빠는 나이가 들어서도 자격증 공부를 하거든요. 제가 알기로 지금 국가 자격증 한 3개 더 났을 거예요. 맨날 도서관 가고 한 5~6시간 쉬는 날마다 그렇게 공부하더라고요. 나이를 먹고도 열심히 하는데 나도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나. (참여자 G)

나. 친척의 지지 및 조언이 있었음

연구 참여자들은 일부 친척의 지지와 조언을 진로 결정 과정에 참고하기도 하였다. 부모의 진로 역할 부재가 있는 경우 다른 가족이 그 역할을 대신해 주기도 하였으며, 한국에 같이 살고 있는 사촌의 영향을 받아 진로를 고려하거나 대학 생활에 대한 조언을 얻기도 하였다.

대학교에서는 고등학교 선생님처럼 꼼꼼하게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고등학교 때 공부는 두 배 노력하고 있었는데 대학에 들어가면 10배 더 노력해야 된다고, 대학교 생활 이런 거 사촌 언니가 알려줬어요. (참여자 C)

진로에 대해 많이 고민을 해가지고 여기저기 다 찾아보고, 가족들 중에 무역쪽에서 일하는 사촌언니가 있는데 언니한테도 많이 배울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참여자 D)

첫 지망은 정치 외교학과였어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정치, 역사, 외교 쪽에 흥미가 많았어요. 책도 많이 읽었고요. 근데 그때 제가 고모랑 상담을 했는데, 정치외교학과 가지 말고 무역학과 다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흑시라도 중국에 돌아갈 일이 있으면요. 그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데요. 제 고모는 그냥 한국에서 무역과 다니고 졸업하고 취직해서 그냥 조용히 살아가라 이런 뜻이죠. 정치 같은 거 생각하지 말라고. 고모가 80년대 때 일본에 유학을 갔고요. 그때 무역쪽으로 배우셨데요. 국내로 돌아와서 선생님이 됐고요. 나중에 심양시의 상무부에 취직하셨어요. (참여자 E)

다. 고등학교 때 선생님을 통해 진로 정보를 얻음

연구 참여자들은 대학 진학 시기에 만난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들을 통해 진로 정보를 얻었다. 상담을 하며 대학 입학 전형에 대해 탐색해 나가고, 수업시간 등을 통해 어떤 직업들이 있는지 배워나가며 자신들의 진로 결정에 참고해 나갔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나중에 뭐 하고 싶은지 이런 물어봐 주시고 어느 쪽에 관심이 생겼다면 그쪽으로 도와주세요. 수업할 때 조금씩 알아가고 배우면서 직업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담임 선생님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제가 대학교 입시 성적 계산하고 저는 귀화해서 한국인이라 외국인 전형 아예 안 되고 그래서 여러 군데를 알아보면서 일반 전형에서도 특기자 전형 이런 거 막 찾고 자기소개서 쓸 때도 많이 더 도와주셨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항공 서비스 수업할 때 지상직 승무원 있다는 거 알고 그래서 그쪽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대학교 와서 관광통역안내사를 알게 되어서 그래서 그쪽으로 공부를 하고 지금 생각도 하고 있어요. (참여자 B)

학교에서 많이 들었어요. 진로 탐색 수업 같은 거 직업에 대한 거 다 많이 소개해 주고 (참여자 D)

3학년 담임 선생님이 대학교 찾아주시고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대학교 다닐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해요. (참여자 G)

저는 그래도 저희 담임 선생님도 좀 그런 입시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도 있었고 (참여자 J)

라. 대학교 교수님과 상담함

연구 참여자들은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대학 교수님을 통해 진로 정보를 얻었다. 대학 교수님이 전공과 관련된 실습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참여자들은 현장 실습의 기회를 얻었으며, 상담을 통해 진로와 관련된 필요 자격 및 자격증 등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저는 졸업하면 바로 일하고 싶어요. 지금도 어떤 거 더 잘 어울릴까 하고 여름 방학 때 호텔에 좀 다녀봤어요. 체크아웃 실습 교수님한테 추천을 받았어요. 이번에는 면세점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명동 쪽에 백화점 있잖아요. 인사하고 차도 갖다주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중략) 지금 다니는 대학교는 전문대학교예요. 많이 배우는 것보다 나가서 직접 하는 거 많이 하라고 해서 그거는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험이 없으면 어렵긴 한데 경험이 많으면 면접 볼 때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학과에서 나가는 거 추천을 많이 해줘요. (참여자 A)

대학에 들어와서는 교수님들이랑 좀 상담도 많이 했고요. 교수님이 학생은 앞으로의 가능성이 더 많다고 나라면 충분히 해외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해주셨죠. (참여자 E)

학교에 친한 교수님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언어를 하나 더 배우라고 그리고 저는 중국에서 취업하는 것도 좋다고 했어요. 중국에서 한국이랑 무역하는 그런 회사에 취업하는 것도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무역통상 쪽으로 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참여자 H)

마. 친구의 진로결정과정을 보고 참고함

연구 참여자들은 친구들과 진로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얻고 학과 전공을 결정하기도 하였으며, 주변 친구들의 노력과 열심을 보며 동기부여를 얻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받는 경험을 하였다.

친구들이 다 열심히 살고 있더라고요. 친구들이 다들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에 많이 영향 받았어요.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참여자 D)

친구가 무역은 어떻게든 취업은 될 거다. 보니까 무역은 경영학도 조금 배우고 회계도 조금 배우고 여러 가지 조금씩 배우니까 또 만약에 진로 바뀌더라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 따라 갔어요. (중략) 복습하고 PPT 열심히 보고 그랬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확실히 차이가 엄청나요. 레포트하고 한국 학생들 한국어 잘하니까 발표하는 것도 되게 자신감 있고 되게 있어 보였어요. 한국 학생들 하고 경쟁을 해야 많이 배우고 제 능력을 키우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참여자 I)

바. 친구가 직접적으로 진로결정과정을 도와줌

연구 참여자들은 진로특강이나, 혹은 주변에서 만나는 졸업한 선배들의 조언을 자신의 진로결정에 참고하기도 하였으며, 주변 친구들과 직업 정보를 교류하며 진로결정과정에서 도움을 받기도 하였다.

전산회계 자격증은 회계나 경영 쪽으로 가는 그런 자격증이긴 해요. 실습이랑 필기 다 있고, 전에 학교 다녔던 친구가 소개시켜 줬어요. 그 친구는 경영 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저도 경영쪽으로 따기 쉬운 자격증을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전산회계라고 얘기를 해서 저도 하고 싶어졌어요. (참여자 B)

제 친구가 학과 분야가 좀 많아요. 어떤 애는 전자학과 다니고, 또 컴퓨터 엔지니어인가 그리고 연구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 정치 외교학과 다니는 친구도 있고 사람의 인맥이죠. 서로 간에 정보를 좀 교환하고 어떨 때는 무슨 소식이 있으면 알려주고 앞으로 취직에도 도움이 되겠죠. 미래 생활하면서 (참여자 E)

9) 사회적 자원(다문화 센터, 대학교 일자리 센터)에서 지원을 받음

가. 다문화 센터의 지원이 있었음

연구 참여자들은 대부분 입국 초기 다문화 센터에서 한국어 집중 교육을 이수하였다. 센터에서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에 대한 교육도 진행되었으며, 진로와 관련된 상담도 진행되었다. 또한, 다문화 센터에는 연구 참여자들과 같은 상황에 놓인 여러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과 교류하는 등 초기 정착에 많은 도움을 받는 경험을 하였다.

처음에 일반 중학교 들어왔는데 말이 안 통해서 다문화쪽에서 배우다가 다시 일반 학교로 돌아갔어요. 베트남 사람도 여러 명 있어서, 말이 어렵지 않고 선생님들이 엄청 많이 도와줬어요. 다문화 센터에서 제가 다닐 수 있는 다문화 고등학교를 소개해 줬어요. 거기에서도 많이 배웠어요. (참여자 A)
처음에는 센터나 학원에 다녔어요. 가나다라 같은 거 배우고, 학교에 들어가긴 했는데 따라가기 힘들어서 위탁학교 같은 걸 다녔었어요. 다니면서 한국어도 배우고 지식도 배우고 그렇게 다녔던 것 같아요. (참여자 B)

한국에 와서 6개월 정도 센터에 다녔어요. 일주일에 세 번 정도 가면서 한국어 수업 들었어요. 센터에서 고등학교도 소개시켜 줬어요. (참여자 C)

나. 대학교 일자리 센터의 지원이 있었음

일부 연구 참여자의 경우 대학교 내에 있는 일자리 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일자리 센터에서 진로와 관련된 상담을 통해 진로와 관련된 준비를 보다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경험을 하였다.

저는 학교 대학 일자리 센터에서 주로 상담을 받았어요. 제가 무역 회사 가고 싶잖아요. 뭐 준비를 이거 했으면 더 좋겠다. 이런식으로 알려주시고, 무역 인재 양성 과정 수업이랑 무역 마스터 같은 거 추천해 주셨어요. (참여자 D)

10) 한국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함

가.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습득함

연구 참여자들은 스스로 한국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였는데, 다문화 센터, 위탁학교, 학원 등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공부하였으며, 예능

프로그램이나 드라마를 보며 한국어 표현 및 한국 문화를 자연스럽게 습득하기도 하였다. 친구들과 교류하며 한국 문화를 습득하기도 하였으며, 참여자 대부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익숙해지는 경험을 하였다.

한국 드라마 보면서 한국어 공부가 됐어요. 학원 다니고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성적 관리하고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는 걸 제일 많이 했어요. (중략) 집에 와서 수업 이해 못하는 거 번역하고 궁금한 거 다시 복습했어요. (참여자 C)

존댓말 같은 거는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여기서 살았으니까 점점 적응이 되더라고요. (중략) 하루에 책을 5~6권씩 쓰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맨날 아빠한테 검사받고 2년 동안 노력을 하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거를 제가 알아듣더라고요. 소통이 조금씩 가능해지니까 점점 친구들이 생겨서 같이 놀고 했어요. (참여자 G)

고등학교에 외국인이 많았어요. 중학교 때는 주변 다 한국 사람들이니까. 제가 한국어 가장 못해요. 고등학교 오니까 저보다 한국어 못하는 친구들 좀 있어서 자신감도 조금 생기더라고요. 또 제가 좀 잘하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이 제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때 자신감이 좀 생기고 또 말을 좀 하기 시작했어요. (참여자 I)

나. 아르바이트를 통해 한국 사회를 경험해 봄

연구 참여자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마련하기도 했지만, 일부 연구 참여자들의 경우 자신의 흥미 및 전공과 관련된 아르바이트를 통해 하나의 작은 사회를 경험하고 있었다. 이 경험을 통해

자신의 적성과 잘 맞는지 더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으며, 자신의 진로와 연결시켜보는 경험을 하였다.

저는 카페에서 알바하고 있어요. 서비스하면 제 기분도 좋아하고 고객님들도 기분이 좋으면 저도 기분이 좋아요. 고객님이 만족하는 거 저도 만족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호텔 경영 저랑 맞는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A)

작년 겨울방학 때 지인을 통해서 무역회사에서 알바를 했었는데 거기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잘 맞아가지고 나중에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많이 어려운 것 같아서 할 수 있을지 몰랐어요. 해보니까 괜찮았어요. (참여자 D)

서빙을 해보니까 몸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더라고요. 사람 대하는 거 좀 힘들더라고요. 제가 말을 못하는 성격이라 다른 친구보다 실수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중략) 무역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잖아요. 지금 생각하는 게 사무직인데 주로 바이어하고 이메일로 교류하는 그런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직접 만나서 하지 않고 이메일로 해결하니까 심리적인 부담도 좀 많이 줄어들 것 같고요. (참여자 I)

11) 낯선 곳에서의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나만의 방법을 찾아봄

가. 취미를 통해 외로움을 견뎌나감

연구 참여자들은 낯선 한국 땅에 들어와 대부분 외로움을 경험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반려동물을 키우거나 게임을 하며 어려운 마음을 달래기도 하였다.

친구가 없으니까 혼자 다니고 집에 하루 종일 있고 컴퓨터 게임하고, 그래도 게임하면서 한국어로 채팅하니까 많이 배우게 됐어요. (참여자 I)

외로운 감정이 컸던 것 같고요. 일단 복잡해서 근데 또 집에 고양이를 키웠어가지고 그 부분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저는 오히려 같이 살다가 혼자 사니까 좋았었어요. (참여자 J)

나. 신앙을 통해 외로움을 견뎌

일부 연구 참여자는 종교에 의지하며, 신앙을 통해 외로움을 견뎌내기도 하였다.

제가 크리스천이고 신앙이 있는데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종교적인 압박이 심해졌다 보니까 만약에 중국에 있었다면 제 신앙생활도 사실 보장이 안 되는 거였다고 생각해서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배도 잘 드릴 수 있는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자 J)

다.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외로움을 견뎌

연구 참여자들은 센터에서 만나는 친구들, 사회생활을 통해 만나는 사람들, 대학교 친구들, 고등학교 친구들 등 사회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나가며 외로움을 견뎌나가고 있었다.

제 친구들은 거의 다문화 친구들이에요. 센터에서 만난 선배들도 많았고, 친구의 친구 이렇게 아는 분도 계셨고요. (참여자 B)

성격이 내성적인데 친구들이랑 친해지기도 힘들고 말도 잘 못하니까요. 제일 고마운 게 친구들이 먼저 다가와줘서 더 빨리 친해졌고 저도 덕분에 말도 많이 배웠었고 많이 활발해진 것 같아요. (참여자 D)

센터에서 만난 친구들도 있었는데 한국 온 지 얼마 안 돼서 같이 차이나타운도 가고 놀았어요. (중략) 알바하면서, 활발한 친구들도 많이 만났어요. 사장님한테도 많이 배웠고요. (참여자 I)

12) 이중 언어의 장점을 살리고자 함

가. 외국어 특기자 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함

연구 참여자들은 이중언어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였다. 특히, 중국 출신 배경을 갖고있는 참여자들의 경우 중국어 시험 HSK 자격을 취득하여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외국어 특기자 전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대학교 못 갔다가 계속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알바를 하면서 차이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학교 가야겠다. 저도 다시 입시 준비하고 중국어 특기자 전형으로 여기 학교 들어가서 그때 귀화도 한 상태라서 더 쉬웠어요. (참여자 D)

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HSK라는 자격증이 필요한데 제가 중국어도 잘 못하는 상태에서 중국어 학원을 다녀서 2개월 공부하고 HSK 5급을 취득했던 기억이 있네요. (참여자 G)

중국어 잘하니까 HSK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걸 지원해 봤어요. (참여자 H)

나. 이중 언어를 살려 전공을 결정함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이중 언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분야로 전공을 고려하였다. 참여자들의 모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전공(관광, 무역, 한국어 등)을 고려하며 전공을 결정하였다.

아무래도 지금 하고 싶은 거 다시 공부하려면 한국어로 부족하니까 어려울 것 같아서 한국어 더 깊게 공부하려고 한국어 교육과를 선택했어요. 공부하다보니 저랑 맞으니까 계속 하고 싶게 됐어요. (참여자 C)

제가 중국 쪽에서 살다 왔으니까 중국말이 편하고 그리고 한국에 온 지 13년이 되어가지고 중국에 있는 역사도 거의 모르죠.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 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어를 다시 공부할 겸 역사도 한 번 더 공부하고 싶어서 선택했습니다. (참여자 G)

저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학과가 좀 무역학과에 가깝다라고 생각했고 아무래도 무역이라는 학과는 또 언어적인 부분도 성장할 수 있고 또 경제적인 부분도 배우고 경영도 배우고 이렇게 나라와 나라 간의 상품을 이렇게 유통하는 부분도 배우고 저는 이 상경계열이 좀 끌렸는데 그중에서 무역학과가 저랑 되게 잘 맞을 것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참여자 J)

13) 한국에서 꿈을 펼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전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직업을 탐색해 봄

가. 나를 알아가며 전공을 탐색해 나감

연구 참여자들은 지금까지 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성격과 잘 맞을 것 같은 진로를 고려하거나, 관심 있고 좋아하는 일을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자 전공을 선택하기도 하였다. 친구들을 도와주고 통역해주면서 자신감을 찾아가기도 하였으며, 진로 검사 등을 통해 흥미와 적성을 파악하여 전공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었다.

처음에는 진로를 정하지 못하는 상태여서 그냥 관광 서비스학과 일단 들어갔는데, 실습 수업할 때 좀 관심이 생겼었어요. 항공 호텔 수업할 때는 이쪽으로 맞는 것 같다. 대학교 찾을 때도 좀 더 깊게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으로 최대한 관광 쪽을 찾았어요. (중략) 문화 같은 거나 아니면 거기 지역에 계시는 사람들이랑 소통을 하다 보면 좀 뭔가 재밌어요. 그래서 다문화 학교에 왔을 때도 여러 나라 사람들 만나고 나서 친구들과 같이 얘기할 때도 자기가 고향에 있을 때 이런 축제 같은 거 있다고 이런 얘기 들으면 나도 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서 그래서 여행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컸던 것 같아요. (참여자 B)

학교에서 여행하러 갔다가 관광 가이드 한 명이 있었는데 그게 좋아 보여서 그때 관심 갖게 됐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고 싶었어요. (참여자 C)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빠가 너는 사람이랑 대화하는 걸 좋아하고 또 운동을 좋아하니까 네가 경찰 쪽으로 가는 게 어떨겠냐 해가지고, 근데 저도 이제 생각해 보니까 경찰이 맞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찾아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찰이라는 직업이 책임감이 보였고, 그리고 나쁜 사람을 잡아간다는 게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참여자 G)

나. 한국에서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고자 노력함

연구 참여자들은 전공분야와 관련된 실습 및 봉사활동 등 실무경험을 하며 진로 경험을 쌓아갔다. 또한, 진로에 필요한 자격증을 미리 준비하기도

하였으며, 대외활동 등 외부 활동에 참여하며 취업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찾아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고등학교 다니면서 조주기능사 자격증도 많이 따고 호텔 쪽도 배웠어요. 대학교에 올라갈 때 엄청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반에서 제일 잘해요. (중략) 호텔 실습 다녀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말도 안 통하고 집에 도착하면 몸이 다 아프고 힘들어서 모르겠어요. (참여자 A)

제가 요즘 한국어 가르치거든요. 애들한테 그래서 그런 봉사활동 많이 하고 있어요. 집 근처에 있는 도서관에 다문화 가정이 많이 있어서, 저 같은 대학생들이 와서 외국인한테 한국어를 가르쳐줘요. 애들한테 한국어 가르쳐주고 캠프 가면은 번역해 주고 그런 거 하고 있어요. (참여자 C)

내년 9월에 시험이 있거든요. 일단 자격증을 취득하고 바로 회사에 지원하려고요. 자기소개서도 많이 작성해보고 대회도 작년에 한 번 나갔었고 내년엔 통번역 대회 한 번 더 나가보려고 해요. 작년에는 부산외대에서 개최했던 중국어 스피킹 대회 나가서 은상받았어요. (중략) 여름 방학 때도 무역회사에서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중국 바이어랑 거래하는 회사에서 들어가려고요. (참여자 D)

14) 여전히 낯선 곳에서의 불투명한 미래이지만, 나의 길을 찾기 위해 한 걸음 내딛고자 함

가. 장점과 전공을 살려 진로계획을 세워나감

연구 참여자들은 전공과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취업을 준비해 나가고 있었다. 전공에 맞는 직업을 찾아보며, 진로를 구체화 해나갔으며,

이중언어를 구사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살려 관련분야 회사에 입사하고자 하였다.

일단 국내 여행 안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필기시험이랑 면접 통과해서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어요. (중략) 학교에서 항공 수업도 있고 그래서 자격증 준비하고 있고, TC 자격증을 취득하고 난 다음에 국내 여행 안내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산회계 이쪽도 준비해보려고요. (참여자 B)

저는 다시 베트남 돌아가서 한국어를 가르치려고 해요. 졸업하고 나서 바로 갈 예정이에요. 가족은 다 베트남에 있으니까 엄마 아빠만 여기 있고 나중에 엄마 아빠도 다시 돌아가니까. 베트남에서는 한국어 아는 사람 좀 많아요. 근데 진짜로 잘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참여자 C)

무역회사 가고 싶은데 나중에 무역회사 하나 창업도 하고 싶어서 요즘에 중국이랑 무역 같은 거 많이 활발히 되어 있고, 저도 중국어 잘 하니까 전공을 살리고 싶어요. 제가 국제무역사 그리고 무역 영어 자격증도 같이 준비하고 있어요. (참여자 D)

나. 계속해서 나의 꿈을 만들어감

연구 참여자들은 모국어 한국어 외에도 또 다른 언어(영어 등)를 꾸준히 배워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졸업 후에도 다양한 시도를 통해 꿈에 더 가까이 가고자 하였다. 여전히 막연하고 불투명한 미래가 걱정이 되는 참여자들도 있었지만, 하고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탐색하며 진로방향을 찾고자 하였으며, 스스로가 가진 재능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였다.

저는 지금 전문대 다니고 있어서 복수전공이 안 되고. 2학년 졸업하고 나서 편입을 하려고요. 4년제로 그래서 편입 공부도 지금 하려고요. (중략) 저는 관광고등학교 때부터 관광을 했으니까 그래서 도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다른 분야도 한번 알아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중략) 휴학하고 호주나 캐나다로 어학 연수 다녀오려고요. (참여자 B)

대학에서 언어를 더 배울 생각이예요. 영어 공부도 좀 더 많이 해야 되고 따로 일본어 배울 생각이예요. (중략) 그리고 3학년 2학기 되면 취업 준비를 해야죠. 무슨 회사 있는지 알아보고 지원할 자격이 있는지 좀 보고 대학교 측에서 알려주는 채용 공고 많이 살펴보고 가끔 기업에서 저희 학교에서 대학생 채용을 하러 와요. 그런 것도 좀 참고 할 생각이예요. (참여자 E)

우선 졸업하고 당장 경찰 시험을 칠 거고요. 만약에 그게 잘 안 됐을 시에는 저에 있어서 가장 큰 장점이 중국어라고 생각하거든요. 중국어 필요한 곳 들어가서 잠시 아르바이트 하면서 경찰 시험 붙을 때까지 할 생각이예요. 경찰 준비도 딱 2년으로 잡고 있어요. 만약에 2년 동안 경찰 학교에서 떨어진다면 그때는 다른 직업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참여자 G)

2. 축코딩

1) 후기청소년기 중도입국청소년의 진로결정과정에 대한 패러다임 모형
축 코딩은 개방코딩을 통해 도출된 범주들의 상호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범주들을 특정한 구조적 틀에 맞게 연결시키고, 이를 패러다임 모형으로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패러다임이란 범주들 사이에 미묘하고 내재적인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조직적인 도식의 틀이라고 할 수 있다. 축 코딩을 통해 현상의 본질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으며, 범주들이 어떻게 구조적으로 서로 교차되고 연결되는가를 보여줄 수 있다(Strauss & Corbin, 1990).

본 연구의 후기청소년기 중도입국청소년의 진로결정과정에 대한 패러다임 모형은 그림 <그림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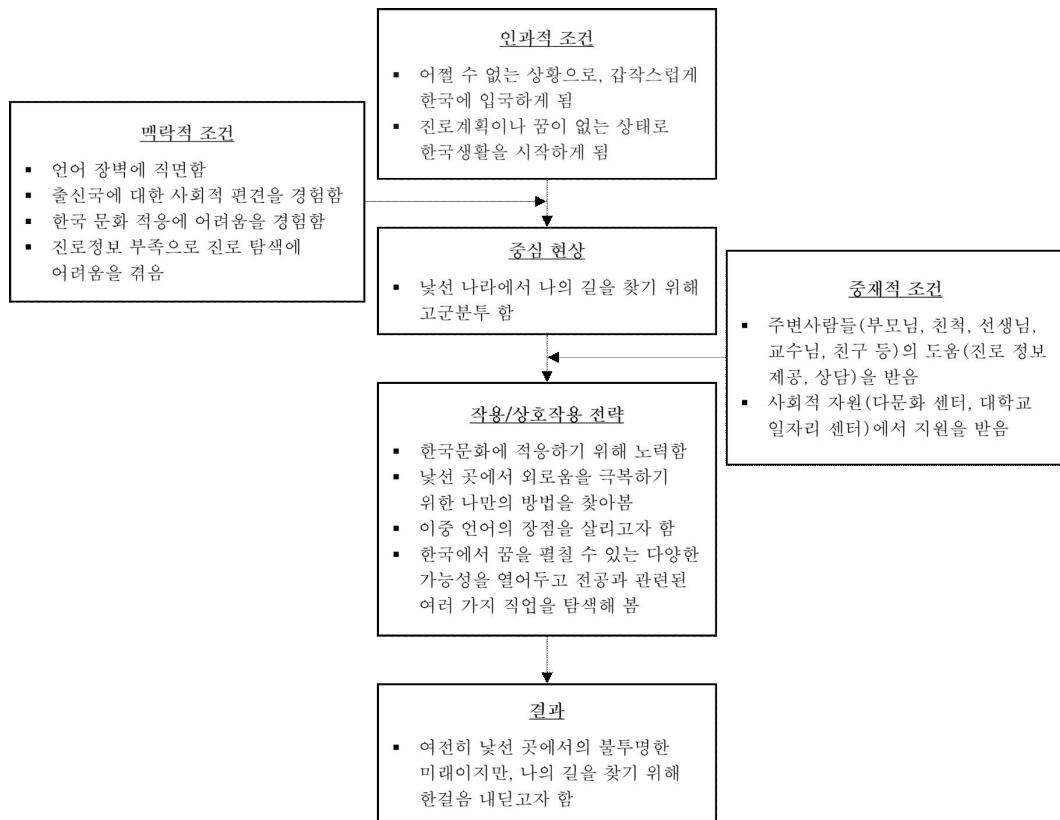


그림 3. 후기청소년기 중도입국청소년의 진로결정과정에 대한 패러다임 모형

가. 인과적 조건

인과적 조건(causal condition)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거나 발전하도록 이끄는 사건이나 원인이 되는 현상들로 구성된 것이다(Strauss & Corbin, 1990). 본 연구에서는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갑작스럽게 한국에 입국하게 됨’ 과 ‘진로계획이나 꿈이 없는 상태로 한국생활을 시작하게 됨’ 이 ‘낮선 나라에서 나의 길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함’ 이라는 중심 현상의 인과적 조건으로 나타났다.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갑작스럽게 한국에 입국하게 됨’ 의 속성은 ‘형태’ 로 ‘자의’ , ‘타의’ 의 차원에 따라 차이를 나타냈으며, ‘진로계획이나 꿈이 없는 상태로 한국생활을 시작하게 됨’ 의 속성은 ‘준비정도’ 로 ‘충분’ , ‘불충분’ 의 차원에 따라 차이를 나타냈다. 인과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은 <표 7>과 같다.

표 7. 인과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

범주	속성	차원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갑작스럽게 한국에 입국하게 됨	형태	자의 - 타의
진로계획이나 꿈이 없는 상태로 한국생활을 시작하게 됨	준비 정도	충분 - 불충분

나. 중심 현상

중심 현상(phenomenon)이란 일련의 작용/상호작용전략에 의해 다루어지고 조절되는 중심생각이나 사건 현상으로 연구참여자들에게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나타낸다(Strauss & Corbin, 1990). 본 연구에서 후기청소년기 중도입국청소년이 진로결정과정에서 경험하는 현상은 ‘낮선 나라에서 나의 길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함’ 으로 나타났다.

‘낮선 나라에서 나의 길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함’의 속성은 ‘태도’로 ‘적극적’, ‘소극적’의 차원에 따라 차이를 나타냈다. 중심 현상의 속성과 차원은 <표 8>과 같다.

표 8. 중심 현상의 속성과 차원

범주	속성	차원
낮선 나라에서 나의 길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함	태도	적극적 - 소극적

다. 맥락적 조건

맥락적 조건(contextual condition)이란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사고를 의미한다(Strauss & Corbin, 1990). 본 연구에서는 ‘언어 장벽에 직면함’, ‘출신국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경험함’, ‘한국 문화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함’, ‘진로정보 부족으로 진로탐색에 어려움을 겪음’이 중심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조건으로 나타났다.

‘언어 장벽에 직면함’, ‘출신국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경험함’, ‘한국 문화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함’, ‘진로정보 부족으로 진로탐색에 어려움을 겪음’의 속성은 ‘정도’로 ‘강함’, ‘약함’의 차원에 따라 차이를 나타냈다. 맥락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은 <표 9>와 같다.

표 9. 맥락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

범주	속성	차원
언어 장벽에 직면함	정도	강함 - 약함
출신국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경험함	정도	강함 - 약함
한국 문화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함	정도	강함 - 약함
진로정보 부족으로 진로탐색에 어려움을 겪음	정도	강함 - 약함

라. 중재적 조건

중재적 조건이란 구조적으로 주어진 상황에서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조절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Strauss & Corbin, 1990). 본 연구에서는 ‘주변 사람들(부모님, 친척, 선생님, 교수님, 친구 등)의 도움(진로 정보 제공, 상담)을 받음’, ‘사회적 자원(다문화 센터, 대학교 일자리 센터)에서 지원을 받음’ 이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중재적 조건으로 나타났다.

‘주변 사람들(부모님, 친척, 선생님, 교수님, 친구 등)의 도움(진로 정보 제공, 상담)을 받음’, 사회적 자원(다문화 센터, 대학교 일자리 센터)에서 지원을 받음’의 속성은 ‘정도’로 ‘충분’, ‘불충분’의 차원에 따라 차이를 나타냈다. 중재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은 <표 10>과 같다.

표 10. 중재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

범주	속성	차원
주변 사람들(부모님, 친척, 선생님, 교수님, 친구 등)의 도움(진로 정보 제공, 상담)을 받음	정도	충분 - 불충분
사회적 자원(다문화 센터, 대학교 일자리 센터)에서 지원을 받음	정도	충분 - 불충분

마. 작용/상호작용 전략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중재적 조건에 영향을 받아 현상에 대처하거나 이를 조절하고 다루는 의도적 행위이다(Strauss & Corbin, 1990). 본 연구에서는 중심현상인 ‘낮선 나라에서 나의 길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함’에 대처하기 위한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한국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함’, ‘낮선 곳에서의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나만의 방법을 찾아봄’, ‘이중 언어의 장점을 살리고자 함’, ‘한국에서 꿈을 펼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전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직업을 탐색해 봄’ 으로 나타났다.

‘한국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함’, ‘낮선 곳에서의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나만의 방법을 찾아봄’, ‘이중 언어의 장점을 살리고자 함’, ‘한국에서 꿈을 펼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전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직업을 탐색해 봄’ 의 속성은 ‘태도’ 로 ‘적극적’, ‘소극적’ 의 차원에 따라 차이를 나타냈다. 작용/상호작용 전략의 속성과 차원은 <표 11>과 같다.

표 11. 작용/상호작용 전략의 속성과 차원

범주	속성	차원
한국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함	태도	적극적 - 소극적
낮선 곳에서의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나만의 방법을 찾아봄	태도	적극적 - 소극적
이중 언어의 장점을 살리고자 함	태도	적극적 - 소극적
한국에서 꿈을 펼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전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직업을 탐색해 봄	태도	적극적 - 소극적

바. 결과

결과는 작용/상호작용 전략수행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다(Strauss & Corbin, 1990). 본 연구에서 ‘낮선 나라에서 나의 길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함’에 대한 작용/상호작용 전략의 결과는 ‘여전히 낮은 곳에서의 불투명한 미래이지만, 나의 길을 찾기 위해 한 걸음 내딛고자 함’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낮은 곳에서의 불투명한 미래이지만, 나의 길을 찾기 위해 한 걸음 내딛고자 함’의 속성은 ‘태도’로 ‘적극적’, ‘소극적’의 차원에 따라 차이를 나타냈다. 결과의 속성과 차원은 <표 12>와 같다.

표 12. 결과의 속성과 차원

범주	속성	차원
여전히 낮은 곳에서의 불투명한 미래이지만, 나의 길을 찾기 위해 한 걸음 내딛고자 함	태도	적극적 - 소극적

2) 과정분석

과정분석이란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이동에 따라 현상에 대한 반응, 대처, 조절에 관계되는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연결하는 단계를 의미한다(Strauss & Corbin, 1990). 본 연구에서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진로결정 과정을 분석한 결과 ‘혼란 단계’, ‘위축 단계’, ‘탐색 단계’, ‘수행 단계’, ‘결과 단계’의 5단계 과정으로 분석되었으며, 이에 대한 경로를 <그림 4>에서처럼 다섯 단계로 구분하였다.



그림 4. 후기청소년기 중도입국청소년의 진로결정 과정단계

가. 혼란 단계

후기청소년기 중도입국청소년들은 갑작스러운 한국 입국으로 인해 여러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었다. 낯선 땅에서 말이 통하지 않아 답답함을 느끼는 등 의사소통에 큰 어려움을 겪었으며, 새로운 문화를 습득하는 시간도 필요했다. 이들은 갑작스럽게 모국의 친구들과 작별하게 되었으며, 한국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는 데에도 오랜시간이 걸렸다. 10명의 연구참여자 모두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서, 진로에 대한 고민보다는 가장 먼저 이 사회에 적응해야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나. 위축 단계

이들은 한국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위축되는 경험을 하기도 했다. 자발적인 의지로 한국에 입국하게 되는 유학생들과 달리 부모의 이혼 및 재혼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한국에 입국한 상황에 대해 주눅이 들기도 하였다. 이들은 출신국에 대한 주변의 부정적 시선을 의식하여 출신국을

밝히지 않기도 하였으며, 미숙한 한국어에서 오는 작아짐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또한, 한창 진로에 대해 탐색해야 할 시기에 정보 부족으로 방황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다. 탐색 단계

이들은 위축 단계를 거쳐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인 걸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한국에서 잘 적응해 나갈 수 있을까?’ 와 같은 스스로의 정체성 대한 의문을 가지기도 하였으며, 한국에서의 자립을 위한 질문을 던져보기도 하였다. 이들은 위축 단계까지 비슷한 반응을 보였으나, 일부 참여자는 탐색 단계에서 한국 사회에 대한 기대감과 의문을 갖기도 하였으며, 답을 찾지 못할 경우 좌절하는 경험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라. 수행 단계

수행 단계에서는 참여자에 따라 세 부류로 나뉘어졌다. 스스로에 대한 의문에서 답을 찾지 못하거나, 동기부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참여자의 경우 자신을 탐색하여 목표를 세우기 보다는 주변의 흐름을 따라가려는 무기력하고 수동적인 모습을 보였다. 반면, 자신에 대한 의문을 갖고 목표한 바를 계획하고 시도해보려는 모습을 보이는 부류도 있었다.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갖고 의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자신의 재능을 살리는 길을 찾아 도전하는 부류도 확인되었다.

마. 결과 단계

결과 단계에서 무기력하고 수동적인 모습을 보이는 참여자의 경우 여전히 진로에 대한 결정을 보류한 채로 진로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으며, 시도와 도전의 과정을 거친 참여자의 경우 지금까지 마주했던 여러 가지

장벽을 극복해나가며 스스로가 가진 자원을 활용하여 진로 결정을 고려하였다.

과정분석 단계에서 참여자의 인터뷰를 자료를 분석하며 진로결정 정도를 평가하였는데, 이는 크게 진로 결정 집단, 진로 탐색 집단, 진로 유예 집단과 같은 세 집단으로 나누어졌다. 첫 번째, 진로 결정 집단은 흥미와 적성 등 자기이해를 바탕으로 아르바이트 또는 현장실습 등을 통해서 자신의 흥미와 직업활동이 일치하는지 확인해보며, 그들이 처한 환경에서 무엇이든 의욕을 갖고 도전해 나갔으며, 자신을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모습을 보였다. 두 번째, 진로 탐색 집단은 스스로에 대한 의문을 품은 채로 직업 탐구 등 작은 시도를 해나가가고 있지만, 아직은 진로를 탐색해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로,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갖고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세 번째, 진로 유예 집단은 진로 탐색에 대한 의욕이 부재되어있고,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무엇을 하고 싶은지 자유롭게 답할 수 있는 나머지 두 집단과는 달리 ‘아직 잘 모르겠어요.’, ‘생각해 본 적 없어요.’, ‘학교에서 정해주는 대로 할 거예요.’와 같이 답하며 수동적이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3. 선택코딩

선택코딩은 개방코딩과 축코딩을 통해 얻은 범주를 통합하여 핵심 범주를 중심으로 정교화하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핵심범주를 다른 범주와 연결시키고 관련성을 확인함으로써, 이야기 윤곽을 만들어나가게 된다(Strauss & Corbin, 1998).

1) 핵심범주: 낯선 땅 한국에서 여러 장벽에 맞서고, 이중문화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나의 길을 찾기 위해 한 걸음 내딛기

핵심범주란 도출된 모든 범주들을 대표할 수 있는 가장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범주로서, 모든 개념 및 범주들과 연관이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합적으로 나타내어야 한다. 또한 자료에 빈번히 등장하고 이론적 깊이와 설명적 힘이 있을 만큼의 추상성을 내포하고 있어야 한다(Strauss & Corbin, 1998).

연구 참여자들은 부모님의 재혼 및 이혼을 겪으며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갑작스럽게 한국에 입국하게 되었으며, 진로계획이나 꿈이 없는 상태로 한국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들은 한국에 오자마자 낯선 곳에 적응해야하는 과제가 주어졌으며, 초기에는 의사소통에 의한 어려움이 증가되었다. 또한, 출신국에 대한 주변의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출신국 자체를 밝히기 꺼려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동시에 한국 문화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했다. 진로에 대해 적극적으로 탐색해야 할 청소년 시기에 이들에게 당장 주어진 문제는 한국생활 적응이었다. 또한, 바쁜 맞벌이 부모의 무관심과 방치로 인해 진로정보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이들은 낯선 나라에서 스스로 자신의 길을 찾아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주변 사람들, 친구들, 다문화 센터 등을 통해 도움을 받아 한국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저마다의 방법으로 외로움을 극복해나가고 있었다. 또한 이들에게 주어진 개인의 재능과 이중언어 자원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활동과 실습 등을 통해 직업을 탐색해나가면서 노력하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낯선 땅 한국에서 여러 장벽에 맞서고, 이중문화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나의 길을 찾기 위해 한 걸음 내딛는 과정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2) 이야기 윤곽의 전개

이야기 윤곽이란 지금까지 언급되었던 개념, 범주들 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기술하여 하나의 이야기로 형성하여 서술하는 것이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의 이야기 윤곽은 다음과 같다.

연구에 참여한 후기청소년기 중도입국청소년들은 빠른 경우 초등학교를 다니던 중 늦은 경우 중학교 과정을 마친 후 한국에 입국하게 되었다. 참여자 대부분은 부모님의 이혼 후 한국인 새아버지 혹은 새어머니와의 재혼으로 인해 새로운 가족이 있는 한국에 오게되었다. 부모님의 재혼으로 인해 본국 있는 가족(조부모, 친적)과 지내기 어려워지면서, 한국으로 먼저 떠난 부모님(어머니 혹은 아버지)과 함께 생활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갑작스럽게 한국에 입국하게 되었으며, 갑작스러운 출국 준비로 인해 자신에 대한 충분한 탐색 없이 혹은 그럴 겨를도 없이 진로계획이나 꿈이 없는 상태로 한국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낯선 한국에 오게 되면서 제일 먼저 **언어 장벽에 직면하였다.** 미숙한 한국어로 인해 소통의 한계에 부딪히며 무기력해지거나, 발음이 서툴다는 이유로 주변에서 비웃음을 받기도 하며 이로 인해 자신감이 사라지고, 위축되는 경험을 하기도 했다. 서툰 한국어로 인해 수업을 따라가는 게 어려워지고, 이해가 가지 않는 수업에 흥미를 잃고 학업성적이 떨어지는 등 학업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며, 자연스럽게 친구를 사귀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또한 언어가 서툴다는 이유로 혹은 외모가 다르다는 이유로 **출신국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경험하기도 하였으며, 문화적 차이로 인해 오해받는 경험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을 겪는 등 모국의 문화와 다른 한국 문화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했다.** 한창 진로에 대해 탐구해야 할 청소년 시기에 참여자들은 한국어와 문화 등의 적응문제에 더 많은 시간을

쏟을 수밖에 없었으며, 이들의 부모 또한 먹고살기 위해 바쁜 환경에서 자녀들에게 더 신경을 쓰지 못하거나 무관심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방치되어졌다. 더군다나 한국의 입시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방황하거나 국적 변경으로 대학 입학의 문턱이 높아져 외국인 전형에 지원하지 못하여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심지어 다문화 전형에도 지원할 수 없는 조건으로 열악한 입시환경에 처하게 되며 선택할 수 있는 학교와 학과 또한 제한되었다. 참여자는 **진로정보 부족으로 진로탐색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참여자는 갑작스러운 환경변화로 인해 막막한 심경을 느끼고, 한국인으로 귀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외국인도 아니고 한국인도 아닌 것 같은 혼란 속에서 놓여지게 되었다. 이러한 정체성 혼란으로 인해 참여자들은 진로탐색을 미루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기도 하였으며, 한국에서 오랫동안 잘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갖게 되었다. 참여자들 스스로가 **낮선 한국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다. 일부 참여자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 진로에 영향을 받기도 했다. 적극적인 부모의 가이드에 도움을 받기도 하고, 부모의 역할을 대신해주는 친척을 통해 지지와 조언을 얻기도 하였으며, 학교에서는 담임 선생님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 또래 관계에 영향을 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친구의 도움을 받기도 했는데, 일부 참여자는 친구들의 진로 결정 과정을 보고 참고하기도 했으며,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기도 했다. 또한 입국 초기에는 다문화 센터와 같은 **사회적 자원**에서 지원을 받기도 했다. 특히, 한국어 및 한국 문화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며 초기 적응에 도움을 받았다. 참여자들은 친구들과 교류하며 자연스럽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익숙해져가고, 아르바이트를 통해 한국 사회를 경험해나가며 점차 **한국 문화에 적응**해 나갔다. 또한, 타지에서의 **외로움**을 취미나 신앙 등을 통해 자신만의 방법으로 극복해

나가고자 했다. 또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 중의 하나인 **이중 언어 및 이중 문화의 장점을 살린 진로계획**을 설정하여, 외국어 특기자 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하거나 이중 언어를 살려 전공을 결정하기도 했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성격과 잘 맞을 것 같은 진로를 탐구하거나, 관심있고 좋아하는 일을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자 전공과 연결시키고, 전공분야와 관련된 활동을 통해 경험을 쌓아가며 자신의 흥미와 일치하는지 파악해나며, **한국에서 꿈을 펼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관심분야에 대한 다양한 직업을 탐색**해보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다. 참여자들은 전공과 관련된 자격증을 준비하고 전공과 살린 직업을 갖기 희망하여 전공을 잘 살려보기로 결심하게 되었다. 졸업 후에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이뤄나가고자 하며, 이중 언어 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 또한 습득해나가고자 계획을 세우는 등 계속해서 진로를 개발하기에 힘쓰고 있었다. 결국 **여전히 낮은 곳에서의 불투명한 미래**이지만, **나의 길을 찾기 위해 한 걸음 내딛는** 과정을 통해 한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또한, 과정 분석의 결과로 나타난 진로 결정 집단, 진로 탐색 집단, 진로 유예 집단의 세 집단에서, 첫 번째, **진로 결정 집단**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낮은 한국에 입국하게 되면서 새로운 환경과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혼란**을 겪게 되었다. 또한, 언어 장벽과 낮은 교육 시스템으로 인해 **위축** 되는 경험을 했으며, 친구들과의 비교 속에서 자신감이 떨어지는 경험을 하기도 했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와 이중언어 구사의 장점 등을 **기대감**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며, 다양한 활동과 체험을 통해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 알아가며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를 찾아 다양한 활동을 **도전**하였다. 현장실습, 인턴십, 봉사활동 등에 참여하며 경험을 쌓아가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통해 얻은 경험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야로 **진로 결정**을 고려하며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기로 하였다.

두 번째, **진로 탐색 집단**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새로운 환경과 교육시스템에 **혼란**을 겪었으며, 무엇을 해야 할지, 어느 길로 가야 할 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잡지 못한 채로 한국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한국어에 능숙하지도 않았기에, 학업에서 어려움을 겪고, 친구들과의 소통에서도 문제를 겪으면서 점점 **위축**되어 갔다. 이로 인해, 자신감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도를 망설이게 되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어떤 분야에서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며 자신에 대한 **의문**을 갖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의문들은 오히려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의문에 답을 찾기 위해 전공분야 아르바이트, 대외활동, 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시도**해보며 경험을 쌓아나갔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의 흥미를 발견하고 여러 경험을 통해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계속 해서 **진로 탐색**에 힘써나가며 노력과 탐색을 해나가고 있다.

세 번째, **진로 유예 집단**은 어쩔 수 없는 가족 문제로 인해 한국으로 이주하게 되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과제에 부딪히게 되었다. 한국에 갈 준비로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볼 겨를도 없었는데, 학교에서 진로를 빨리 결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압박을 느끼며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언어 장벽과 학업에 대한 부담 등 학교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신감이 떨어지고 점점 **위축**되어 갔다. 부모님도 바쁘시고,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한다는 생각에 부담이 늘어갔다. 몇 차례 상담을 해보기도 했지만, 여전히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뚜렷한 목표를 세우지 못한채로 수동적인 학교생활을 이어나갔다.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 여러 번 좌절을 겪기도 하였다. 진로를 결정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더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기도 했으며, 계속되는 좌절과 실패로 인해 점점 무기력해져갔다. ‘어차피 뭘 해도 안될거야’ 라는 생각에, 새로운 시도도 하지 않게 되고,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의욕을 잃고 지내게 되었다. 결국 진로 유예 상태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진학을 하였다. 결국, 진로 탐색의 의욕을 잃은 상태로 잠시 멈춰서게 되었다.

V. 결론 및 논의

1. 연구의 결론 및 의의

본 연구는 후기청소년기 중도입국청소년의 진로결정과정은 어떠한지 또한 진로결정과정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 이해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 후기청소년기 중도입국청소년의 진로결정과정에서 중심 현상은 ‘낯선 나라에서 나의 길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함’이었으며 이는 낯선 땅 한국에서 여러 장벽에 맞서고, 이중문화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나의 길을 찾기 위해 한 걸음 내딛는 과정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중도입국청소년들은 자신의 의지가 아닌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한국에 오게 되었다. 주로 부모님의 이혼 및 재혼으로 인한 경우였으며, 다문화 가정의 경우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생계 및 진로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으며, 재혼 가정의 경우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도가 자녀의 진로와 진학에 영향을 미치는 등 부모 사이의 갈등으로 인한 이혼 및 재혼은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자녀에게 있어서 매우 커다란 장애 요인이라는 것을 선행연구에서 밝힌 바 있다(이창호, 송민지, 2013). 이로 인해 참여자들은 기억도 나지 않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양육체계의 부재 속에서 주로 조부모 또는 친척들에게 양육되어졌다. 이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에 소외감, 외로움, 무기력 등을 느끼며 방황하거나 위축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한국 입국 초기에는 부모의 재혼으로 인한 복합적인 가족구조로 인해 불안, 우울, 반항심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부모의 부재 및

새로운 가족관계 형성 등에서 우울과 자존감 등 심리·정서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하였다(송가람, 2023; 송민경, 김진원, 2017; 오성배, 서덕희 2012; 유비, 김기현, 2015). 우울과 자존감 등은 청소년들의 진로발달 및 진로정체감에 장기적 혹은 단기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 역시 선행연구들과 일치한다(신효정, 이문희 2011; 유비, 김기현, 2015). 따라서 후기청소년기 중도입국청소년이 경험하는 불안, 우울, 외로움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다룰 수 있도록 전문적인 상담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며, 이들의 자존감 회복과 정서적 안정을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을 통한 심리적 지원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중도입국청소년을 전담으로 하는 지원 교사를 각급 학교별로 배치하여 생활지도뿐만 아니라 학업 및 진로지도에 대한 밀착 지원하는 도움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사한 경험을 가진 친구 및 선배 등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지지할 수 있는 지원 그룹을 형성하여 심리적 안정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참여자들은 갑작스러운 한국으로의 입국과 동시에 언어와 문화에 적응해야하는 과제가 주어지게 되었다. 그들에게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미숙한 한국어였으며, 입국초기에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적응을 위해 대부분의 시간을 센터나 학원에서 보내는 등 한국어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했다. 미숙한 한국어로 인해 이해가 되지 않는 수업에 흥미를 잃고 성적이 하락하며 무기력해지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서툰 한국어 실력이 진로 미결정 상태를 야기한다는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한다(유진이, 소학섭, 2019). 또한, 한국어 수준이 낮을수록 진로장벽을 높게 지각하며, 자신감 부족을 야기한다고 확인되었으며, 문화적응에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진로장벽도 높게 지각하며, 자기이해, 자신감 부족, 직업정보 부족, 미래 불확실성 등에 대해 어려움을 경험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이지은, 2016). 해외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앞서 다문화 시대를 맞이하여, 이와 관련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관련된 정책도 더 발전되어 있다. 특히, 미국, 캐나다, 호주와 같은 이민 국가들은 다문화에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며, 영어교육 프로그램과 다문화 주간 등을 통해 다문화 이해를 높이고 있다(박언하, 2018). 따라서 우리나라도 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이 더욱 확대되어야 하며,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익숙한 현지인 또는 진로 모델이 될 수 있는 한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중도입국청소년 출신과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정서적 지지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정착 과정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사회적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중도입국청소년에게 외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또래 친구와의 언어교환을 통해 서로의 언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 및 교우 관계 확장의 기회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셋째, 또한 이들은 출신국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며, 정체성의 혼란을 겪기도 했다.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한국에 들어오게 된 중도입국청소년들은 한국에서 살아야 한다는 현실을 거부하거나 두려워하며, 새로운 문화권에서 살아가는 이주배경 청소년들은 정체성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결국 학습의욕 저하 및 또래 관계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한다(배상률, 2016; 오성배, 서덕희, 2012). 연구 참여자의 대부분은 한국인 아버지의 입양을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었다. 그러나 참여자의 일부는 스스로를 외국인이라고 칭하며, 모국의 정체성과 한국의 정체성 사이에서 망황하였다. 진로는 직업을 선택하고 이를 성취하는 과정인 동시에 자신이 누구인가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진로 결정 초기부터 정체성의 확립은 매우 중요하다(홍우정, 2019). 선행연구에 의하면

정체성이 유실되거나 혼돈에 빠진 개인들은 진로 결정에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직업의 회피, 사회적 기술의 부족을 나타낸다(배상률, 2016; 서덕희, 조은혜 2017). 이러한 정체성의 혼란은 진로결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한다(홍우정, 2019). 따라서, 자원봉사 활동 및 지역사회 프로젝트 활동 참여 등 중도입국청소년들이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이들이 사회적 관계망을 확장하고, 한국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신감을 갖도록 돕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학교 또는 지역사회에 다문화 축제 및 이벤트를 개최하여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고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자신의 문화적 배경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한국 사회와의 융합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넷째, 참여자들의 부모들은 대부분 맞벌이로 경제적 부담을 충당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후기청소년기 중도입국청소년들은 부모로부터 진로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등 진로정보 부족으로 인해 진로탐색의 어려움을 겪었다. 실제로 중도입국청소년들의 부모 대부분은 맞벌이를 하거나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 양육이나 돌봄에 대한 시간적 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녀의 진로문제에 관심을 갖기 어렵다는 선행연구결과와 유사한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전경숙, 2017). 중도입국청소년들에게 가족은 발달과 사회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정희정, 김소연, 2014), 후기청소년기 중도입국청소년들은 가족으로부터 진로와 관련된 도움을 받은 경험이 부족하고 한국 생활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송가람, 2023)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실제 중도입국자녀들은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탐색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본국에서 진로결정을 했더라도 입국 후 선택한 진로와 관련된 정보가 부족하여 진로준비행동이 어려웠다(유진이, 김소형, 2018). 또한, 참여자들은 부모님, 학교, 친구, 지역 사회 구성원 등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진로정보에 대한 도움을 얻을 수 있는데, 이들은 사회적 관계망 자체가 좁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도 한국의 진로 문화와 시스템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 때문에 중도입국청소년의 경우 진로준비행동 수행을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일반 청소년보다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도 맥을 같이한다(오성배, 서덕희, 2012). 특히, 후기청소년기 중도입국청소년의 경우 청소년기에 입국하여 부모님이나 친구와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진로와 관련된 정보가 부족하여 진로 미결정 상태에 놓여지게 되었다(유진이, 소학섭, 2019). 또한, 외국인 전형으로 진학을 하게 될 경우 일반 전형보다 더 폭이 넓게 진학이 가능한데, 정보부족으로 인한 귀화로 선택지가 좁아져 제한된 학교와 학과로 진학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졌다. 이는 귀화로 인해 대학입시 특별전형제도에서 모두 배제되어 다수의 한국 학생들과 동일한 선상에서 입시경쟁을 하게 된다는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한다(채소린, 2022). 따라서 중도입국청소년들을 위한 구체적인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진로체험 및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직업체험 및 산업체 현장 실습 등을 통해 중도입국청소년들이 다양한 직업과 진로를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부모 세대에 진로에 대한 이해와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부모들도 중도입국자녀의 진로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귀화자를 위한 특별전형이나 장학금 제도 등을 도입하여, 중도입국청소년들 또한 다양한 선택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참여자들은 진로결정과정에서 부모님, 선생님, 교수님, 친구, 가족 및 다문화 센터 등의 영향을 받았는데, 이 속성이 충분할수록 적극적으로 진로 탐색을 개발해 나갔다. 반면에 이 속성이 불충분할수록 이들은 진로에

소극적이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부모님의 적절한 가이드와 진로에 대한 지도를 받은 참여자의 경우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진로를 설계하기도 하였다. 이는 부모의 긍정적인 진로 관여가 자녀의 진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도 일치한다(이유경 외, 2012).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모의 정서적 지지가 진로계획을 준비하는데 용이하고, 진로계획에 있어 친구와 교사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교사와의 관계가 좋았던 학생들은 진로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데에 영향을 받았으며, 또래집단이 청소년들의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포부에 선생님의 지지가 강력한 지지원이라는 선행연구와도 일치한다(유진이, 2019). 따라서, 중도입국청소년 부모를 대상으로 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부모의 진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절한 가이드와 지도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에서는 부모와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학부모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학부모가 자녀의 진로 고민에 함께할 수 있는 지지자원으로서 기능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후기청소년기 중도입국청소년들은 결국 한국 사회에 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기 위해 자신이 가진 이주 배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인 이중언어능력과 이중문화 이해능력을 살려 대학에 진학하였으며, 이를 직업과도 연결시켜가며 스스로의 흥미와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만한 요인으로 이중언어 능력을 활용하여 진로를 선택하거나, 입시에서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전형에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선행 연구와도 일치한다(강부자, 최연실, 2020). 이들은 모국과 한국의 문화차이를 인정하고, 더 알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각각의 문화를 받아들인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며(이병철, 송다영, 2011), 자신을 주변인이라고 인식하지 않고, 두 문화 사이의 장점을 더 많이 인식하고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와도 맥을 같이한다(Kerwin et al., 1993). 한편, 참여자들은 아르바이트 및 현장 실습을 통해 직업을 탐색해보는 과정을 거쳤는데, 조혜영 외(2012)가 주장한 후기청소년 세대들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진로결정 및 진로준비활동 제고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선행연구와는 달리 일부 후기청소년기 중도입국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 경험을 통해 자신을 탐색하거나 진로결정을 하는 등 아르바이트 경험이 진로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대조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후기청소년기 중도입국청소년들에게 언어 및 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이중언어능력과 이중문화 이해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아르바이트 및 현장실습 기회를 통하여, 자신의 관심과 재능을 발견하고 이에 적합한 직업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후기청소년기 중도입국청소년들의 진로결정은 기존의 심리학 이론에서 다루는 것보다 더 복잡하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맥락과의 연결을 통해 조망되어야 한다. 이들은 종종 경제적 제약과 사회적 소외를 경험하면서 자신의 진로를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의 진로결정은 직업적 성취와 같은 자아실현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후기청소년기 중도입국청소년들의 진로결정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다 새로운 시각과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특수한 집단의 진로결정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존 이론과 연구에서 구축한 틀을 넘어선 폭넓고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후기청소년기 중도입국청소년들에게 주어진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주고, 사회적으로 통합되어지고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돕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철학적 배경으로 하는 근거이론을 통해 후기청소년기 중도입국청소년의 진로결정과정을 조망함으로써, 후기청소년기 중도입국청소년이 자신의 경험에 부여하는 의미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한 질적 연구이다. 이에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도입국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된 선행 연구들은 주로 적응을 주제로한 실태조사나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양적 연구에 치중되어 있었다. 기존의 연구들은 현상을 진단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데 기여한 점이 있으나, 다양한 변인들의 영향 하에 변화되는 과정의 측면을 간과하여 후기청소년기 중도입국청소년의 진로결정과정을 통찰하는 데에는 한계를 보였다. 본 연구는 특정 시점의 문제 상황에 초점을 두는 양적 연구와는 달리, 진로결정과정 전반에 대한 경험적 실체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언어, 문화, 사회적 배경 등 다문화적 관점에서 후기청소년기 중도입국청소년의 진로결정과정 및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이해하려 노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중도입국청소년과 관련된 연구 대상의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선행 연구들은 주로 학령기의 중도입국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전체 중도입국청소년 중 학령기에 진입한 학생의 비율이 높아서인 점도 있지만, 대학교로 진학한 중도입국청소년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일 수 있다. 본 연구는 현실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후기청소년기에 진입한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대학에 진학한 중도입국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그들의 진로결정과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후기청소년기에 진입한 중도입국청소년의 진로결정과정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족한 현실에서, 그들을 직접 만나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정책에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후기청소년기에 진입한 중도입국청소년의 진로결정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중도입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이들의 적응문제에 초점을 두어 연구하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적응문제와 더불어 진로결정과정을 함께 놓고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서 그들을 이해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진로를 결정할 때 안정적인 환경에서 적절한 사회적 지원을 받으면 진로결정과정에서 자신감을 높일 수 있으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에 있어 의의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후기청소년기 중도입국청소년의 진로결정과정에서 진로결정을 위해 선택하는 전략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선행 연구가 적응 과정의 경험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면, 본 연구는 후기청소년기 중도입국청소년들이 진로결정과정에서 시도하는 행동 전략에 관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어떤 전략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는지, 선택한 전략은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확인하는 기회를 마련하였고, 그 특징을 살펴볼 수 있었다.

2.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 연구 제언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후기청소년기 중도입국청소년의 진로결정과정에 대한 모형과 이론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의 참여 인원은 10명으로 이에 대한 결과를 모든 후기청소년기 중도입국청소년에게 적용하고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진행한 내용의 양적 접근으로 분석을 진행하고, 참여자 수를 충분히 확보하여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는 참여자의 출신국에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주로 중국과 베트남의 배경을 가진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이들의 입국 시기, 양육 방식, 배경 국가, 한국어 실력, 성별 등이 통제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따라서 참여자의 기준을 통제하여 비슷한 입국 시기, 동일한 배경 국가 등이 조금 더 통제된 상황에서의 진로결정과정의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게 된다면 일반화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결과의 다양성을 얻기 위해 다양한 배경의 국가를 추가하여 이들의 문화적 배경과 사회적 배경을 충분히 반영하여 분석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의 참여자는 모두 2년제 이상의 대학 재학생으로,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학교 밖 후기청소년기 중도입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 또한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셋째, 본 연구는 후기청소년기 중도입국청소년의 진로결정과정을 주제로 참여자들을 인터뷰하였으나, 진로결정과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추적 없이는 진로결정과정의 본질을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연령별, 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장기적인 추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구 참여자의 입국 시기에 따라 한국어 수준에 차이를 보였다. 초등학교 시기에 입국한 참여자는 비교적 높은 한국어 수준을 보였으나, 중학교 졸업 후 입국한 참여자는 한국어 수준이 비교적 낮았다. 이민자의 언어 효능감이 높을수록 학업성취도와 진로 포부가 높았다는 연구결과(Zhou, 1997)에 따라, 향후 국내에서 잘 적응하고 있는 중도입국청소년의 적응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중도입국청소년들이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성공적인 학업 및 진로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참여한 개인의 상황적, 성격적 특성이 연구결과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주요한 타인과 면담을 병행하여, 대상자가 설명한 내용에 대한 평가와 대상자의 진로결정과정 에 대한 생각을 추가 인터뷰를 통해 확인함으로써 자료를 더 풍부하게 보완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와 더불어, 추후 연구에서는 후기청소년기 중도입국청소년들에 대해 질적, 양적으로 다각화된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이들의 환경과 조건에 맞는 진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여, 이에 대한 효과, 연구과정 및 결과를 연구해 나가며, 후기청소년기 중도입국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부자, 최연실 (2020).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내 한국출생 성인초기 자녀의 성장과정과 사회적응: 근거이론접근. **가정과삶의질연구**, 38(1), 171-203.
- 강진령 (2015). **학교상담과 생활지도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 강현주, 김정화, 최민지 (2012). 사회적 자본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기의 비교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4(2), 281-306.
- 교육부(2023). 교육기본통계. <https://www.moe.go.kr>
- 구영애, 서명선, 안성식 (2020). 대학생의 전공선택동기와 진로스트레스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취업진로연구**, 10(4), 49-74.
- 김갑성 (2008). 한국 내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실태조사 연구. **청소년문화포럼**, 18, 57-95.
- 김강남 (2019). **후기 청소년기 중도입국청소년의 자립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김민경 (2015).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발달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청소년시설환경**, 13(2), 121-134.
- 김민경 (2020). 학교밖 중도입국 청소년의 진로준비에 대한 현상학적 융합연구. **한국융합학회논문지**, 11(6), 249-258.
- 김민선, 김재훈, 고은영 (2022). 다문화 청년들이 경험하는 성인기 진로 선택에 대한 합의적 질적 연구. **진로교육연구**, 35(1), 111-141.
- 김민정, 김봉환 (2014). 대학생 진로자기조절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상담학연구**, 15(6), 2311-2325.

- 김민정, 정미경 (2014).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초등학생의 진로 인식 비교 연구 - 경기와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실과교육연구**, 20(2), 265-291.
- 김승경 (2013).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203.
- 김영란, 전경옥, 김현숙, 오혜진 (2020). 서울시 이주 배경 어린이·청소년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중도입국 청소년을 중심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 김용현 (2015). 대한민국 미래보고서. 국제미래학회.
- 김재훈, 김민선 (2021). 다문화 가정 자녀 관련 연구 동향과 향후 과제. **현대사회와 다문화**, 11(1), 1-24.
- 김중운, 박성실 (2012). 대학생의 정서지능과 진로결정의 관계에서 진로장벽의 매개 효과. **직업교육연구**, 31(2), 23-43.
- 김지경, 정연순, 이계백 (2015).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정책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312.
- 김진선 (2015).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생활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 김충기 (1996). **진로교육과 진로상담**. 서울: 건국대학교출판부
- 김현철 (2016). 다문화가족 자녀의 사회적 수용성 강화 방안. **2016년 다문화가족포럼 연계 학술대회 자료집**. 숙명여자대학교.
- 김효정, 김봉환 (2011). 청소년구직자들이 진로결정과정에서 겪는 경험에 대한 근거이론적 사례분석. **한국상담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675-690.
- 김효정, 조규필 (2018).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사회 적응과정 연구. **다문화와 인간**, 7(1·2), 59-103.

- 노승인 (2018). 사회통합을 위한 이주배경 청소년 정책 및 개선 방향 - 중도입국한 후기청소년의 진로와 직업교육을 중심으로. **비교법학**, 29, 48-65.
- 노충래, 홍진주 (2006). 이주노동자 자녀의 한국사회 적응실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22, 127-159.
- 류방란, 오성배 (2012). 중도입국 청소년의 교육 기회와 적응 실태. **다문화교육연구**, 5(1), 29-50.
- 류방란, 오성배, 박균열 (2011). **외국출생 동반입국 청소년을 위한 교육복지 정책방안**.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박서라 (2018). **중도입국청소년의 진로발달 경험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 박숙경, 이지연 (2020). 진로결정 과정에서 여자 대학생이 인식하는 제약과 대처에 관한 질적 연구: 일의 심리학 이론의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2(4), 2001-2035.
- 박순희 (2009). 다문화가족 아동의 특성과 사회적응. **한국아동복지학**, 29, 125-154.
- 박연하 (2018). 한국의 다문화 청소년 교육 지원 서비스 방향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21, 9(5), 1397-1411.
- 박은혜 (2018). **중도입국청소년의 이주 및 고등학교 생활경험**.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배상률 (2016). 중도입국 청소년 실태 및 자립지원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307.
- 법무부 (2023). 2022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https://www.immigration.go.kr>

- 서덕희 (2015). 결혼이주여성의 자녀교육 어려움에 대한 중단적 사례연구: 학력에 따른 아버투스와 문화접변 전략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25(1), 211-247.
- 서덕희, 조은혜 (2017). 중도입국청소년의 진로성향과 그 생태학적 조건에 대한 탐색. **교육문화연구**, 23(1), 217-247.
- 석희정, 하춘광 (2015). 중도입국청소년들의 가족생활적응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학교사회복지**, 31, 1-35.
- 선혜연 (2016). 다문화가정 학생의 진로발달 연구 동향. **한국상담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8, 792-792.
- 설동훈 (2017). 다문화 청소년의 권리와 사회참여기반 확대: 평가와 전망. **한국청소년학회 학술대회**, 51-61.
- 손보영 (2015). 성인진입기의 다중역할계획태도 중단변화.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송가람 (2023). 중국 출신 중도입국 청년들의 진로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 송민경, 김진원 (2017).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사회 입국 전·후 삶에 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58, 103-139.
- 송원일 (2021). 중도입국청소년 연구의 10년 동향분석 - KCI 등재 논문을 중심으로 - , **다문화아동청소년연구**, 6(1), 27-55.
- 송현주 (2020).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광주여자대학교 대학원.
- 신혜정 (2007).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신효정, 이문희 (2011). 진로성숙 발달에 관한 4년 중단 연구 - 스트레스, 공격성, 우울의 효과 -. **청소년학연구**, 18(7), 139-161.

- 심정희 (2022). **중도입국청소년들의 외국인학교 생활에 관한 질적연구**.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 심탁아 (2020).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교생활 개선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 안병삼 (2009). 초국가적 이동현상에 따른 중국 조선족의 가족해체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14(3), 153-177.
- 안진아, 정애경 (2019). 일의 심리학 이론의 한국 진로상담 적용 방안. **상담학연구**, 20(2), 207-227.
- 양계민 (2023). 성인기 이행을 위한 후기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방안. **이주배경청소년 사회진출 지원 방안 정책토론회 자료**. 37-50.
- 양계민, 정윤미, 장윤선. (2021). 이주배경청소년실태조사.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 양계민, 조혜영 (2011). 중도입국청소년 실태조사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양계민, 조혜영 (2012). 중도입국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에 관한 탐색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19(11), 195-224.
- 양인준, 김기민 (2023). 청년층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유형에 따른 진로성숙도, 진로탐색행동 및 진로의사결정 수준 차이분석. **취업진로연구**, 13(4), 89-111.
- 여성가족부 (2022). 2021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https://www.mogef.go.kr>
- 여성가족부 (2023). 다문화가족 주요 통계. <https://www.mogef.go.kr>
- 오성배 (2011). 다문화 교육 정책의 교육사회학적 탐색. **한국교육사회학회 학술대회 발표 자료**. 261-289.
- 오성배, 서덕희 (2012). 중도입국 청소년의 진로의식, 진로준비행동과 사회적 지원 실태 탐색. **중등교육연구**, 60(2), 517-552.

- 오은주 (2014). 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1(4), 31-58.
- 오찬호 (2010). 후기청소년 세대들이 ‘민주주의 이슈’를 이해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 : 서울·경기 지역 대학생들에 대한 종단적 분석을 중심으로. **기억과 전망**, 22, 214-251.
- 오치선, 김진화 (1999). 청소년의 직업 및 진로의식에 관한 연구. **인문과학연구논총**, 20, 187-211.
- 유기웅, 정종원, 김영석, 김한별 (2018).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개정판**(2nd ed.). 서울: 박영스토리.
- 유나현, 이기학 (2016). 한국 대학생의 진로결정의 어려움 군집유형에 따른 상담개입목표 차이 연구. **진로교육연구**, 29(2), 237-256.
- 유비, 김기현 (2015). 한국 다문화 중도입국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한국인 부모가정)의 진로정체감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비교. **한국사회복지학**, 67(1), 5-29.
- 유진이, 김소형 (2018). 중도입국청소년의 진로결정 요인에 대한 연구. **다문화아동청소년연구**, 3(1), 3-46.
- 유진이, 소학섭 (2019). 중도입국 청소년의 진로계획 경험 연구. **다문화아동청소년연구**, 4(1), 67-105.
- 윤형준 (2019). 다문화 2세대의 성인 초기 발달과업 수행에 대한 지원정책의 발전방향. **인문사회** 21, 10(6), 369-378.
- 윤형준 (2020). 다문화 2세대의 대학생활적응 및 지원에 관한 질적 연구. **다문화콘텐츠연구**, 35, 225-251.
- 윤형준 (2023). 다문화 2세대의 성인초기 과업수행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현대사회와 다문화**, 13(1), 1-22.
- 이근무, 이재관 (2022). 북한이탈주민들의 직업생활에 대한 근거이론 연구: Glaser의 근거이론 접근. **다문화와 평화**, 16(2), 1-29.

- 이동훈 (2019). 다문화학생 전문상담전략. 2019년 진로진학·전문
상담교사 다문화 역량강화 연수 자료집. 279-290.
- 이병철 (2012). 중도입국 다문화가족 초등학생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인천대학교 대학원.
- 이병철, 송다영 (2011). 다문화가족 중도입국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3(4), 131-154.
- 이성령 (2016). 중도입국 청소년의 중학교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질적연구. 석사학위논문. 경인교육대학교 대학원.
- 이성령 (2022). 외국인 청소년의 진로의사결정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박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대학원.
- 이승미, 이해응, 이화용 (2017). 서울시 중도입국 청소년 현황 및 지원방안
연구.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연구사업보고서, 1-180.
- 이유경, 류재운, 방홍복 (2012). 부모의 긍정적 진로관여가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 '다문화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비교를 중심으로' . **청소년학연구**, 19(2), 129-154.
- 이지은 (2016). 중도입국청소년의 진로장벽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이창호, 송민지 (2013). 다문화청소년 중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80.
- 이춘양, 박미숙 (2017). 후기청소년기 중국계 중도입국청소년 체류경험에
관한 연구. **다문화와 평화**, 11(3), 160-178.
- 전경숙 (2017). 다문화가정 중도입국청소년의 진로준비와 정착계획에 관한
탐색적 연구. **GRI 연구논총**, 19(1), 441-473.
- 전경숙 (2020). 비제도권 중도입국청소년의 이주 후 사회적응에 관한 질적
연구 -가족 및 사회적 지지의 긍정적 효과-. **다문화콘텐츠연구**,
35, 253-291.

- 전경숙, 이의정 (2012). 다문화가정 중도입국청소년의 초기적응 지원방안 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전미리, 김봉환 (2015).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성격 5요인과 인지 · 행동적 변인의 영향. **진로교육연구**, 28(4), 41-57.
- 전병주 (2012).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사회적 자본 및 문화변용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10(11), 29-38.
- 전상진, 정주훈 (2006). 한국 후기 청소년 세대의 발달경로와 성장유형. **한국사회학**, 40(6), 261-285.
- 정규진 (2016). 부산지역 대학생의 진로결정과정에 대한 근거이론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대학원.
- 정다운, 김병수 (2019). 북한이탈청소년의 진로결정과정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문화자본을 중심으로. **한국교육문제연구**, 37(2), 29-59.
- 정희정, 김소연 (2014). 다문화가족 중도입국자녀의 사회연결망에 관한 사례연구: 청소년 상담지원체계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9(4), 831-853.
- 조복희, 이주연 (2005). 부모와 별거하는 중국 조선족 아동의 생활환경과 적응문제. **아동학회지**, 26(4), 231-245.
- 조성남, 이현주, 주영주, 김나영 (2011). **질적연구방법과 실제**. 서울: 그린
- 조현진, 서보순, 박재국, 박량은 (2016). 장애대학생의 진로결정 과정에 대한 근거이론적 접근. **특수교육저널 : 이론과 실천**, 17(1), 239-267.
- 조혜영, 김지경, 전상진, 정민주, 정윤미, 김신경, 이재연 (2012). 후기청소년 세대 생활 · 의식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 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429.
- 채소린 (2022). 중국 출신 중도입국청소년의 대학교육 의미와 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교육인류학연구**, 25(2), 291-328.

- 채향화 (2020). **제한 조선족 대학원생의 진로결정에 관한 질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최영미, 송영호 (2020). **중도입국청소년의 가족적응에 관한 연구 - 초국가적 가족관계 및 새로운 관계구성을 중심으로**. *GRI 연구논총*, 22(4), 189-213.
- 최훈, 진영재 (2010). **후기 청소년의 직업특성 평가와 취업자 이미지 차이 연구 : 서비스직업군 전공 대학생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7(11), 69-94.
- 통계청 (2023). **인구동태통계연보**.
- 하정 (2007). **학업우수 여자고등학생의 직업결정과정**.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행정안전부 (2023).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www.mois.go.kr
- 허해연 (2018). **중국계 중도입국청소년의 학교생활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홍우정 (2019).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진로 준비 경험에 대한 근거이론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황복선 (2019). **중도입국청소년의 진로의사결정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결대학교 대학원.
- Arnett, J. J. (2004). *Emerging adulthood: The winding road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Blumer, H. (1969). *Symbolic interactionism*.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Blustein, D. L. (2013). The psychology of working: A new perspective for a new era. *The Oxford handbook of the psychology of working*, 3-18.

- Creswell, J. W. (2005).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전통**, 조홍식, 정선우, 김진수, 권지성 공역. 서울: 학지사. (원서출판 1998)
- Creswell, J. W., & Poth, C. N. (2018). **질적연구방법론**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조홍식, 정선우, 김진숙, 권지성 공역(2021). 서울: 학지사
- Denzin, N. K., & Lincoln, Y. S. (1994). **질적연구핸드북**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SAGE 아카데미프레스
- Duffy, R. D., Blustein, D. L., Diemer, M. A., & Autin, K. L. (2016). The psychology of working theor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3*(2), 127.
- Ellis, L. M., & Chen, E. C. (2013). Negotiating identity development among undocumented immigrant college students: A grounded theory stud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0*(2), 251.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o. 7). WW Norton & company.
- Flores, L. Y., Mendoza, M. M., Ojeda, L., He, Y., Meza, R. R., Medina, V., ... & Jordan, S. (2011). A qualitative inquiry of Latino immigrants' work experiences in the Midwes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8*(4), 522.
- Glaser, B., & Strauss, A. (1967).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Chicago: Aldine.
- Harren, V. A. (1979). A Model of Career Decision making for College Students, Southern Illinois University-Carbondal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4*(2), 119-133.

- Keniston, K. (1968). *Young radicals. Notes on admitted youth*. New York: Harvest.
- Kerwin, C., Ponterotto, J. G., Jackson, B. L., & Harris, A. (1993). Racial identity in biracial children: A qualitative investig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0*(2), 221.
-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 (1994). Toward a unifying social cognitive theory of career and academic interest, choice, and perform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5*(1), 79–122.
-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Beverley Hills, CA: Sage.
- Lincoln, Y. S., & Guba, E. G. (1986). But is it rigorous? Trustworthiness and authenticity in naturalistic evaluation. *New directions for program evaluation, 1986*(30), 73–84.
- Mathew, D. (2019). *Career decision-making of immigrant young people who are doing well: Helping and hindering factor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 Mead, G. H. (1934). *Mind, self, and society*(Works of George Herbert Mead, Vol. 1, C. W. Morris, E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erriam, S. B. (2009). *Qualitative research: A guide to design and implementation*.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Rowell, P. C., Mobley, A. K., Kemer, G. & Giordano, A. (2014). Examination of a Group Counseling Model of Career Decision Making With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llege Counseling, 17*(2), 163–174.

- Strauss, A. L. (1987). *Qualitative analysis for social scientist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trauss, A. L., & Corbin, J. M.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 Strauss, A., & Corbin, J. (1990).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신경림 외역(1996). 근거이론의이해. 서울: 한울아카데미
- Super, D. E. (1980). A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6(3), 282-298.
- Zhou, M. (1997). Growing up American: The challenge confronting immigrant children and children of immigrants. *Annual review of sociology*, 23(1), 63-95.

ABSTRACT

A Qualitative Study on the Career Decision–Making Process of the Immigrant Youths in the Late Adolescence

Kim, Young Eun
Counseling Psychology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 s University

This research investigates the career decision–making processes of late adolescent immigrants in Korea. The study focused on ten individuals aged between 19 and 24 who had spent their formative years abroad, regardless of nationality, and who had immigrated to Korea during adolescence following the remarriage of one foreign parent to a Korean citizen. Semi–structured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these subjects, and the data collected were analyzed using the grounded theory method outlined by Strauss and Corbin (1990).

The examination of career decision–making processes among these late adolescent immigrants resulted in the identification of 89 concepts, 37 subcategories, and 14 categories through open coding.

During the axial coding phase, a 'Paradigm Model of Career Decision-Making Processes for Late Adolescent Immigrants' was developed, which outlined the sequential stages of this process.

The core phenomenon identified was described as 'struggling to find one's own path in a foreign land.' The causal conditions for this phenomenon were 'unplanned and sudden immigration to Korea' and 'beginning life in Korea without any pre-existing career plans or dreams.' The contextual conditions affecting this phenomenon included 'encountering language barriers,' 'experiencing societal prejudice related to one's country of origin,' 'difficulties in adapting to Korean culture,' and 'challenges in career exploration due to a lack of career information.' The intervening conditions that modified action/interaction strategies included 'receiving support (providing career information, counseling) from individuals around them (parents, relatives, teachers, professors, friends)' and 'assistance from social resources (multicultural centers, university job centers).' The action/interaction strategies influenced by these intervening conditions involved 'efforts to adapt to Korean culture,' 'finding personal methods to overcome loneliness in unfamiliar environments,' 'utilizing the benefits of bilingualism,' and 'exploring a variety of vocational opportunities related to their major in Korea.' The outcomes of these strategies were described as 'continuing to face an uncertain future in a foreign land, yet taking steps to forge one's own path.'

In the process analysis, the career decision-making stages of late

adolescent immigrants were examined as a sequence evolving over time, segmented into five distinct stages: 'Confusion,' 'Contraction,' 'Exploration,' 'Implementation,' and 'Outcome.' The Implementation stage was marked by participants who demonstrated proactive challenges towards their career paths. The Exploration group consisted of participants who persistently deliberated and tested various career options, while the Deferral group was characterized by participants displaying a passive and apathetic approach to career exploration.

During the selective coding phase, a unified core category was identified as 'Taking a step forward in finding my path in the unfamiliar land of Korea, confronting various barriers, and positively utilizing bicultural resources.'

This research provides empirical evidence of the career decision-making process of late adolescent immigrants, showing that this process can be viewed as a continuous progression. The study's significance lies in its identification of the strategies these adolescents employ in making career decisions and in recognizing the situational and environmental factors that influence these decisions. The insights gained into the career decision-making process of late adolescent immigrants are invaluable, offering foundational data that could inform further research and enhance understanding of this demographic.

Keywords: Late adolescent immigrants, Career decision-making processes, Grounded theory

부록 1. 모집 안내문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문

연구제목 : 후기청소년기 중도입국청소년의 진로결정과정 에 대한 질적연구

본 연구는 후기청소년기 중도입국청소년의 진로결정과정 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모집 안내문을 신중하게 읽어보시고, 참여를 희망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세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 연구는 연구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신 후 시작하게 되며 인터뷰는 연구 주제인 진로결정과정 에 대하여 **약 1시간~1시간 30분 정도 진행될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에 따라 동의 하에 1회의 추가 인터뷰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면접 내용은 참여자의 동의를 얻은 후 **녹음될** 예정입니다.
2. 연구 자료 분석 후에는 **결과에 대하여 설명 및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3. 참여자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으며**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또한, 참여자는 연구에 참여한 후에도 **언제든지 도중에 그만 둘 수** 있습니다. 참여 중지 시 귀하의 자료는 더 이상 연구에 사용되지 않고 즉시 폐기됩니다.
4. 인터뷰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할 것이며,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5. 본 연구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인터뷰로 진행되므로, 이전의 해결되지 않았던 부정적인 경험이 상기될 수 있어 **심리적 불편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뷰(1시간~1시간 30분) 시간에 따른 **시간 상의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구자는 이러한 가능성을 인식하고 참여자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여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도움이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 연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외 만일 연구 참여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위험 요소에 대한 질문은 담당 연구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모 집 안 내 -----

- **참 여 대 상** : 외국에서 성장 과정을 거치고 부모님 중 한 분이 외국인으로 한국인과 재혼하게 되어 청소년기에 한국으로 입국하게 된 만 19세~24세의 중도입국청소년, 모든 국적 참여 가능
- **모 집 인 원** : 15명 내외
- **참 여 방 법** : 동의서 작성 후 인터뷰 1회 참여(1시간 30분 정도 소요)
- ※ 단, 참여자의 동의 하에 1회에 한하여 이메일/전화 등으로 추가 인터뷰 요청될 수 있음
- **인 터 뷰 장 소** : 참여자가 원하는 장소(대학교, 스터디 카페 등)
- **사 례 비** : 30,000원
- **연 구 자** : 김 영 은(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생)
- **책 임 연 구 자** : 조 효 진(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교수)

부록 2. 연구 참여자 설명서

연구 참여자 설명서

연구제목 : 후기청소년기 중도입국청소년의 진로결정과정에 대한 질적연구

본 연구는 후기청소년기 중도입국청소년의 진로결정과정에 대한 질적연구입니다.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설명서와 동의서를 신중하게 읽어보셔야 합니다. 이 연구가 왜 수행되며, 무엇을 수행하는지 귀하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김영은 연구담당자는 귀하에게 이 연구에 대해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 될 것입니다. 다음 내용을 신중히 읽어보신 후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길 바라며, 필요하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의논해 보십시오. 만일 어떠한 질문이 있다면 담당 연구원이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귀하의 서명은 귀하가 본 연구에 대해 그리고 위험성에 대해 설명을 들었음을 의미하며, 이 문서에 대한 귀하의 서명은 귀하께서 자신이 본 연구에 참가를 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본 연구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석사과정에 재학중이며 연구담당자입니다. 이 연구의 주제는 **후기청소년기 중도입국 청소년의 진로결정과정에 대한 질적연구**입니다. 저는 후기청소년기 중도입국청소년의 진로결정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으며, 본 연구를 통하여 진로결정과정에 대한 본질을 깊이 있게 이해함으로써 탐색적 연구 및 추후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연구 참여 대상

본 연구에서는 **국적에 상관없이 외국에서 성장 과정을 거치고 부모님 중 한 분이 외국인으로 한국인과 재혼하게 되어 청소년기에 한국으로 입국하게 된 만 19세~24세의 중도입국청소년**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연구참여자는 현재 만 19세이상에서 만 24세에 해당하며, 자신의 경험에 대해 보고할 수 있는 자율성을 가진 성인을 대상으로 할 것이며, 본 연구의 참여하는 인원은 15명 내외입니다.

3. 연구 방법

만일 귀하가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면 다음과 같은 과정이 진행될 것입니다. 먼저 연구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서면 동의서를 작성하시고 인터뷰를 위해 참여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게 됩니다. 인터뷰에서는 연구 주제인 **진로결정과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인터뷰는 약 1시간~1시간 30분 정도 진행될 예정이며, 1차 면접 이후 경우에 따라 1회의 추가 인터뷰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면접 내용은 귀하의 동의를 얻은 후 녹음될 예정이며, 녹음된 내용은 연구자가 전사하여 사용할 예정입니다.

연구 자료 분석 후에는 결과에 대하여 귀하께 설명해 드리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이 과정은 대면, 전화, 이메일 중 귀하께서 선택하신 방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연구의 정확도를 높이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귀하께서 추후 원하지 않는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이기도 합니다.

4. 연구 참여 기간

인터뷰는 **2023년 10월부터 2023년 12월 사이**에 이루어질 것이며, 이 기간 중 귀하는 본 연구를 위해 한 번의 인터뷰에 참여하도록 요청받을 것입니다. 다만, 1차 면접 이후 보충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의 추가 인터뷰가 진행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도 귀하께서 동의하신 경우에 진행될 것입니다.

5. 자발적 연구 참여와 중지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으며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귀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또한, 귀하는 연구에 참여하신 **언제든지 도중에 그만 들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담당 연구원이나 연구책임자에게 즉시 말씀해 주십시오. 참여 중지 시 귀하의 자료는 더 이상 연구에 사용되지 않고 관련된 자료를 즉시 폐기할 것입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얻게 될 **귀하의 경험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할** 것이며, 귀하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연구자는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어떠한 자료도 귀하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타인에게 노출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면접 과정에서 이야기된 내용 중에서 귀하께서 원하지 않는 부분은 어느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며 원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기록 삭제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6. 부작용 또는 위험과 불편함

본 연구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인터뷰로 진행되므로, 이전의 해결되지 않았던 부정적인 경험이 상기될 수 있어 심리적 불편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귀하는 언제든지 인터뷰를 멈출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당 최대 3시간(2회 인터뷰일 경우)까지 진행되므로 시간 상의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구자는 이러한 가능성을 인식하고 참여자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여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이후 스트레스에 대한 중재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 연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만일 연구 참여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위험 요소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담당 연구원에게 즉시 문의해 주십시오.

7. 연구 참여에 따른 보상 또는 비용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개인적인 직접적 이득은 없습니다. 그러한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는 연구참여자 경험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인터뷰를 마친 뒤, 인터뷰에 참여하신 귀하의 시간과 노력에 대한 소정의 사례비로 회당 현금 30,000원이 지급될 것입니다. 귀하가 연구 참여시 추가로 지불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8. 연구 참여에 따른 이익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인 직접적 이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하면서 그 동안의 진로결정과정 경험에 있어 중요한 삶의 과정을 되돌아보고 성찰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참여가 후기청소년기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이해 및 인식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연구들의 기초가 되는 탐색적 연구로서의 의미를 담은 귀중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9. 개인정보와 비밀보장

본 연구의 참여로 귀하에게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귀하의 이름(가명 처리), 성별, 연령, 학과, 전화번호, 이메일, 인터뷰 자료입니다.

연구를 위하여 간단한 인적사항(성별, 연령)을 확인하고자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귀하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부호화 처리하여 진행할 예정이며, 신원확인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가명을 사용할 것입니다. 또한 귀하께서 본 동의서에 가명의 사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집된 인적사항 중 성별 및 연령 정보는 익명 처리되어 최종 연구물에 제시되고, 수집된 자료는 안전장치와 암호가 있는 장소에 보관할 것입니다.

이 정보는 연구를 위해 3년간 사용되며 수집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적절히 관리됩니다. 본 연구자는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정보와 비밀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정보는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결과가 학회 및 학술지를 통해 출판될 경우에도 성명 및 개인을 알 수 있는 정보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법이 요구하면 귀하의 개인정보는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 요원, 점검 요원, 성신여자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연구대상자의 비밀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 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관련 자료를 직접 열람하거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구 종료 후 연구관련 자료(기관위원회 심의결과, 서면동의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현황, 연구종료보고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연구 종료 후 3년간 보관됩니다. 보관 기간이 끝나면 모두 폐기 및 삭제될 것입니다.

자료의 보관 일자는 연구 시작일로부터 연구 종료 후 3년(2026년 7월)이며, 연구의 녹음파일의 경우 연구자의 하드 자체에서 삭제 및 휴지통 삭제, 녹음기(핸드폰)에서 모두 영구 삭제됩니다.

귀하가 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의사로 간주될 것입니다.

10. 연구 문의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다음 연구 담당자에게 언제든지 연락하십시오.

- 연구 담당자: 김 영 은(성신여자대학교 교육학과 상담심리)
- 연구 책임자: 조 효 진(성신여자대학교 교육학과 상담심리 교수)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대상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성신여자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연락하십시오.

성신여자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